

박영재 서강대 교수
'통찰과 나눔'은 하나
"날마다 선행 합시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7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52호 2013년 8월 7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육조단경

깨달음의 지혜는 본래 있다
다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까닭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급증하는 흰개미에 목조 문화재 '비상'

한반도 아열대화, 사찰 흰개미 피해 대책은?

기후변화로 목조건물인 사찰의 흰개미 피해가 심각하다. 해당당국에서도 긴급방재가 실시되는 가운데 종단차원에서도 매뉴얼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29일 부산 범어사 등에 긴급보수비 예산을 지원해 방재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긴급조치가 진행된 사찰은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제하당, 보은 법주사 대웅전 및 관음전과 나한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과 제하당, 내소사 대웅보전과 지장암 등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201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요목조문화재 321건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 내역을 보면 사태는 심각하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77개 목조건물에 대해 흰개미 피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모든 조사 대상 지역이 흰개미 피해를 입었다.

조사를 담당한 서민석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피해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에 위치한 사찰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남 부안 내소사의 경우 보물 291호인 내소사 대웅전과 지장암 건물이 흰개미로 인해 붕괴 직전에 처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체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에서도 흰개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 스님들의 거처인 일로향각이 피해를 입은 데 이어 보물 434호인 대웅전 옆 관음전까지 흰개미가 덮쳤다는 것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김천 직지사, 고창 선운사 등 1500년 이상 된 고찰들 역시 피해가 감지됐다.

현재 문화재청은 이들 사찰에 흰개미 번식을 막는 군체제거시스템이 설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올해 목조문화재 조사 결과
대상 77곳 모두 흰개미 피해

범어사, 법주사 등 4곳
문화재청 긴급 방충 시작
사찰들 수시로 군불 넣고
식생 정리해야 피해 줄어

할 예정이다. 특히 보은 법주사의 경우 내년경 방충 사업이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흰개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 정비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2월 14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문화재 안전관리 토론회에서는 전국사찰의 흰매기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주요사찰의 방재라인에 자리한 나무 그루터기와 장작더미 등을 제거하고 전각 후면의 습한 환경으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흰개미의 서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09년 흰개미 탐지견과 탐지장비로 전국 사찰과 사적 16개소 231개 동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33.8%인 78개 동이 흰개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재 교수는 "당시 해인사의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종무소까지 피해가 있었다"며 "흰개미 방재는 목조 문화재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등 주변 정비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흰개미 서식의 자가 점검 내역으로 기둥 바닥의 목재부스러기 유무, 천장의 빗물 누수 현상 등을 들었다. 또 사찰에서 마루 구들에 군불을 넣고, 주변 수목을 정리해 흰개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문화재청 조차 생물피해 분야에는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분야는 보수, 단청, 실측, 설계, 보존과학 등으로 방재는 속하지 않는다. 불교계의 경우도 이 분야에서는 전적으로 당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일부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하지만 예방 대책을 세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에 흰개미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는 등 문화재 소유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생물피해관리 매뉴얼을 지난 6월 배포했다"며 "9월 초 방제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 '템플스테이' 배운다

중앙승가대 · 문화사업단 5일 산학협력 협약

중앙승가대에 이르면 내년부터 '템플스테이'가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돼 학사운영에 반영된다.

중앙승가대(총장 대행 미산)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7월 5일 산학협력 협약식을 열고 템플스테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승가대는 포교사회학과 전공과목 내에 템플스테이 과정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 제반 환경을 내년 3월까지 준비하게 된다. 또한 교육 과정과 콘텐츠 개발, 교육 수요도 조사 및 분석 등 연구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양성을 위한 연구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교과 과정 개발은 현재 운영 중인 기초과정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진행되며, 추후 실무 과정, 국제화 과정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도 확대된다.

또한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두 기관은 '템플스테이 아카데미(가칭)'을 설립하고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전문 인력을 양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사업단은 산학협력 협약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위한 사업 방안을 논의해왔다. 6월에는 승가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설명을 개최했으며, 중앙승가대가 정규 과정 운영을 위한 개발 과정에 동참할 뜻을 보여 협약이 성사됐다.

템플스테이 정규과목 편성
내년 3월까지 교육환경 마련
아카데미 운영… 인력 양성
자격증 제도 도입도 추진

이번 협약에 대해 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 인력 교육 체계의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템플스테이의 질적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우수학술도서 선정 과정 밝혀라"

불출협 올해 선정에 항의… 5일까지 해명 촉구

불교계 출판사 모임인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 이하 불출협)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불출협은 7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불출협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종교 분야에 총 8종이 선정됐으나 불교 관련 도서는 한 종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정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술도서 출판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출협은 도서 선정 단체인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에 '종교' 분야에 '불교학'을 제외시킨 것인지를 비롯해 △불교 전공자가 전무한 심사위원 △불교학 분야 심사위원 명단과 전공 분야 공개 △일련에 과정 등을 8월 5일까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불출협회장 지홍 스님은 "책 1, 2권이 더 선정된다고 해서 출판사의 경제 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반발 하는 것은 불교 전문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불교 서적을 심사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불교계 전문가가 입회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이뤄졌다면 우리도 이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을 반성했을 것"이라며 "심사 위원 추천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지명해 회신했음에도 진흥원 측은 자기 편의대로 심사를 진행했고,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질 낮은 학술서들이 선정됐다. 사실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출판계에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952호 INDEX

종합 2·3
군법당 지역불교 교육센터로
문화재 영문 표기 기준 마련
세계 한국 사찰 앱으로 만난다

시방세계 5
불자 청소년 철원 DMZ 평화순례



테마가 있는 사찰 기행 12
제천 정방사- 얼음골 휴양림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선불화 '쌍림열반도' 日서 500년만의 귀환

군산 동국사, 31일 이운 법회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시대 불화 '쌍림열반도'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는 7월 31일 대웅전에서 '쌍림열반도' 이운 법요식을 봉행하고 환수 과정과 문화재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는 가졌다.

이번에 공개된 '쌍림열반상도'는 가로 225㎝ 세로 93㎝ 크기의 마(麻) 소재 바탕에 그린 진채(眞彩) 불화로 위쪽에 막대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다.

주로 녹색과 적색의 석채 안료와 금분을 사용해 그린 부처의 열반 당시 장례모습이 모두 담겨있으며 여덟 왕이 사리를 나누는 장면,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부처님을 중심으로 보살들과 제자들이 애도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유일한 가로형의 열반도 걸개그림으로써 조선시대 불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고(最古)본 팔상도로 평가될 전망이다.

그림을 감정한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고증을 거쳐 국적과 제작연대가 확인되면 사상 최초로 발견된 가로형 열반도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지 종걸스님은 "약탈문화재로 확인될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민간주도로 환수하게 되는 좋은 사례가 될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0대 회장단 취임식 대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위문법회 봉행

감사의 인사말씀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에서는 제10대 회장단 취임대법회를 대신하여 지난 28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위문 대법회를 갖고 훈련병 5천명에게 설법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면서 단주 5천개와 다과 5천명분을 전달했으며 호국연무사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하는 인간방생에 힘썼습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1995년 4월 15일에 창립하여 매년 크고 작은 행사와 불우이웃돕기, 수재민돕기, 군부대 위문, 교도소 교화와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위문법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소속 각 종단 종정예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호국연무사 현조 법사님과 원담 사무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2013)년 7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석월인 화남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 2층 216-1호 / 전화 042)285-1227
●사 무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 전화 02)756-122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0대 회장단


회장 석 월 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부회장 석 청 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상임부회장 석 청 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부회장 석 룡 담 대종사
대한선불교조계종 종정

10분 명상으로 집중력 'UP'

조계종 포교원, '마음 등불' 청소년 10분 집중 명상 개최

"서서히 호흡하면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5, 4, 3, 2, 1."

지도 선생님의 설명에 맞춰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이완시킨다. 그러면서 천천히 몸이 가져오는 변화를 가만히 관찰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아이들은 느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2013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의 일환인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을 진행했다.

'청소년 10분 명상'은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2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최초 1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15회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반복훈련 과정이다. 특히 한 사물을 집중해서 응시하거나 소리를 듣고 외우는 명상으로 집중력 향상과 함께 심신안정과 기억력, 학습태도 변화를 이끌어낸다.

8월 1일 찾은 국제선센터 금차선원에서는 이 같은 명상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완 명상을 마친 아이들에게 지도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다이어리를 주고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가 학생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기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완 명상이 끝나고 난 후에는 10분 집중명상과 전두엽 훈련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명상. 가부좌를 틀고 앉은 아이들은 이내 진지하게 명상에 들어갔다. 정확히 10분 간의 명상 후에는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두엽 훈련이 진행됐다. 처음은 주제 숫자를 사칙 연산하는 것부터 잔상, 이미지 훈련, 숨은 그림 찾기 등 숨겨져 있는 뇌를 깨우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짧은 기간이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10분 명상 프로그램이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진행한 금강선원의 청소년 10분 명상에 참가한 학생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

이완 명상 통해 스트레스 점검
집중 명상 · 전두엽 훈련 '눈길'
학생들 "마음 편해져" 이구동성

송민규(성남중3)군은 "집중명상을 해보니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잔상 훈련은 신기해서 정말 즐거웠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미라(등촌중3)양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계속해보니 집중에 많은 도움을 준다. 즐거운 경험이었다" 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명상상담연구원장 인경 스님이 2011년부터 30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명상캠프'를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전국 각지에서 9월 초순까지 운영한다. 명상상담연구원의 '청소년 명상캠프'는 1:1 지도형 심성계발 프로그램으로 '영상관법'을 통해 내적인 자기 통찰을 유도하며 걷기, 먹기 등의 오감 명상, 바디 스캔명상 등으로 감정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중일불교교류회의 11월 중국서 열린다

종단협 이사회서 결의… 회정 정사 부회장 추대

제 1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남성 산야시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3국 불교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평화기원법회는 11월 27일 봉행하며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라는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도 열린다.

이에 앞서 종단협의회 이사회는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으며,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와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 조계종 총무부장 원담 스님을 신임 상임이사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또 신규 회원종단으로 법연종(총무원장 조연 스님)도 가입시키기로 했다.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은 28개로 늘어났다.

김주일 기자

군법당은 지역불자 교육센터로 변모 중

14개 전국 군법당, 9월부터 불교교리강좌 연이어

그동안 장병들의 신행활동에 집중했던 군법당들이 다채로운 불교강좌를 개설해 지역사회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사찰이 없는 도심지에서 포교당 역할을 담당하거나 낙후지역의 포교거점으로서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군법당에서 진행되는 강좌는 다양하다. 초기불교 강의 등 불교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영상으로 배우는 불교공부, 불서 독서 토론 클럽, 불교미술의 이해 등 문화강좌까지 영역을 넓혔다.

먼저 군종교구 교구종무소가 있는 서울 용산 원광사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초기불교 교리 강의가 주지 월명 법사의 강의로 실시된다. 현재 전반기부터 강좌가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호국사자사에서는 9월부터 금강경 오가해 중 야부 도천 스님의 해설을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금강경의 선적 이해'라는 강좌를 주지 진상 스님이 강의한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호국사에서는 불교아카데미 강좌가 진행된다. 화랑호국사에서는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불교기본과정' 불교아카데미가 실시되며, 불교대학 1년 과정의 핵심을 모아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반야심경과 불교교리 과정'이, '반야심경과 마음공부'를 교재로 저자 직강으로 실시된다.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의 호국선봉사에서는 용인불교대학의 일환으로, 9월말부터 3개월 과정의 불교기초반 강좌가 주지 혜산 스님의 강의로 실시된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다.

경기도 양주군 호국비룡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예화로 이해하는 금강경 강좌'가 주지 원경 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

원주시 학성동의 법웅사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다양한 경전강좌가 이어진다. 강사로는 동국대 김경집 교수,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안동대 이효걸 교수가 나선다. 홍천군 호국화랑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불교미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주지 혜징 스님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불서를 읽는 자리도 마련된다.

전국 군법당 교리 강좌 목록

군 법 당	강 의 명	강 사	일 시 (9월부터)	문 의 처
서울 용산 원광사	초기불교 강의	주지 월명 스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02-796-0230
서울 송파 사자사	금강경의 선적 이해	주지 진상 스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02-403-3180
서울 노원 호국사	불교기본과정	주지 법상 스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02-972-7747
경기 용인 선봉사	불교입문반	주지 혜산 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031-331-1630
경기 양주 비룡사	예화로 이해하는 금강경 강의	주지 원경 스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031-863-5512
대전 자운사	영상으로 배우는 불교공부	주지 정우 스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042-862-6543
대전 법련사	신심명 강좌	주지 상적 스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042-878-1173
충북 괴산 학림사	불교교리반	주지 정행 스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043-830-6090
충북 영동 남성사	불교강당 기본반	주지 범망 스님	매주 화, 금요일 오후 7시	043-744-9555
충북 증평 충용사	기초교리강좌	주지 법화 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043-836-0161
대구 무열사	금강경 강좌	주지 경제 스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053-750-1621
전남 광주 관음사	초기불교 교리강좌	주지 법승 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062-571-7832
강원 원주 법웅사	경전강좌	김경집 동국대 교수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033-742-2701
강원 홍천 화랑사	불교미술의 이해	주지 혜정 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033-433-7723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의 자운사는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불서 독서 토론 클럽'이 진행되며, 불교 소책자 5권 정도를 교재로 정해 독서 토론을 실시한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흥미로운 영상들로 배우는 불교공부'가 진행된다. TV에 나왔던 다양한 불교 영상물들 가운데 엄선한 영상을 보고 함께 불교공부를 하는 재미있는 불교강좌다.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호국법련사는 주지 상적 스님의 주관으로,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신심명 강좌가 시작된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송산리 충용사 강좌는 불교교리와 찬불가 강좌가 함께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격주로 불교교리와 찬불가 강의가 실시된다.

이번 군법당 강좌에 대해 군종교구는 "조계종의 신도교육 시행 강조와 신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의 '조계종 일원으로서 종지를 따르고 종단과 고유하며 자신이 머무르는 지역에 부처님 법을 전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침에 군승들의 원력이 더해져 많은 강좌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광장, 총무원장 추대 일정 확정

7월 30일 대표단 회의서 추대위 구성 결의

직능 · 본사 · 비구니 · 종책 모임
50여 명 참여… 각 분야 제안
9월 2일 전 단일후보 추대 예정

오는 10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재 최대 종책모임으로 부상한 불교광장이 후보자 추대 및 추대위원회 구성, 일정을 확정했다.

불교광장은 7월 30일 대표단, 감사,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추대위원회 구성 및 일정 등에 대한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불교광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추대위원회에 공동대표, 부대표, 감사,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20개 교구본사, 선원 · 율원 · 강원, 전국비구니회, 무차회, 보림회 등의 대표 스님들을 참여키로 결의했으며, 이들 기관에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추대위 구성 인원은 약 5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제34대 총무원장 후보자 추대를 위한 일정도 확정했다. 불교광장은 8월 5일 추대위원 확정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었으며, 매주 월요일 정기 회의를 갖고 9월 2일 이전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첫 회의 이후에는 후보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차주 상보〉

불교광장 대변인 덕문 스님은 "선원 · 율원 · 강원, 비구니회, 보림회가 추대위원회 참여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위원 구성은 50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종단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총무원장 후보자로 추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서 불교광장에 대해 적지 않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향후 추대된 후보자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돼도 어떠한 이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총무원장, 종교적 열정과 식견 함께 해야"

연대회의, '총무원장 자격 요건' 주제 토론회

한국불교의 최대 종파인 조계종 총무원장은 고도의 종교적 열정과 사회적 식견이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세원 인천대 교수는 청정성 회복과 정법 구현을 위한 사부대중 연대회의가 주최한 7월 30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자격 요건과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 교수는 "비구는 승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음 · 도 · 살 · 망의 바라이를 범한 적이 없어야 한다"며 "바라이를 범한 적이 있는 자는 스스로 그러한 소임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 그나마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응 스님, 서동석 사부대중연대회의 공동대표,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총지종 종의회의장 수현 정사 선출

부의장 법우 정사, 사감원장 법상인 전수



불교총지종 제11대 중앙종의회가 7월 23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진주 화음사 주교 수현 정사〈사진〉를 만장일치로 중앙종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종회 부의장에는 서울 실지사 주교 법우정사가 선출됐다.

이날 중앙종의회는 원의회에서 논의 상정한 사감원장 인준, 복지재단 감사과 유지재단 감사 추천, 실지사 불사의 건, 제 3회 통일음악제 진행사항 등의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했다.

사감원장은 현 사감원장 법상인 전수(부산 자석사 주교)를 재인준했다. 동해중학교 감사에는 도현 정사(마산 운천사 주교), 복지재단 감사에는 승원 정사(대전 만보사 주교), 도현 정사(마산 운천사 주교), 유지재단 감사에는 승원 정사(대전 만보사 주교)가 각각 선임됐다.

김주일 기자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및 육성하며, 전통을 품고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는 불교미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

■ 제출방법 및 작품규격
▶ 공통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응모원서)
• 작품설명서(작품소개, 제작의도, 세부제작과정, 사용재료 등 구체적으로 명기)
▶ 작품 제출방법
• 모든 작품 (신청서 및 설명서 + 실제 작품) : 방문접수
▶ 작품 규격
• 회화 세로 227㎝×가로 181㎝ (150호) 이내
액자의 경우 외경 크기임, 사경(변상도 있는) 판화 가능
• 조각 높이 180㎝×폭 180㎝×두께 120㎝ 이내
실내전시 가능한 작품, 석조인 경우 옥외전시 가능
• 공예 높이 180㎝×폭 120㎝×두께 120㎝ 이내
병풍의 경우 펼쳤을 때 외경 크기임, 서각 가능
▶ 기타사항
• 작품설명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모든 작품은 작품설명서와 실제작품을 함께 제출함
• 작품제출 시 액자에 유리를 끼운 작품은 접수 불가함
• 공동작업 일지라도 응모자는 1인만을 명기함

■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2013년 1월 1일 현재)

■ 응모원서 배부 및 작품접수
▶ 원서 배부기간 : 2013년 7월 29일 ~ 8월 29일
▶ 원서 배 부 처 :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다운로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작품접수(실제작품 및 작품설명서)
• 접수기간 : 2013년 8월 27일 ~ 29일 (3일간)
• 시 간 : 오전 10시~ 오후 6시 까지(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응 모 비 : 1점당 50,000원(1인 2점까지 응모가능)

■ 심사발표 : 2013년 9월 3일(화) 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시상내역

대 상(1명)	상장, 1,500만원
최우수상(2명)	상장, 500만원
우 수 상(3명)	상장, 300만원
장 려 상(6명)	상장, 100만원
특 선(00명)	상장
입 선(00명)	상장

※ 시상내역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상식 및 작품전시
▶ 시 상 식 : 2013년 10월 1일(화)
▶ 시상장소 : 전통문화예술공연장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內)
▶ 전시일정 : 2013년 10월 1일(화) ~ 10월 17일(목)
▶ 전시장소 : 불교중앙박물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內)

■ 문의처 :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TEL: 02-2011-1779, FAX: 02-722-2606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관 |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미술협회, 동국불교미술인회,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사랑의 교회 직권 취소 국민 청원 시작

주민대책위, 7월 15일부터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해 서초구가 허가한 도로점용 처분을 서울시 직권으로 최소해달라는 청원이 진행된다.

종교 ·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주민감사대책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서울시 직권취소를 위한 청원 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이 같이 반발한 이유는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법성 문제 대신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 라는 각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기 때문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오직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 취소 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청원에는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서명을 기입한 후 서울시장 앞으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단체 청원시 연명부를 작성해 등기발송해야 한다. **신중일 기자**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 계획 '확정'

비구니 군승 파송 계획이 확정됐다. 국방부(장관 김관진)는 7월 25일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군종병과 여성인력 총 14명(기독교 8명, 불교 6명)을 배정해 운영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내년(2014년)에는 육군에 불교 1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군종병과의 여성인력 개방은 각 군의 여성인력 개방 추세와 종교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는 것"이라며 "향후 장병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정신전력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송은 그동안 군포교 현장에서 여성 특유의 감성을 활용한 포교를 전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관심이 높았다.

비구니 군승의 자격은 장교로 임관하는 해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인 4년제 대학졸업자다. 현재 군종교구는 자격을 충족하는 비구니 스님 1명을 선발한 상태다. 군종교구는 추가로 1명을 더 선발해 당초 계획인 2명의 비구니 군승이 내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 영문표기 통일됐다

문화재청, 표기 규칙 8월 1일부터 시행

제각각으로 사용된 문화재 영문 표기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통일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재 영문 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규칙을 제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은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어권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표기 기본원칙으로 △국문 고유의 문화재명칭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 등 4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 표기 기준에 맞춰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7가지 기준을 정했다. 또 문화재명칭을 구성하는 890여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했다.

국문 고유 명칭 최대한 유지
불교문화재는 범어 사용 등
혼란 최소화… 안내물에 적용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게 된다. 예를 들어 불국사의 경우 'Bulguksa'와 'Temple of Buddha Land'를 병행해 표기할 수 있게된다.

특히 불교문화재와 관련해선 부처님과 보살의 영문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불상은 국문 문화재명칭인 '재질+존명+형태' 순으로 된 경우 '재질+형태+존명' 순으로 표기하게 된다. 금동보살입상은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로 표기한다.

이와 함께 불교 관련 전적은 흔히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경우 영문제목을 사용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을 제시하는 영문용례집을 올해 연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전쟁 참전 벨기에 용사 60년 만에 봉은사 찾아

한국전쟁 당시 사찰과 인연을 맺었던 외국인 병사들이 60년 만에 그 인연을 되짚어 한국을 찾았다.

프랑소와 봉땅 주한 벨기에 대사와 한국전참전 벨기에 재향군인회 소속 참전용사 10명은 7월 31일 정전 60주년을 맞아 서울 봉은사를 방문해 주지 진화 스님을 만나고 경내를 참배했다.

당시 봉은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벨기에 참전용사들은 60년이 지나도 당시의 감동을 잊지 않았다.

이날 벨기에 참전용사들은 주지 진화 스님과의 면담에서 "당시 한국인들의 모습과 그 문화를 보며 이 땅에 평화를 지키는 것에 사명감을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노덕현 기자**

중앙신도회, 불교폄훼 언론 대응기구 결성

'불교수호비상대책위' 도박승 보도한 SBS부터 제재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불교를 폄훼하고 조계종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에 대해 강력 대응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7월 30일 회장단 대책회의를 열고 '불교수호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했다.

'불교수호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정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줄 · 봉은사 신도회장)가 맡았다. 위원은 중앙신도회 부회장인 하복동 김태근 김동기 임장수 위원으로 꾸려졌다.

'불교수호비상대책위원회' 는 조계종 지도부의 도박 의혹을 보도한 SBS '궁금한 이야기 Y' 가 의도적으로 불교폄훼를 했다는 시각에서 출범한 기구다.

이날 불교수호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종단의 법질서 확립과 종교평화를 위해 허위 날조된 비방과 폭로로부터 종단을 외호하며, SBS '궁금한 이야기 Y' 를 비롯한 의도적인 불교폄훼 보도와 불공정한 각종 언론보도 등에 대해 엄정하게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 韓사찰… 앱에서 만난다

미주불교신문사, 2014년 '세계한국불교 총람' 앱 개발

미국전역의 한국사찰을 총망라해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불교인업소록〉을 발간한 미주불교신문사가 '세계한국불교 총람' 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한다.

미주불교신문사(편집장 이종권)는 "2014년 발간을 목표로 전 세계 한국불교 사찰의 위치 및 주소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인근에서 불교인이 운영하는 각종 비즈니스까지도 스마트 폰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제작 경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축적해온 미주불교신문사는 다양한 정보를 불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고민해오다 최근 IT전문가 김도엽 씨를 발탁해 불자업소록을 겸한 세계 한국불교총람 앱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김도엽 씨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대와 UC버클리를 거쳐 마이크로소프트 실리콘밸리 연구원으로 실력있는 재원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봉사해 달라는 미주불교신문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김도엽 씨는 "제 작은 능력이 고국을 떠나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미국에 와서 필요성을 느꼈고 많은 분들도 그러시리라 믿고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제작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한국불교 총람〉 스마트폰 전용 앱은 향후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것을 전제로 첫해에는 엔트리의 이름 검색, 주소, 위치정보 서비스 등 기초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2단계, 3단계 개발을 거치며 안내메시지 공지 및 전송 등의 고급기능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개발의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이종권 미주불교신문 편집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국불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최선을 다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파리 7대학 교수 · 학생들 한국 나들이

문화사업단, 팸투어… 불교문화체험 등 '다채'

파리 7대학 한국어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불교문화체험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파리 7대학 한국어학과 안익 교수와 학생 8명은 8월 1일부터 8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초청으로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방한은 2011년 한국불교 세계화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이 당시 파리 7대학 예방하고 한국 방문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동화사, 불국사, 범어사, 해인사 등에서 사찰문화체험을 진행하며 경복궁, 첨성대, 한옥마을, 자갈치 시장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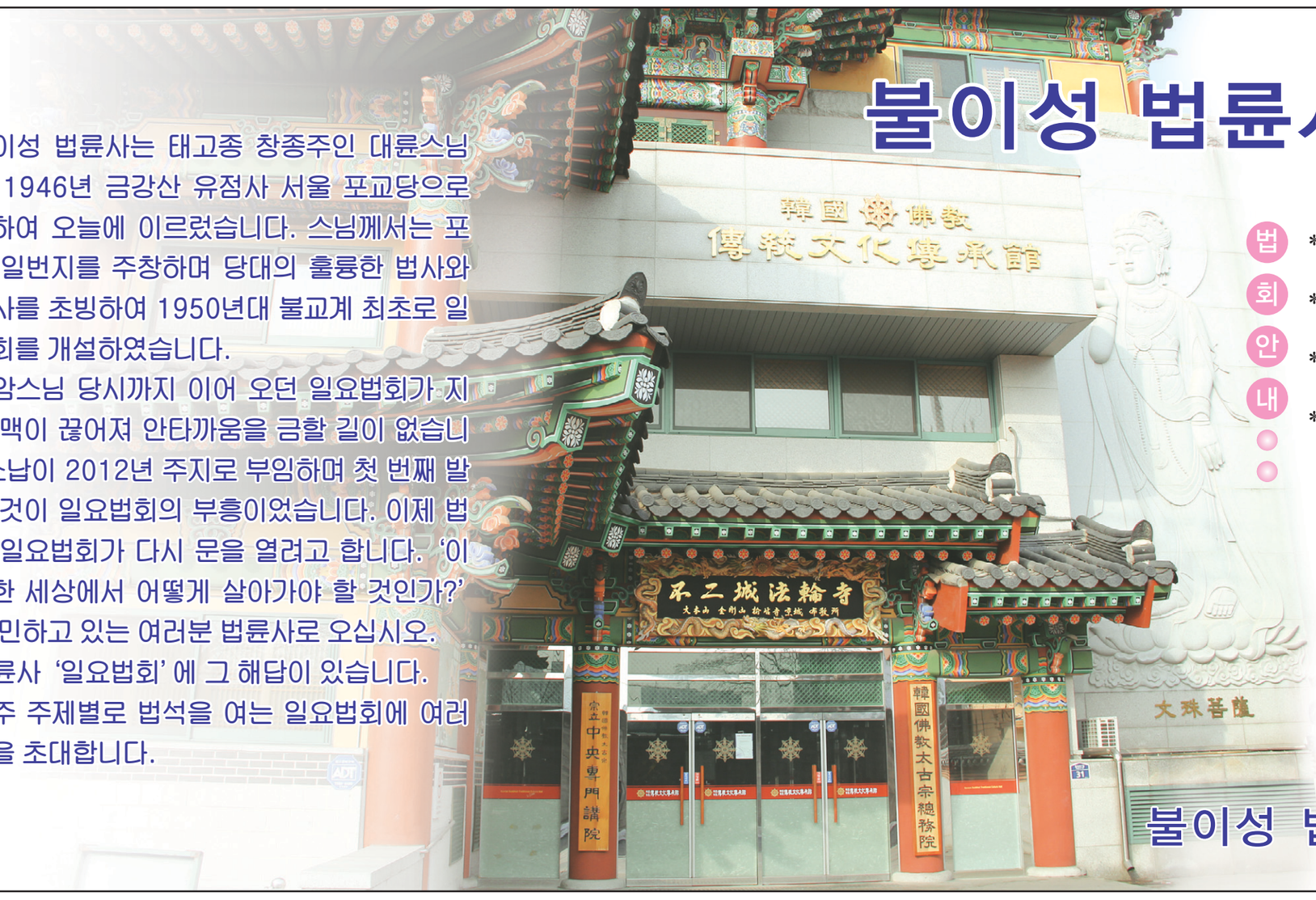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은 2011년 9월 30일 파리7대학에서 영산재 공연과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자승 스님은 빈센트 버거 총장, 야닉 한국학과장을 만나 조계종립 동국대와 파리7대학의 교류 증대, 한국학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다음주 상세보도〉



8월 1일 한국을 방문한 파리 7대학 한국어학과 학생과 교수들이 조계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이성 법륜사 일요법회

불이성 법륜사는 태고종 창종주인 대륜스님께서 1946년 금강산 유점사 서울 포교당으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스님께서는 포교의 일번지를 주창하며 당대의 훌륭한 법사와 포교사를 초빙하여 1950년대 불교계 최초로 일요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덕암스님 당시까지 이어 오던 일요법회가 지금은 맥이 끊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소납이 2012년 주지로 부임하며 첫 번째 발원한 것이 일요법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이제 법륜사 일요법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법륜사로 오십시오.

법륜사 '일요법회' 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주 주제별로 법석을 여는 일요법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법회안내
* 첫째주 : 명상기도 법회
* 둘째주 : 사경기도 법회
* 세째주 : 대다라니기도 법회
* 네째주 : 천수경 강의

◆ 대 상 : 초, 중, 고, 대, 일반인
◆ 시작일 : 9월 첫째주 일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법륜사 3층 대불보전
◆ 문 의 : 불이성 법륜사 종무소 (02-732-2710,392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도학 혜일

일 주 문



보원사지 여름영화캠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8월 2~3일 보원사지와 내포문화숲길에서 여름영화캠프를 개최했다.



한 · 일 청소년국제교류

파라미타 회장 정여 스님은 8월 2~6일 '제 8회 한 · 일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 큐슈 일대를 다녀왔다.



염불자원봉사교육 수강생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하는 '제7기 염불자원봉사자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02)723-5101



무료 법률상담 진행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복지관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02)466-3900



김포시종합복지관, 김포교육지원청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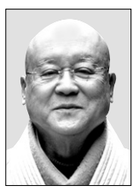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관 스님은 7월 18일 김포교육청과 청소년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우 8월 열린 법석

조성택 우리는 선우 이사장은 8월 3일 '행복을 지키는 머니 힐링'을 주제로 선우 8월 열린 법석을 개최했다.

인환 스님 '자랑스런 한국인 상' 수상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경국사 한주인 인환 스님〈사진〉이 한국일보가 최근 주관한 '2013년 대한민국 자랑스런 한국인 그랑프리' 포교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일보는 인환 스님 선정 이유로 "성찰과 참 수행자의 모습으로 국민의 존경과 감동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불교의 등불을 밝히고 민족의 스승으로 역사에 길이 새길 업적을 남기셨으므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인환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맡아 통합대장경 아카이브 구축 및 한국불교기록 유산 집대성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자신의 사재 1억 원을 한국불교학 진흥 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이영면 △경영관리실장 김인재 △국제처장 황경태 △국제처 국제학생지원센터장 원충희

"부자 함께 사회자립 가능하게 할 터"

〈父子〉

불교계 최초 부자(父子) 보호시설 위탁 운영하는 효운 정사



7월 22일 시설 건립 기공식

내년 6월 20세대 입소

지상 5층에 상담실, 휴게실 갖춰

보호 3년이내, 총 2년 연장 가능

"우리나라는 현재 이혼 등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중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 양육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자가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 현재 진각종 모자운영시설인 '달빛둥지'를 지켜 보며 부자운영시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시설 위탁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공한 부자보호시설 운영은 급변하는 시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진각부자보호시설 기공불사를 7월 22일 봉행한 진각종 밀각심인당 주교 효운 정사는 부자보호시설 건립운영은 아버지와 가족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이 사회에 더욱 폭넓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최초의 부자보호시설인 이 곳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위치한 밀각심인당내에 지상 5층 건물(지하 2층)로 지어지며, 20세대의 부자가정이 내년 6월 이후 입소할 예정이다.

부자가정이 입소하게 되면 방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 욕실 1개 등이 갖춰진 17평 정도의 공간서 생활하게 된다.

부자보호시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거실과 사무실, 상담실, 도서관, 휴게실 등을 갖추게 된다.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도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 조리사, 사무직원 등 6명 정도가 상주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보호를 통해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게 하자는 것이 사업 목적인 만큼 자녀 교육 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효운 정사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 비율이 약 22%에 이른다"면서 "저소득 부자가정의 아버지와 아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또 그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자보호시설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보호기간이 3년이내인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활지원형(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가장), 2년이내인 공동생활지원형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본생활지원형은 보호기간이 3년 이내며, 1년 미만 기간을 단위로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세대주인 아버지가 알코올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입소를 철저히 제한 시킬 것입니다. 약 2600세대의 서울시 부자가정 중 보호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20세대를 선발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기간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효운 정사는 지난 1998년 밀각심인당내 개원한 독거노인 빨래방 사업, 겨울철 소외된 이웃 김장봉사, 쌀 자비나눔 행사 등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종정협의회, 논산훈련소 위문

7월 28일, 단주 5000개, 발전기금 전달



(사)대한불교 종정협의회(회장 월인 스님,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는 7월 28일 육군 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위문 법회를 개최했다.

훈련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위문법회에는 종정협의회 소속 30개 종단 종정스님이 증명으로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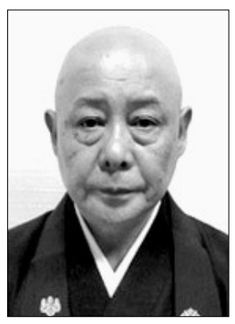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병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아들"이라며 "여러 종정스님들을 친견한 공덕으로 앞날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법가에 이어 입정이 진행됐으며 인왕 스님(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동산 스님(대선불교 조계종 초대종정), 혜봉 스님(대한불교 해동종 종정)이 각각 법문했다. 이어 종정협의회는 장병들에게 단주와 다과 5000명 분을 선물했으며 발전기금 300만원과 주지 현조 스님에게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이치노헤 스님 일본 참회비 제막

11월 26일 부산서… '신민화' 정책 참회



일본 조동종(曹洞宗) 운상사(雲祥寺 · 아오모리 현 소재) 이치노헤 쇼코 주지 스님〈사진〉과 신도 10여 명은 7월 26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서중학교 담벼락에 세워진 비석 제막식을 가졌다.

비석에는 일제 침략에 앞서 조선에 포교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일본 불교가 황국신민화 교육에 앞장선 것을 참회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치노헤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일본불교 조동종이 '심전(心田) 개발운동' 같은 황국신민화 공작에 적극 가담해 당시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한다"고 말하고 사죄 독경을 했다.

1907년 건립된 일본 조동종 부산 포교소 총천사(總泉寺)가 있던 곳이 지금의 서중학교 자리다. 당시 총천사는 9천250㎡ 땅에 지어졌고, 서울에 세워진 일본 조동종 조계사 · 박문사에 이어 일제강점기 유력 사찰 중 하나였다. 일제강점기에 조동종 사원은 북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87개에 달했고 부산에는 19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염불만일회 16차 염불정진대회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8월 6일 고성 건봉사에서 제1차 년도 염불정진대회 겸 염불만일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성식은 27년 5개월의 염불결사 입재로 2013년은 16차년도다. 올해는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안동일 염불만일회 회장은 입재식에서 "건봉사의 등공대는 최초의 염불만일결사가 탄생하여 31명이 육신등공한 곳"이라며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가 건봉사에서 처음 시작한지 오늘로 5470일을 맞이하며 염불보살의 후예임을 잊지 말고 자긍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명법 스님 대안연구공동체서 강연

8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시민 불교 강좌

대안연구공동체의 파이데이아 대학원(학장 이정우)에 불교철학 강좌가 개설된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자리한 대안연구공동체는 첫 강연으로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을 강사로 초청해 〈유마경〉 강좌를 개최한다. 15주간 계속되는 이번 강좌는 8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진행된다. 불교 경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777-0616

노덕현 기자

신사종합복지관, 가족성장 협약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이 늘픔가족성장연구소(대표 노소현)와 협약식을 진행하고 지역 내 가족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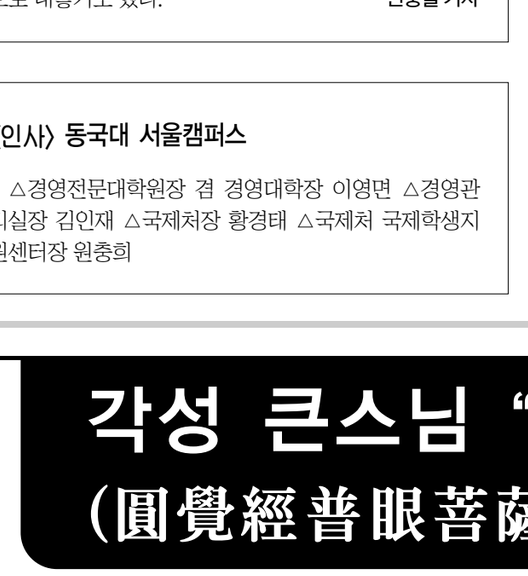
신사복지관은 '늘픔가족성장연구소'와 지난 7월 31일 협약을 체결하고, 본 복지관 2층에 위치한 치료센터의 장소를 제공하여 가족성장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늘픔가족성장연구소의 개소 준비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마을지향 복지관 만들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장 보련 스님은 "늘픔가족성장연구소의 가족성장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가족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늘픔가족성장연구소는 가족을 중심으로 심리검사, 치료, 상담, 다중지능검사, 진로탐색,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각성 큰스님 "원각경보안보살장 (圓覺經普眼菩薩章)" 고운사 특강

수행자여!
환을 여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알고저 한다면 원각경 〈보안장〉을 보라. 몸과 마음이 환이라 의보와 정보의 관이 멸하면 청정하고도 뚜렷이 밝은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나리라. 이 보안보살은 환을 여의고 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무루인연공덕으로 선근을 심으시길 발원하면서...



◐ 일 시 : 2013년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선 체험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 (₩100,000)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인원제한이 없어 특강을 신청하시는 모든 스님들께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www.gosusa.net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9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8월 1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DMZ평화순례단은 7월 26일 철원 노동당사를 출발한 뒤 통제소를 거쳐 민간인통제선 내에서 평화통일을 발원하며 순례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순례단 학생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행사에 임했다.



철원 DMZ지대를 행군하는 모습



파란 한반도티를 맞춰입은 순례단

청소년 불자들, "한반도 평화 책임지겠어요"

한반도평화대회봉행위, 정전60주년 맞아 철원서 DMZ평화순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민간인통제선 검문소를 지나자 불자 청소년들로 구성된 DMZ평화순례단은 불교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힘차게 구호를 맞추며 길을 걸었다. 발목 높이 정도로 쳐진 지뢰밭 철조망과 북을 향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순례단에 참가한 학생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긴장과 대립'의 현장을 목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한걸음 씩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비롯해 군가 등을 부르던 순례단은 점차 어느 아이들처럼 밝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만 평화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바로 '한국전쟁정전60주년한반도평화대회봉행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7월 27일)을 맞아 개최한 어린이·청소년 DMZ 평화순례에 참가한 불자 청소년들이다.

'통일과 세계평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7월 26~28일 강원도 철원 DMZ 일대에서 열린 평화 순례에서 이들은 비무장 지대 일대를 직접 걷고 병영체험 등을 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염원했다. 평화 순례에는 전국사찰에서 모인 어린이와 청소년과 불교 스카우트 대원 500여 명이 참가했다.

평화 순례는 철원 노동당사에서의 입재식을 시작으로 철원DMZ 도보 행군과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의 병영생활, 평화전망대 및 제2땅굴, 월정리역 탐방, 안보교육 및 군장비 관람, DMZ평화콘서트, 6사단 청원사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평화 순례는 섭씨 30도를 넘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미 버스 안에서 DMZ와 분단 상황 등 역사와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받은 청소년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했다. 한창 자유분방한 나이렸건만 첫날 북한 노동당사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순례단 학생들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흘러 넘쳤다. 수많은 남측 인사들을 고문했던 노동당사는 회색의 콘크리트 뼈대만이 앙상히 남아 긴장감을 더했다. 입재식에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이 끝나고 참가 청소년들은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 전법단장 성행 스님은 입재식에서 "평화통일은 민족 스스로의 지혜로만 이룰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조국의 분단 현실을 보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일꾼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사찰 어린이·청소년 500여 명 참가
DMZ행군, 평화전망대·땅굴 탐방 진행
'평화 소중함 깨달았다' 한 목소리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대신해 "최전방 지역을 순례하며 생명평화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형 6사단장은 "이 곳은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라며 "미래의 희망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더욱 더 굳건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안보수호자가 돼 달라"고 순례단을 격려했다.

이어 입재식에서 용주사 한주형(12세), 이서진(13세) 학생의 평화발원문 낭독과 함께 참가 대중은 한마음으로 생명평화를 발원했다.

입재식을 마친 순례단은 6사단 검문소를 거쳐 DMZ 지대에서 2시간 가량 평화의 행군을 진행했다. 양 옆으로 나있는 지뢰밭이 무색하게 학생들은 밝은 얼굴로 씩씩한 걸음을 이어갔다.

용주사에서 온 오민호(12세) 학생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사실을 이번 순례를 통해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군인 아저씨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원정사에서 온 김도희(10세) 학생은 "북한에서도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서로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며 "소중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절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군을 마친 아이들은 6사단 신병교육대로 발길을 옮겼다. 처음 보는 관물대 등 병영생활에 청소년들은 오히려 호기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순례단은 당초 연병장에서 캠핑을 하려했으나 해병대 캠프 사고로 인한 안전상 문제로 교육대에서 숙박이 진행됐다.

정전 60주년인 27일에는 아침예불을 통해 정전일을 기념했다. 이와 함께 평화전망대와 제2땅굴 탐방이 진행됐다. 불자인 정훈장교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아이들 답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져 나왔다.

"정전 직전까지 서로를 향해 총탄을 날리던 이 지역은 수십만명의 선열이 희생을 통해 지켜낸 곳입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백마고지, 피의 능선 등이 바로 저 곳입니다. 특히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제2 땅굴이 있는 곳에서 북한 지역은 불과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도 북한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왜 북한이 판 땅굴이 더 있지는 않나요?" "전망대 앞쪽에도 모두 그럼 지뢰밭인건가요?"

처음보는 북한의 모습에 순례단 학생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정훈교육 이후 순례단 학생들은 쌍안경을 통해 북한 초소 등을 관찰하고 전망대 교육관에서 안보교육 등을 이어갔다.

"평화 통일, 우리가 이끈다. 평화 통일, 우리가 이끈다." 순례단은 매 행사마다 구호로 '평화 통일'을 외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 땅에 총성이 멎은 그 날 이후 60년, 청소년들의 가슴에 평화가 영글고 있었다.

철원=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6일 철원 노동당사에서 진행된 입재식



27일 평화전망대에서의 정훈교육 모습



■ 순례 대표상을 받은 용주사 민권기 학생의 소감문

먼저 많은 군인아저씨들이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순례에서 DMZ 평화의 행군과 제2땅굴 견학 등을 통해 평화가 소중하며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60년 전 우리는 서로 전쟁을 치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희생 속에 우리나라가 지켜졌고, 겨우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대치 상태의 나라를 일궈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나라 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어린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포교 · 신행 소식

불교 알고, 한문도 배우고

태고종 청련사, 첫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



태고종 청련사 여름 한문학당에 참석한 학생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 태고종 청련사(주지 백우)는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제1회 청련사 여름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최했다.

한문공부와 인성교육을 위해 개최한 이번 어린이 한문학당에 참가한 학생들은 〈백유경〉 〈부모은중경〉 〈사자소학〉 등을 공부하며 한문을 익혔다. 또한 참선, 예절부터 단청시계 만들기, 사찰 숲 체험, 합장주 만들기, 발우공양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청련사 주지 백우 스님은 "한문학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이라면서 "한문학당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예의바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린이들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영어로 배우는 불교 · 인성 교육

선센터, 8월 10~11일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조계종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8월 10일부터 11일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예불과 선요가를 제외하고 모두 영어로 진행돼 영어 학습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법사는 선센터 국제차장 천조 스님이 맡았으며, 강사에는 김창민 서울시립대 교수, Ralph Baldassane 前 경희대 교수가 참가한다. 통번역 전문가를 이뤄진 간사진들도 구성돼 템플스테이 진행을 돕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8배를 비롯해 주제토론, 걷기 명상, 소금만다라, 외국인 수행자와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참가대상은 영어가 가능한 중고등학생이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0만 원이다. (02)2650-2242

신중일 기자

조계사, 미혼남녀 인연 나눔 행사

8월 17~18일 조계사서 '오색실' 템플스테이 진행

조계사(주지 도문)는 8월 17~18일 조계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칠석을 맞아 젊은 불자의 인연을 이어주는 인연 나눔 행사 '오색실'을 진행한다.

1박 2일 템플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8~36세 미혼 남녀 각 12명씩 총 24명을 대상으로 △명상과 자비관 수행을 통해 나의 좋은 점 드러내기 △함께 하는 요가 △인연 담아 김밥말기 △함께 떠나는 걷기명상 △인연을 알아차리기 위한 싸띠(sati)수행 등을 진행한다. 참가희망자는 조계사 홈페이지(www.jogyesa.kr)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이메일(spike22@naver.com)으로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조계사는 "오색실은 정근, 굳은 마음, 정진, 청정, 인욕을 상징한다. 그런 불심을 담고 있는 젊은 불자가 자신을 꼭 닮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68-8544 이나은 기자

수능 100일 앞두고 전국 사찰 기도정진

성지순례 · 철야정진 등으로 '대학 합격 발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다. 11월 7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주요사찰이 시험당일인 11월 7일까지 수능 입시 100일 기도를 일제히 시작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화계사, 국제선센터, 길상사, 도선사를 비롯해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대구 관음사 등 전국 주요 사찰과 대부분의 사찰에서 수능 입시 100일 기도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평생 단 한번 소원을 들어준다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서도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번 뿐인 소원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학부모들은 기도문에 붙인 자식의 사진을 두고, 비오듯 땀을 흘리며 108배 정진을 멈추지 않았다.

조계사(주지 도문)는 다른 사찰보다 10여 일 앞선 7월 18일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 111일 화엄성중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불자들은 기도법사 정묵 스님의 집전으로 천수경 독송, 일백사위 신중기도, 화엄성중 정근,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 독송 등을 매일 정진한다.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7일까지 국제선센터 선감 탄종 스님이 100일간 원력으로 기도를 집전하며 △발원문 배부 △서원지 봉정 △108염주 만들기 △학업성취 발원 천도재 △가피충만 성지순례(팔공산 갓바위) △학업성취 용맹정진 △수험생 격려 DAY 등을 진행한다.

화계사(주지 수암)는 8월 14~15일 갓바위와 2개 사찰을 순례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철야기도회'와 10월 24~25일 봉정암을 순례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수능시간표에 따른 집중기도 시간도 가지며, 이와 함께 11월 2일 수험생과 학부모가 하는 촛불기원법회도 봉행한다.

봉은사(주지 진화)는 8월 22일 양산 통도사 적멸보궁을 방문해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금강계단에서 탑돌이를 하며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는 '학업원만성취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몇몇 사찰에서는 입시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조계사는 지난 7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국대 입시설명회'를 열어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수시 및 정시 전형과 Dharma(다르마) 전형 등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 도리사(주지 묘장)는 7월 21일 '힐링 입시설명회'가 열어 정구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이 '취업을 대비한 대학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연구원은 자신의 수험생활에 대한 경험과 1천여개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평가를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취업을 대비한 대학 입시전략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조계사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 111일 화엄성중기도'에 동참하 불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또 대입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도리사 신도들에게 '음식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이 수험생의 건강관리와 지혜롭고 훌륭한 인성을 키우는 사찰음식의 비밀스러운 원리와 레시피도 공개했다.

이밖에 화계사는 7월 11일 대적광전에서 '2014년도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인하대학교에서 자료집 배부와 설명회를 실시했다.

각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시기도는 그 방법도 다양하다. 대부분 새벽기도, 사시기도, 저녁기도로 하루에 세 번 이루어진다. 또한 철야정진, 주말특별기도 등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입시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자와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수험생과 기도자 모두 오계를 지키는 것 △기도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수능을 마친 이후에라도 수험생이 기도처를 방문하는 것 등이다.

수능 100일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조계사 기도법사 도문 스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오로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움도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뒷받침해 주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열심히 기도해서 다 함께 이겨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나은 기자

"반딧불이처럼 참 자신도 빛나고 있어"

정곡사, 반딧불이 선체험 진행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양평군에서 참선을 하는 불자들

인간의 문명이 만든 모든 불은 끄고 반딧불을 보며 정진하는 이색 선체험이 열렸다. 양평 정곡사(주지 정곡)는 7월 26~28일 경기도 양평에서 '2013 하계수련회 텐트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통보불이(洞布不二)의 삶을 위하여' 주제법문 △참선 △성찰 부채 만들기 △반딧불이 선체험 △황벽나무체험 및 벽계구곡 걷기 명상 등에 참여했다.

정곡 스님은 "이곳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양평군에서 자랑으로 여길만한 청정지역으로, 작은 곤충이지만 자기 빛을 발하고 있는 반딧불이의 신비함은 우리에게도 있는 부처님 빛과도 같다"며 "참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한번 체험해 그 빛을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딧불이 선체험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 (031)772-0319 이나은 기자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 의약품 지원금 전달

7월 23일 전법회관서 "해외의료봉사에 써달라"

반갑다연우야 재능나눔봉사단 사랑재(단장 백동렬)는 지난 봉축 전통문화마당에서 재능보시로 얻은 수익 전액을 해외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백동렬 단장은 7월 23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금 197만원을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에 전달했다.

중앙신도회는 "백 단장이 지난 부처님 오신날 우정국로에서 열렸던 전통문화마당에서 연꽃그림을 즉석에서 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했고, 얻어진 수익 또한 사랑재를 통해 좋은 곳에 쓰고 싶어 해외의료봉사에 가장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능기부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랑재는 지난 2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인연을 맺은 회원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모임으로, (사)날마다 좋은날 반갑다 연우야의 정식 봉사단체다.



중앙신도회 이기흥 회장(가운데)과 백동렬 단장(오른쪽).

주로 기증품을 받아 경매를 통해 모여진 낙찰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102번째(2013.7.23기준) 경매가 진행중이며 360여 명의 사람들이 경매에 동참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 선착순 500명 소정의 선물 증정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기증자 확산을 위한 문화운동으로서 '생명나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희망등록하여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 방법 : 아래 신청서를 잘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기한 : 8월 31일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1-305 (우)110-170
- 팩스 : 02-734-8052
- 문의 : 02-734-8050

자르는 선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서

●는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추천인	성명 (연락처)		
●성명		법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기증형태 (중복선택가능)	□ 뇌사시 장기등 기증	□ 안구(각막)	□ 기타( )
정보수신여부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 우편물
운전면허증에 장기등희망자라는 표시를 원하십니까?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본인서명)	

보호자 동의를 구하는 신청인 구비서류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확인서류 1부),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경우(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1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인 :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또는 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귀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8월 28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어르신과 문화체험으로 세대 간 거리 좁힌다

교계 복지관 세대통합프로그램





교계 복지관에서는 세대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양복지관에서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매월 1회 복지관에 모여 음식만들기, 노래자랑 등을 진행한다(좌). 서울노인복지센터는 8월 25일까지 탑골미술관 세대통합전 '종이놀이터'를 연다(우).

노인은 예로부터 손자녀의 양육에 깊이 관여해 양육을 돕는 교사이며 문제해결자이자 전통문화 전달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변모되면서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인성적인 면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교계 복지관에서는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류를 넓혀주고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형성하고 노인은 조부모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8월 25일까지 탑골미술관 세대통합전 '종이놀이터'를 연다. 센터는 지난 5월 16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전시문화공간인 탑골미술관을 개관해 세대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종이놀이터'는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 만든 놀이 공간으로, 만3세부터 9세 어린이와 조부모 또는 부모 등 세대가 어우러진 체험활동을 통해 세대 간의 어울림과 교감의 기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전시 곳곳마다 환경·IT·예술에 대한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배움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탑골미술관 실버도슨트 할아버지·할머니가 애니메이션 '두부와 콩나물'을 통해 우리나라 전래동요를 가르쳐줘, 세대 간 자연스러운 유대 관계 형성과 문화유산의 전수자로서 어르신의 존재를 어린이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래동요의 문화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으며, 1세대로부터 3세대가 전래동요를 배움으로써 한국 전통문화의 전수가 실현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2011년부터 '1·3세대 통합프로그램 동화(同化) 통합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과 어르신 40여 명은 매월 1회 복지관에 모여 팀별로 문화체험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발적인 회의를 거쳐 전통놀이, 야외나들이, 음식만들기, 노래자랑 등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친목을 쌓고 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배울 점이 많고, 삶의 선배로서 지혜가 많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아라(자양고 3) 학생은 "활동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다. 할머니들과 말이 안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말 해 보니 잘 통했다. 할머니께서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할머니처럼 이야기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윤광자(73) 할머니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 친손자에게 가르치듯이 조언을 해준다. 하지만 바른 말 할 땐 하고, 숙일 땐 숙이는 편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배우고 서로 대화하곤 한다"고 말했다.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1·3세대 통합결연프로그램인 '한가족 사랑잇기-동화(同化)'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발대식에서 가족봉사단(학생·학부모)은 독거어르신과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말벗도우미, 문화체험 등을 하고 있다.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세대 간 결연으로 독거어르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우울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가족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세대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청소년문제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는 지역 내 가족과 저소득 독거노인이 결연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족연계 프로그램인 '가족애(愛)탄생'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애(愛)탄생 프로그램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에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이 가족봉사단을 이뤄 지역 내 재가 노인과 일대일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족봉사단과 어르신들은 오는 11월까지 총 8개월간 천연염색 체험, 꽃박람회 나들이 등 관내외에서 정기적으로 문화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한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정곡)은 '1·3세대 통합프로그램 NIE'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어르신 강사를 모집해 지역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및 복지관 방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문활용교육(NIE)을 열고 있다.

서구노인복지관 관계자는 "NIE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는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근절하자"

1366경북센터, 캠페인 실시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와 김천시는 7월 25일 김천시내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캠페인을 펼쳤다.

피서철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성폭력·가정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가 나섰다.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센터장 진원)는 7월 26일 김천시내에서 경상북도와 김천시와 함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을 위한 안내포스터와 스티커를 유리문에 부착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경상북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김천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주최하고 김천시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김천시청, 김천경찰서,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김천성폭력상담소, 새김천성폭력상담소,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관련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하여 1년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사회복지기관,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북센터에는 베트남어, 중국어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bwomen1366.org)에서도 사이버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나은 기자**

광진노인복지관, 어르신 위한 마음챙김

'나는 20대 스타일' 진행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노년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MBS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8회기에 걸쳐 어르신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마음챙김 '나는 20대 스타일'을 진행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노년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MBSR(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어르신 마음챙김명상 '나는 20대 스타일'은 전문강사에 의해 서울 시내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바디스캔 △호흡 알아차리기 △마음챙김명상 △마음챙김요가 △마음챙김대화 △자애명상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년기에 겪는 외로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해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높은 출석율과 관심을 보였으며 수업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마음챙김명상을 실시해 삶의 변화를 추구했다"며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광진노인전문상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466-6248 **이나은 기자**

복지 단신

흑서기 독거노인 안전점검위한 간담회



정관 스님(오른쪽 두번째)와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왼쪽에서 세번째)이 이화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7월 26일 관내에서 '흑서기 독거노인 건강 및 안전 대책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정관 스님을 비롯해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정철호 종로구청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흑서기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가 이뤄졌다. 또한 이후에는 현재 무더위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이화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현장의견을 들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적극적인 교육·홍보에 나섰다.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6만2000개), 노인복지관(300개)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더위 행동 요령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진각복지재단, 제2회 서울문화체험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 정사)은 7월 24~26일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재단 산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서울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복지재단은 산하 지역아동센터 66명과 국립서울과학관, 대학로, 잡월드,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일대에서 공연관람 및 물놀이, 직업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했다. (02)942-0144 **이나은 기자**

청담복지관, '삼계탕 DAY' 진행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학)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진행했다.

복지관은 지역 내 기업인 ㈜코리아센터닷컴의 후원으로 임직원 38명과 함께 300여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보시했다. (02)806-1377 **이나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신문,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20일

5. 문 의 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율종)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인간관계의 조화는 주고 받는 ‘의무’ 속에”

불광사 일요 정기 법회

조은수(서울대 철학과 교수)

불교는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수평선, 열반을 향해 가는 종교다. 7월 28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일요정기법회에서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은수 교수는 〈시갈로바다 수타경〉을 예로 들며 부처님이 언급한 인간관계에서의 다중적 의무에 대해 강의했다. 어느 한 쪽에게 주어진 일방적 의무가 아닌 상호 호혜적 원리가 깃든 '부처님의 관계론'에서 불교와 현재 삶과의 관련성을 되새겨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조은수 교수는 …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과정 수료 후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음. 미국 미시간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소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기록문화유산위원회 출판소위원회 위원장 역임. ‘원효에 있어서 진리의 존재론적 지위’ ‘통불교 담론을 통해 본 한국불교사 인식’ 등의 논문을 발표.

재가자들을 위한 불교

불교를 처음 접한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출가자의 종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재가자들을 위해 어떠한 말씀도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선입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전이 〈시갈로바다 수타〉(Sigalovada Sutta)입니다. 〈잡아함경〉안에 실려 있고 〈선생자경〉(善生子經)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은 재가자들을 위한 율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가정과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잘 설명돼 있습니다.

그 경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머물 당시 거리로 탁발을 나갑니다. 거기서 시갈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갈로 아버지는 인도에서 제사장이 속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이었습니다. 시갈로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으로 아침마다 목욕재계하고 동서남북과 하늘, 땅 육방을 향해 절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시갈로는 절을 하던 중이었죠. 부처님이 시갈로를 보고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갈로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여섯 방위의 신이 자신에게 복을 내려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려는 그대의 효성은 갸륵하다. 그러나 유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맹목적으로 절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대의 아버지도 그대가 길거리에서 아무 의미없이 절하길 바라지 않으셨을 것이다. 동쪽에 대한 절은 그대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어야 하고, 남쪽은 스승을 생각하며, 서쪽은 아내에 대한 헌신과 성실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한다. 북쪽은 그대의 친구와 친척, 이웃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어야 하고 하늘에 대한 절은 스님과 수행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여야 하며, 땅에 대한 절은 하인에게 정당한 대접을 해주는 공정성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여섯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의무

이 여섯 가지는 단순히 방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겪는 여섯 가지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사이, 스님과 신도, 고용자와 고용인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은 크게 가족과 사회로 나뉘는 이 관계 안에 다중적으로 소속되기 마련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각각의 의무와 책무가 있죠. 그러나 한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호혜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걸 부처님은 얘기하죠. 각각의 관계에 대해 부처님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우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죠. 부모는 자식에게 다섯 가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선행하도록 격려하고 직업에 성실하도록 훈련시키고 적당한 혼처를 마련해 때가 되면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죠. 부모가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를 봉양하고 집안에서 행해야할 임무를 대신하고, 가족의 전통을 이으면서 가족유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외에도 가족 간 관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 간 평화로움을 위해서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만일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한다고도 했죠.

낳아준 분이 부모라면 길러준 분은 스승입니다. 역시 제자가 해야 할 일을 다섯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로 스승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스승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시봉을 잘 해야 하며, 개인적 용무를 도와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스승이 첫째로 할 일은 제자들에게 최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제자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파악했는지 잘 챙겨봐야 하고, 인문학과 자연학을 다 가르치며 다른 학자에게 학생들을 소개해줘 앎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줘야한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부부관계를 살펴봅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갖추고 멸시하지 않고 정직해야하고,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본분을 다하고 집안사람들에게 친절해야하고 정조를 지키고 재산 간수를 잘하며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결혼이란 건 일종의 파트너십입니다. 서로의 장점, 특성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뜻이죠. 가족관계에서 가장 핵이 되는 것이 내외관계인데, 조화롭고 성공한 결혼이야말로 가족 전체의 안정, 평화를 가져온다고 부처님은 얘기했습니다. 내외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법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는 내외관계가 튼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충돌할 때는 자식이 우선이 되니까요. 부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식을 키우는 거고, 부부간 연대가 강해야 자식도 잘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친구 사이에 서로 진실해야 하며, 관대하고 예의를 갖춰 대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를 보호해주고 재산을 허술하게 다루면 그런 행동을 막아줘야 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의지처를 제공해야한다고도 했습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는 버리지 말아야 하고, 친구의 가족까지 존중해야한다고도 했죠.

선생경, 가족·사회 다중적 의무 설해
부처님은 먼저 듣고 설법 ‘소통·자비’
불자들도 부처님 태도 본 받아야

오늘날 노사관계로 치환해 살펴볼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맡겨야 하고 정당한 보수를 제공함은 물론 보너스 같은 특별 혜택도 적절히 제공해야한다 했습니다. 의료 복지와 휴가까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용인은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고용주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서로가 관대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면 세상이 움직이는 마차와 같이 부드럽게 잘 굴러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파타자라’ 이야기서 본 ‘무상’

불교는 현대적인 종교입니다. 아직도 다른 종교에서는 여성 성직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만 불교는 부처님 생존 당시에 이미 비구니 스님 교단이 생겼습니다. 또한 불교 경전에는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시 파타자라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위성의 부잣집 딸인 파타자라는 미모가 출중해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탑에 숨겨두고 길렀습니다. 그러나 파타자라는 문지기와 사랑에 빠져 부모의 눈을 피해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삶이 쉽지만은 않아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다시 친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남편, 첫째 아이와 함께였죠. 그 길에서 폭우를 만나게 되는데, 남편은 하룻밤 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하러 나섰다가 뱀에 물려 죽고 맙니다. 파타자라는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혼자서 아기를 낳죠. 남편이 죽은 걸 알게 된 파타자라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밤새 불어난 강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강을 건널 수 없어서 먼저 갓난아기를 강 저편에 데려다 놓고 나머지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다시 강을 건넙니다. 그때 독수리가 날아와 갓난아기를 낚아채고 기겁한 파타자라는 소리를 지르다 강을 건너던 첫째 아이도 잃게 됩니다. 지친 채 고향에 돌아온 파타자라는 폭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정신을 놓게 됩니다. 옷을 벗고 길을 헤매는 미친 여자가 된 거죠. 이를 본 부처님이 파타자라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파타자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윽고 부처님은 그녀에게 ‘모든 것은 언젠가 멸하게 돼 있다’며 무상에 대해 이야기 해 주죠. 파타자라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과를 얻게 됩니다. 미친 여자였으나 부처님의 자비 덕분에 소생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생에 불행이 왔지만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 2600년 전 말이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현대적인 말이지요. 현재 삶과 관련성을 가지는 게 참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숙련된 스승

부처님의 설법방식은 질문과 대화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부처님은 시갈로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의 문제가 뭔지 듣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게 아니라 듣는 이의 문제에서 이야기의 단초를 마련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처님은 경청하고 그리고 설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갈로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합리적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듯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놀랐다고 전합니다.

이야기가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소통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했다 하더라도 소통하지 못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불교가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부처님은 45년간 많은 곳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설법을 위한 여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자비심이 아니었을까요. 부처님 스스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스승이라도 제자한테 품어야 할 자비심이 있지 않겠는가라고요. 부처님 자신도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종 순간에도 제자가 아닌 자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했지요. 이런 자비심이 부처님을 지칠 줄 모르는 숙련된 스승으로 만들어줬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현대에도 살아있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게 불교를 전할 때 부처님의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여름맞아 불교학계 학술서 대거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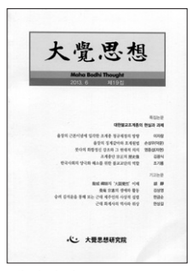
불교학술서 6종 9권


인문한국불교총서(1권)


금강학술총서(14~17권)


전법학연구


정토학연구


대각사상


불교학연구

여름을 맞아 불교학계에서 그동안 연구 성과를 모은 다양한 학술서를 펴냈다.

먼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인문한국불교총서 1권인 〈테마 한국불교1〉을 발간했다. 인문한국불교총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이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 불교학의 문화확장담론'을 주제로 10년간 진행하는 사업의 첫 성과로 매년 나올 예정이다.

총 90개의 테마로 사유와 가치, 종교와 국가, 문화와 교류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게 된다.

먼저 〈테마 한국불교1〉에 실린 주제는 △유식(唯識, 박인석) △충의(忠義, 김호귀) △하늘(天,김영진) △제정일치(祭政一致, 이자랑) △원력(願力, 고승학) △사전(寺田, 박광연) △자장(慈藏, 정영식) △변체한문(變體漢文, 김기종) △연등회 · 팔관회(燃燈會 · 八關會, 이종수) 등이다.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향후 10년간 연구 실적이 이런 개설용 총서 시리즈로 발간되면 보다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체상을 폭넓게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불교경전과 논서들을 역주한 금강학술총서 4권(14~17권)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에 펴낸 금강학술총서는 〈대반열반경집해여래성품 역주〉 〈원측 해심밀경소 무자성상품 종성론 부분 역주〉 〈불성론〉 〈옥 로댄쎄랍의 보성론요의 여래장품' 〉 등이다.

하유진 금강대 HK연구교수가 역주한 〈대반열반경집해 여래성품 역주〉는 〈열반경〉에 대한 남조시대 열반사(涅槃師)들의 주석 모음집이며 김성철 금강대 HK교수의 〈불성론〉은 세친보살의 저작을 역경사인 진제 스님이 번역한 논서다. 차상엽 금강대 HK교수의 〈옥 로댄쎄랍의 보성론요의 여래장품〉은 티베트 최초의 〈보성론〉 주석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전법학연구〉 제4호를 발간했다. 이 호에는 △초기 대승행자들의 전법정신과 전법론(안성두)

장기 프로젝트 첫 성과 비롯
불교교단 역할 등 연구 눈길

△금강경에 나타난 전법정신과 전법론(이영진) △전법의 관점에서 본 법화경(이병욱) △화엄경에 나타난 전법론(석길암) △중앙아시아의 전법사들과 전법행(한지연) 등 대승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을 다룬 논문 5편이 실렸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재와 내용(신선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 서술 체재와 내용(황인규) △고등학교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 서술 체재와 내용(서인원) 등 역사교과서의 불교서문 문제를 다룬 논문 3편이 실려 눈길을 끈다.

이밖에 광덕 스님의 전법행을 조명한 논문으로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조계종(김광식) △광덕 스님의 대학생 전법과 대학생불교연합회(한상길) △근대 찬불가 작가의 계보와 광덕선사 찬불가의 문학적 형상(김상일) △광덕 스님의 법문과 저술에 나타난 문학성(정천구) 등 4편도 수록됐다.

한국정토학회(학회장 성운)가 최근 펴낸 〈정토학연구〉 제19집은 '보현보살 사상과 사회복지'를 특집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보현보살 사상과 한국 아미산 장승신앙의 습합(보광 스님) △'보현행원품'에 입각한 의례 실행 방법 연구(신규탁) △균여가 가리키는 달: '보현십원가'의 비평적 해석(김종진) △보현사상과 아동복지(황옥자) △한국불교와 사회복지(성운 스님) 등 논문이 실렸다.

기고논문으로는 △회감의 정토왕생에 대한 이익과 난제의 입증(법상 스님) △'원각경'의 원각묘심과 돈오점수론에 관한 연구(지은 스님) △'금강삼매경'의 '무상법품'에 나타난 선론의 고찰(김호귀) △불교의학과 사상의학의 체질적 양생론 연구(양승규) 등 논문이 실렸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대각사상〉 제19집을 펴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현실과 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19집에는 △율장의 근본이념에 입각한 조계종 청규제정의 방향(이자랑) △율장의 징계갈마와 호계원법(덕문 스님) △붓다의 화합정신 강조와 그 현대적 의의(자현 스님)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김광식) △한국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교단의 역할(조기룡) 등 논문이 실렸다.

기고논문으로는 △용성선사의 '대원각성(大圓覺性) 이해(호정 스님) △만암 종헌의 생애와 활동(김상영) △승려 김석윤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한금순) △근대 화계사의 역사와 위상(한상길) 등 논문이 게재돼 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불교학연구' 제35집을 펴냈다. 투고 논문으로 구성된 이번 논문집에는 △'해심밀경소' 티베트어역의 사료적 가치(장규언) △작용즉성 비판으로서의 무심(마해륜) △원효와 화쟁 논법과 쟁론 치유(박태원) △정서적 변화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박성식 · 이필원) △팔관회의 현대적 계승과 복원(구미래) △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현대사회(자현 스님) 등 논문 6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형유산 정책집행 국립무형유산원 준공

문화재청, 31일 전주에서 준공식 및 CI 선포식



무형유산의 보존 · 전승 · 교류 등을 담당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준공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31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현장에서 준공식과 함께 CI를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06년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8년 동안 총사업비 759억원이 투입됐다. 대지 5만 9930㎡, 연면적 2만 9615㎡,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공연, 전시아카이브, 교육, 국제교류 공간 등을 갖췄다. 무형유산원은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경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준공되는 시설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과제와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무형유산보호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무형유산원 CI는 무형유산을 '어울림'으로 형상화해 보존 · 전승을 위한 세대 간의 소통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동아시아 불교학 네트워크 추진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국립대와 협약

동국대가 중국 베이징대, 일본 도쿄대, 대만 국립대 등 동아시아 명문대학들과 함께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동국대는 매년 불교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동으로 동아시아 불교영문 저널을 발간하고 연구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최근 "동아시아 명문 대학들과 불교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첫 사업으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HK연구단은 2012년부터 베이징대학 철학과, 도쿄대학 인도철학과, 대만국립대학 불교연구센터 등과 학술교류 사업을 논의해왔다. 2월 중 김종욱 HK연구단장이 베이징대와 도쿄대 등을 방문하며 2014년 5월부터 불교 주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동아시아 국제불교학술대회는 첫 대회를 동국대가 주관하며 이후 각 대학이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는 동아시아불교와 관련된 사상, 역사, 문화, 인물, 의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영문저널 공동 발간도 추진한다. 4개 대학이 공동으로 국제학술지 A급인 A&HCI 등재 영문저널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인도불교와 티베트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계 불교학의 흐름을 동아시아불교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고암 스님 열반25주기 세미나 8월 18일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조계종 종정을 지낸 고암스님의 열반 25주기를 맞아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고암문도회는 고암 스님 열반 25주기를 맞아 8월 18일 오후 1시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용성조사와 고암대종사의 생애와 전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각사상연구원장 보광 스님과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동국대 교수 진월 스님,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겸임교수 성원 스님 등이 백용성 스님과 고암 스님과의 인연, 고암 스님의 생애와 업적, 선사상 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해인사 교수사 종묵 스님, 현석 스님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참석자들이 함께 하는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무경자수 선사 저서 3권 한글본 출간

〈무경집〉 〈무경실중어록〉 〈불조진심선격초〉 등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한국불교전서〉 역주사업 결과를 세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세 권은 조선 중기 무경자수(1665~1737) 선사의 시문집인 〈무경집〉, 법어와 게송을 엮은 〈무경실중어록〉, 〈불조선격〉의 초록인 〈불조진심선격초〉의 교감 · 해제본이다.

〈무경집〉은 유 · 불 · 선의 본질과 관계성에 대한 학문적 견해를 논의한 논설이 주목되는 시문집이다. 〈무경실중어록〉은 기존 선어록 양식과 성격을 유지하면서 선종의 주요 논제와 화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불조진심선격초〉는 불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사상을 회통하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선종 종지를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설명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硏, '광해군과 인조' 세미나

8월 10일,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동국대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8월 10일 오후 1시 30분 남양주 봉인사 지장전에서 '광해군과 인조 시대의 재인식'을 주제로 제5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집중세미나에는 △계승범 서강대 교수의 '광해군의 대내 정책'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인조의 대내외 정책' △이철헌 동국대 갈등치유연 전임연구원의 '청허계의 선사상과 법통 인식'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부휴계의 선사상과 법통 인식'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은 장지연 대전대 교수, 이성운 동국대 외래교수, 허태구(서울대 규장각 연구교수), 계미향(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최동순(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서은희(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변희욱(서울대 철학과 외래교수), 정성우(한국선리연구원 상임연구원) 등 학자가 맡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반가사유상 국외 반출 '불허'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하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뉴욕 전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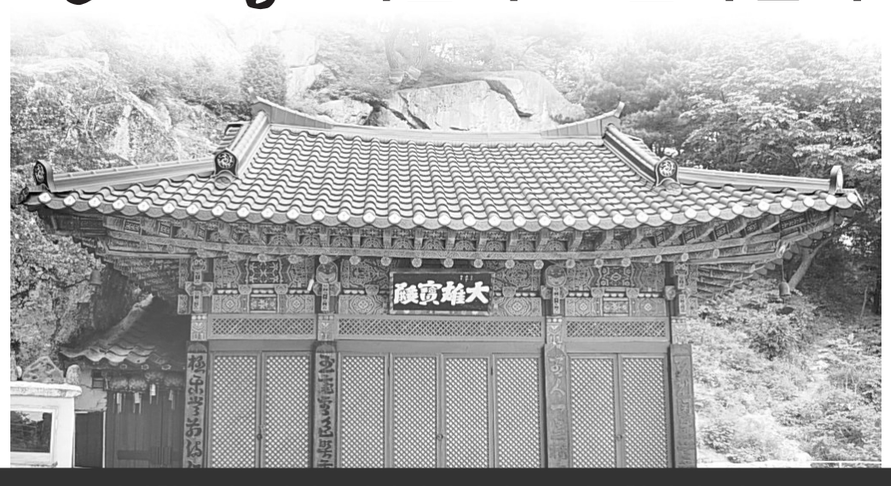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7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한 문화재 21건 26점 가운데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건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국보 8건 9점, 보물 10건 14점)만을 뉴욕에서 전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욕 전시를 위해 국외 반출이 금지된 국보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비롯해 국보 제91호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국보 제195호 토우장식 장경호 등 3점이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입장은 훼손될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0월 29일부터 2014년 2월 23일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황금의 나라, 신라'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한바 있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전주시 종교관광 정책, 종교편향 파문

천주교 380억, 개신교 125억…불교는 순례길 정비만
지역 불교계 반대추진위 구성, 반대 활동 돌입 예고

전주시(시장 송하진)가 종교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중 기독교계에만 예산을 배정하는 등 종교편향 정책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7월 25일 '전주시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천주교 '평화의 전당' 건립에 380억원, 개신교 '근대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12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계획 중 불교와 원불교는 순례길 정비 사업에만 포함됐다.

이런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대불청, 대불련, 전북불교시민연대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신행단체들은 7월 31일 전북불교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불교단체는 이날 '전주시 종교관광 활성화 계획 반대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 및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불자는 "이웃종교의 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매우 조심스럽지만 정책이 이대로 집행되면 불교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전주시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후백제 전주의 비보사찰로 창건된 사고사(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진북사)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천년 전주의 비상이 아니라 백년 전주로의 나락이다"고 전주시의 정책을 비꼬았다.

조영호 전주시 관광마케팅 팀장은 "불교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안은 이미 각 종교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 정리한 것"고 말했다.

전주시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전주시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도교, 유교 등 6대 종교의 성지와 문화 등을 묶어 전주를 종교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천주교의 치명자산성지·전동성당과 개신교의 서문교회·예수병원·신흥학교, 불교의 남고사·동고사·정혜사·승암사, 원불교의 교동교당, 천도교의 동학혁명기념관·완산공원, 유교의 전주향교 등 6대 종교의 종교자원과 역사를 바탕으로 종교관광지가 조성된다.

2011년 확정된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12~16년)의 주요핵심사업으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5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문화관광거점 육성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천주교 '치명자산 종교명소화사업'을 위해 승암산(치명자산) 일대 56,093㎡(16,968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380억 원(국비 190억원, 지방비 95억원, 민자 95억원)을 들여 '세계평화의 전당'을 건립한다.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에는 평화랜드도 조성돼 시복시성에 맞춰 예상되고 있는 교황의 방한시 전주 방문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 열린 2012 세계순례대회. 당시에도 순례길에 불교성지는 4곳만 포함돼 구색 맞추기란 지적이 있었다.



근대 선교역사기념관 부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구상도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수병원 어린이집 인근 1,800㎡의 부지에 연면적 4,400㎡ 지하1층, 지상4층 구모로 총 125억 원(국비 62억 5000만 원, 지방비 민자 62억 5000만 원)을 지하 1층, 지상 4층, 총 면적 4400㎡의 '근대 선교역사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천도교 동학혁명기념관 역사문화 자원화 사업에 13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 민자 1억원)을 투자해 한옥형식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교의 남고사 동고사 정혜사와 원불교의 교동성당, 유교의 전주향교의 순례길 정비사업은 순례길 정비사업만 언급되어 있다.

전주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 16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명상 힐링공간 광주에 마련

자비명상 7월 19일 광주지부 개설



무진 스님(가운데)이 현판식에서 밝게 웃고있다.

불교적 명상을 통한 힐링공간이 광주에 마련됐다.

(사)자비명상(대표 마가)은 7월 19일 광주 동구 소태동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에 '자비명상 광주광역시지부'를 개설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자비명상 지도자, 광주불교 교육원 동문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비명상은 자신과 타인의 긍정적인 요소를 가장 빨리 발견하는 방편으로 자신에 대한 자비로움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마음과 경험을 풀어냄으로써 '소중한 나'를 찾아하는 길"이라며 "자비명상을 통해 자기긍정과 자신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모든 이들에게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광주지부장으로 임명된 무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비명상을 통해 나와 남이 함께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비명상 광주지부는 향후 지역민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나눠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호국 금강사 신축 기공식

광주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군법당 호국 금강사는 8월 1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각 군법당 주지와 비행단 단장 홍재기 준장, 김응례 전 공군참모총장 등 신도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축 기공식을 봉행했다.

새로운 신축 법당은 광산구 황룡동 1번지에 3,800㎡의 부지에 건축면적 757㎡의 넓이로 대웅전 1동과 생활동 2동이 건설되며, 총공사비는 23억원을 투자된다.

법당에는 211㎡(64평)의 기도공간과 방송실, 창고, 방풍실이 설치되며, 생활동에는 침실, 다실, 식당, 다용도실, 북카페, 총무실, 직감실, 어린이방, 식당 등 신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배분되어 건축된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공군병사와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건설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군종교구를 비롯한 많은 대중들이 참여해 성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호국 금강사는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4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다.

한편, 공군 제1전토비행단은 1949년 10월 1일 공군 창군과 함께 여의도에서 창설된 최초의 비행단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박물관 여름 박물관 이야기 개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여름방학 기간에 어린이·청소년들의 전통가옥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름! 박물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여름! 박물관 이야기 -옛 사람이 살던 집-'은 우리의 전통 가옥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전통문화에서 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체험교육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8월 7~28일 매주 수요일 국립광주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진행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 가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분야별 연수교육 개최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7월 28일 전북불교회관 강의실에서 전북지역단 분야별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김진수 전 전북지역단장의 지역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에 이어 어린이 청소년팀(팀장 정현웅), 홍보전략팀(팀장 백덕기)의 분야별 사례발표에 이어 주정기 단장의 각 팀에 대한 활동평가가 이어졌다.

강석춘 사무국장은 "분야별 연수교육을 통해 포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포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참좋은우리절, 담마토크 진행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7월 28일 '대중이 대중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담마(法談)토크를 개최했다. 담마토크는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나 신행생활 중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스님들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쌍방향 형식의 상담코너다.

담마토크에는 조계종 청정승가 대중결사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성원 스님(거제 금강사), 동출 스님(솔바람 대표),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마가 스님(자비명상 대표) 등이 나섰다. 한편 참좋은 우리절 신도들은 청정승가 대중결사 스님들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울릉도는 독도아리랑으로 '후끈'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7월 29일~31일 열려

2013년 여름 울릉도는 회당문화축제로 달아올랐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정사)이 개종조인 회당대종사의 탄생을 기념한 '독도 아리랑, 2013회당문화축제'를 열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회당문화축제는 7월 29일~31일 3일간 울릉도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피날레인 7월 31일 개최된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는 통리원장 회정정사, 최수일 울릉군수, 최변호 군의회의장, 박도영 경찰서장, 김칠복 울릉교육장, 문화체육관광부 이병국 종무관 외 대중 2,000여 명이 참석 회당 대종사의 위업과 독도사랑의 의미를 함께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대중문화를 접할 수 없는 울릉도에 대중문화를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리고 싶은 뜻에서 시작해 어느덧 13회째를 맞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문화관광축제, 국민화합과 나라사랑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행복한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울릉도는 독도와 더불어 민족의 자주와 평화에 대한 역사적 화두가 자리하는 곳이다. 13회째를 맞는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 지역민의 화합과 어울림의 축제로 시작해 어느덧 국민들에게 애국의 공명을 알리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회당대종사의 탄생을 기념한 진각종 '독도 아리랑, 2013회당문화축제'가 7월 29일~31일 울릉도 도동항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사부대중 2000명 참여 '성황'
지역민 화합과 어울림의 장

이날 콘서트에는 여성 걸그룹 비피팝, 크라잉넛, 동물원, 슈퍼스타K 이보경 등이 참여했고 울릉경비대 특공무술시범, 샌드에니메이션 등이 선보였다.

가족과 함께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길희영씨(27)는 "여행 중에 축제소식을 듣고 콘서트에 참가하게 됐다"며 "즐거운 공연과 도동항의 절경이 어우러져 울릉도의 여름밤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서보인 씨는 "종단의 초청으로 처음 만나게 된 회당문화축제는 2013년 여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며 "불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 최고의 문화축제라는 것이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로 열 번째 봉사를 왔다는 진각종 봉사자 강봉좌 씨는 "섬에 머무는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땀도 너무 흘리고 때론 지역민들과 부딪히고, 정말 힘든 일정이었다. 하지만 상점 주인들이 물 한 잔 먹고가라며 다독여 주셨다. 또 행사 동안 행복해하는 지역민과 참가자들을 볼 때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통리원장 회정정사 및 참관단 일행은 7월 30일 개종조인 회당대종사의 탄생지인 금강원을 참배하고 대종사의 위업을 기리는 법회를 개최했다.

울릉도=박경수 부산지사장

심신의 평화 전하는 기도도량 서원

울산 능엄선사 7월 28일 개원 법회

능엄주 기도도량인 능엄선사(주지 지철스님)가 7월 28일 개원 및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울산 중구 성안동에 개원한 능엄선사는 총면적 231㎡로 법당, 공양간, 사무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능엄선사는 개원을 시작으로 울산지역의 대표적 능엄주 기도로 전법에 매진할 것이다. 주지 지철 스님은 "능엄주는 가장 긴 주문이며 그 원력 또한 수승한 진언"이라며 "스트레스와 번다한 생각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심신의 평화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법인 능엄주 기도를 울산시민들에 포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개원 취지를 전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대구 신광사 종운 스님, 울산사암연합회장 황상 스님, 지장 정사, 주지 현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능엄주 기도도량 능엄선사가 7월 28일 개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고운사 '신붓다의 조건' 주목

종교 초월한 지역 학생 여름수련

경북지역 중고등학생 30명이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 선체험관에서 '신붓다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종교를 초월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108배 발우공양 사찰예절 명상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운문사 여름불교학교 장면

지도법사 도승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모인 학생들이 동참해 마음을 닦는 법을 체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날 스님은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니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따른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 건강과 장수 네 가지 복이 더욱 증장된다"며 법문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육바라밀 체험으로 불법 익혀

운문사 제 35회 여름불교학교 7월 26~28일

제35회 운문사 여름불교학교가 7월 26일~28일 운문사 일대에서 열렸다. 초등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여름불교학교는 발우공양 예불 및 108배 걷기명상, 육바라밀 체험 등을 통해 2박 3일 동안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운사 '신붓다의 조건'

여름불교학교장 일진 스님(운문사 주지)은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운문사 여름학교에 온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어린이들이 육바라밀의 체험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자"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어린인들은 불교문화체험 이외도 물놀이 촛불의식 및 캠프파이어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일본 사찰경관 흉내내서야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는 한 뿌리에서 피어난 서로 다른 꽃이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그곳의 고유한 문화와 전파된 본래의 불교문화가 혼합되어 새로운 불교문화를 만들어낸다. 특히 불교문화를 3차원적으로 해석한 사찰의 조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사찰은 불교가 전래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국의 사찰을 원형으로 삼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국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고유한 사찰의 형식과 경관을 보이게 된다. 중국의 사찰이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중층의 구조를 가진다면, 한국의 사찰은 산지로 옮겨가면서부터 중국과 같은 건물 중심의 구조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일본의 사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중심의 사찰 구조로 정착된다.

우리나라의 산지사찰에서 정원의 존재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로부터 고려시대의 송광사, 조선시대의 봉선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온다. 단지 일본의 사찰과 같이 정원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일제강점기에 몇몇 사찰이 일본사찰의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못의 형태나 도수로의 형태를 흉내 낸 사례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근래에도 일본사찰의 고산수양식의 정원과 유사한 정원을 만든 사찰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그 작품이 스님의 창작의지에 따라 만들어낸 독창적 작품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견 일본풍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일본사찰에서는 선사상이 유입되면서부터 고산수양식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정원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정원은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성을 가진 훌륭한 정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고산수양식의 정원이 일본성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찰은 일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정원 또한 일본에 건너간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기술을 시원으로 한다. 이렇게 선진적 정원문화를 가진 우리가 일본사찰에 만들어진 작품을 흉내 낸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사찰이 고유하게 이루어낸 사찰경관의 진정성을 지켜내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일본사찰의 고산수정원에 만들어진 조형물과 유사성을 가지는 작품. 대구광역시 ㅇ사찰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록과 카렌다 샘플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연꽃향기
구도자의 길
천진동자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2월. 중대사자암)
(3월. 통도사)
(4월. 광덕사)
(5월. 보탑사)
(7월. 송광사)
(8월. 홍련암)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법음이 깃든 산사(1월. 정수사)
(10월. 신륵사)
(11월. 용문사)
(12월. 불국사)



제천 정방사는 해발고도 1,016m의 금수산 자락 신성봉 능선에 위치한 사찰로 662년 창건됐다. 보은 법주사 말사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산방사' 로 소개돼 있다. 1825년 지금의 불당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법당은 12칸, 요사는 5칸 규모다.

산능선 구름바다 속에도 관음의 염원이…

숲길이 아름다운 사찰 2 - 제천 정방사

무더위가 마음까지 답답하게 하는 한여름이 되면 더위를 핑계 삼아 계곡으로 떠나고 싶어진다. 신록이 푸름을 자랑하는 자연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는 활기가 넘친다. 천년의 숲 속에 자리한 아름다운 사찰은 찾는 이들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기에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게 된다.

제천 청풍호가 내려다보이는 금수산 자락의 정방사(주지 상인)는 무더위에 지친 이들이 찾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정방사로 향하는 길은 자드락길이라 불린다. 자드락길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을 칭하는 순 우리말이다.

청풍대교 직전에 충주 ES리조트를 지나면 정방사로 가는 좁은 산길로 들어선다. 옆으로 나있는 계곡이 바로 얼음골로 유명한 능강계곡이다. 정방사로 향하는 산길은 한낮에도 나무들이 우거져 시원함이 느껴진다. 맞은편에서 차라도 오면 피하기 힘든 외길이지만 피하는 장소가 한군데씩 있어 다행이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서늘해 왜 얼음골이란 이름이 붙여졌는지 이해가 가는 길이다. 시간이 많다면 천천히 걸어도 좋은 별스럽지 않은 산길이다.

완만한 오르막길을 끙끙대며 걷다보면 쿵쾅거리던 심장소리도 잦아들고 길섶을 살펴 볼 여유가 생긴다. 산 계곡의 습기를 머금은 나뭇잎도 들여다보고 사람 사는 세상 그렇듯 수다도 늘어난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지만 호반에서 시작해 산자락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산길을 재촉해 오르면 정방사 돌계단이 길손을 맞이한다. 오른편에 무거운 짐을 실어 오르는 철제 리프트가 있을 만큼 계단은 다소 가파르다. 계단을 따라 자드락길도 끝날 무렵, 오랜 세월이 녹아든 이끼를 잔뜩 짊어진 큰 돌덩이가 버티고 서있다. 일주문을 대신해 천년을 버텨온 돌이다. 마치 하늘로 향해 서있는 사천왕과 같은 기운을 느끼게 한다.

월악산 국립공원 북쪽인 금수산(1,016m) 산자락 신선봉(845m) 능선에 자리한 정방사는 기암석 절벽 밑 암벽에 붙여 세워져 있으며 가람의 배치가 다른 곳과는 달리 산 능선을 따라 일자로 죽 늘어져 있다. 커다란 바위 병풍에 기대어 선 작은 절집이다. 비좁은 자리에도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 나한전, 지장전, 산신각까지 자리하고 있으며 관음상에 오층석탑도 있다.

이런 정방사에는 재미있는 창건 설화가 전해진다. 정방사는 신라 문무왕 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당시 의상대사가 원주에서 공부할 때였다. 그의 제자이신 정원 스님이 십수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가 어디엔가 사찰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의상대사를 찾아가 의뢰했다. 의상대사는 주장자(?杖子)가 가다가 멈추는 곳에 절을 세우라며 그 멈춘 곳에 윤씨댁을 찾으면 뜻하는 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 주장자가 현재 정방사 자리에 멈춰섰으며 정원 스님은 의상대사의 말처럼 산 아래 마을에서 윤씨 성을 가진 이를 찾는다. 마침 마을에 윤석사라는 사람이 있어 말을 하니 윤석사 또한 전날 밤 의상대사가 꿈에 나타나 '내일 한 스님이 와서 요청하면 꼭 청을 들어주라' 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방사를 지었다. 그때 윤씨에게 의상대사가 한 '유구필응(有求必應 · 스님이 요청을 하면 반드시 응해주라)' 이 현판으로 아직도 절에 걸려있다.

정방사의 이름은 정원 스님의 정(淨)과 아름다운 산세를 지녔다는 의미의 방(芳)을 써 붙여졌다. 하지만 이젠 그 의미를 씻어버릴 정과 부처님의 진리의 방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세속의 무거운 짐을 부처님의 진리로 깨끗이 씻고가라' 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이런 뜻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정방사의 해우소다. 입구를 지나면 제일 먼저 길손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다. '큰 근심' 과 '작은 근심' 으로 쓰여 있는 팻말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아찔하다. 용변을 보는 곳 아래로 산 아래 구름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해우소에서는 청풍호반도 내려 보고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산등성이들이 이어져 보인다.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이지만 독특한 전망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발상이다. 용변도 버리다보면 심란한 마음도 절로 버려질 것 같다.

높은 곳의 산사답게 각 전각 마다 운치 있는 이름이 붙어있다. 건물 아래로는 바람이 스쳐지나가고 흰 구름이 머문다는 청풍루(淸風樓)와 유운당(留雲堂)에서는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쉴 수 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아래로 펼쳐지는 구름과 호수를 둘러싼 산세의 풍경이 정방사를 찾은 길손들을 신선으로 만들어 놓는다. 겹겹의 능선들이 발아래 납작 엎드려 있고 구름아래 모습을 감춘 청풍호반은 부끄러운 듯이 언뜻언뜻 모습을 드러낸다. 한동안 벌어진 입은 다물 줄 모르고 그저 감탄, 또 감탄만을 토한다. '이 곳에 이래서 절을 지었구나' 는 생각이 든다.

정방사는 많은 신도들이 와서 참배를 하기에는 사격이 자그마하니 좁다. 좁은 길을 따라 오르면 관음보살을 주불로 모신 원통보전과 16나한을 모신 나한전이 있다. 원통보전 뒤편의 바위는 '의상대' 라고 불린다. 양양 낙산사의 의상대와 의미가 같다.

의상대 바위의 기세를 따라 옆으로는 산신각과 지장전, 관음보살상이 서있다. 역시 의상 대사 설화가 전해지는 낙산사의 해수관음상과 닮은 관음보살상이 바라보는 곳에는 운해(雲海)가 펼쳐진다. 일망무제(一望無際)다. 저 멀리 청풍호를 비롯한 산 능선, 구름이 바다와 같이 펼쳐진다.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이곳에 눌러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덜컥 겁이 난다.

조금 더 자리를 옮기면 독특한 지장전이 위태롭게 서있다. 지장전 아래는 바로 깎아지른 아찔한 낭떠러지 암벽이다. 지장전 한쪽 벽면은 암벽으로 암벽에 선각한 석조지장보살상과 개금한 보살입상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 풍광에 생각이 달아나 버리면 나조차도 잊을 듯하다. 덩그렁 풍경소리는 스스로가 누군지 모르고 울리는 듯하다. 시원스럽게 펼쳐진 풍광에 몸도 마음도 저절로 놓인다. 다시 뒤돌아 나오는 길, 원통보전 뒤편 의상대의 석간수가 참배로 지친 목을 축인다. 감로수 맛이 달고도 차다.

감로수로 목을 축이고 나오는 길 보전에 쓰인 주련의 글귀가 진한 여운을 남겼다.

고무고천환반저(高無高天環返低)
담무담수심환묵(淡無淡水深還墨)

높음이 하늘보다 높을 것 없으나 도리어 밑으로 돌아가고 맑음이 물보다 맑은 것 없으나 깊음이 도리어 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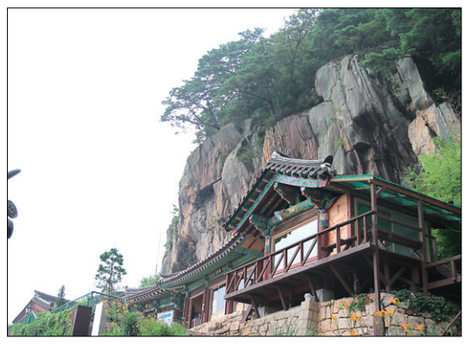
승거불지소무욕(僧居佛地少無慾)
객입선원노불비(客入仙源老不悲)

수행자가 불국정토에 있으니 조금도 욕심이 없고 나그네가 신선사는 곳으로 들어서니 늙음이 도한 슬프지 않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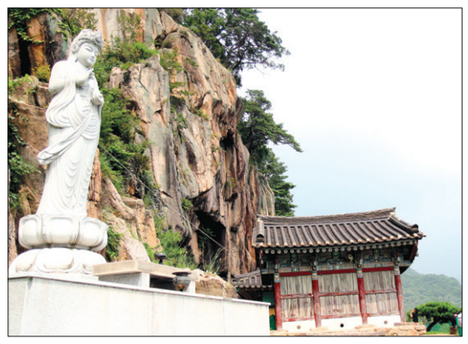
제천 정방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방사 자드락길의 끝을 알리는 바위길 양쪽의 숲이 울창한다.



의상대 앞에 바람을 맞는 듯한 청풍루.



낙산사 해수관음상을 닮은 보살상

주변보기

〈가볼만한 곳〉



• **금월봉 휴게소** /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 043-642-6069 / 청풍호반도로를 달리다보면 나오는 곳으로 금월봉은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을 닮아 '작은 금강산' 으로 불리는 봉우리다.

• **능강솟대문화공간** /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6 / 043-653-6160 /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러기나 오리 등 새를 높은 장대 위에 형상화한 솟대를 모아 전시한 공간으로 2007년부터 매년 솟대 문화 축제를 열고 있다.

• **청풍랜드** / 청풍면 교리 147번지 / 043-648-4151

• **청풍문화재단지** / 청풍면 물태리 산6-20/ 043-641-5532

〈숙박〉



• **충주 ES리조트**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200-10 / 043-648-0480

빌라 내에 누워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소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천장에 구멍을 내고 암석이 마룻바닥에 돌출되게 하는 등 자연 친화적으로 건설된 종합 휴양 시설이다. ES리조트에서는 정방사까지 산책길이 나있다.

• **청풍리조트** / 청풍면 청풍호로 1798 / 043-640-7000

〈식당〉

• **황금가든** / 충북 제천시 청풍면 북진리 317/떡갈비 정식 / 043-647-6303



"산책을 할 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산을 오를 때 경험하는
고요한 행복과 늘 함께할 수 있다면"

불안과 충동을 다스리는
여덟 가지 방법

조화로움

스테브 테일러 지음 | 288쪽 | 14,000원

시간이 넉넉한데도 지나치게 빨리 걷는다,
한 번에 두 쪽 이상 책을 읽기 어렵다,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할까?
『조화로움』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과 충동을 잠재우고,
고요한 평화와 존재의 조화로움을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를 선물한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미얀마 불교 이야기

9. 일제의 미얀마 점령과 미얀마 독립

불교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조화 꿈 꿔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당시 서부아시아 침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놓은 '죽음의 철도'. 수십만 명이 공사 도중 목숨을 잃었다. 이 내용을 주제로 영화 '콰이강의 다리'가 만들어졌다.



미얀마 지폐에 새겨져있는 독립운동 영웅 아웅 산.



미얀마 국민선거를 통해 선출된 초대수상 우 누.

미얀마 청년불교도연맹(YMBA)은 1917년과 1919년 미얀마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인도와 영국에 가서 활동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인도에 자치제를 허용한 반면에 미얀마에 허용하지 않은 영국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됐다.

미얀마 민족주의 운동은 불교가 앞장 선 종교적 투쟁보다는 종교와 분리된 정치적 투쟁으로 점차 선회했다. 1930년대 말기에 이르면 스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점차 젊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웅 산'을 비롯한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은 영국식민정부에 무력투쟁을 결의한다.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의 지원을 기대했다. 일본에서도 미얀마의 독립운동가를 포섭하기를 기대했다. 연합군은 일본과 대치하고 있던 중국 장개석 군에게 '버마로드'를 통해 군용 물자를 원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마로드'는 미얀마 중부인 만달레이와 중국 운남성 쿤밍(곤명) 간의 1,200km에 달하는 도로로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인 중국에 물자를 보급하는 주요 통로였다. 일본은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을 활용해 미얀마에서 영국을 몰아내려했다.

일본은 미얀마에 스즈키 케이지(鈴木敬司, 1897~1967)를 파견했다. 그는 아웅 산(Aung San, 1915~1947) 등과 접촉해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을 중국 남쪽 하이난도(海南島)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한다. 탈출한 아웅 산 등 미얀마 독립운동가 30명은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는다. 미얀마 국민들은 이때 이들을 일컬어 '30인 지사'(Yebo Thonzeik)라 부르고 있다. 이들이 조직한 미얀마 독립의용군은 훗날 미얀마 군의 토대가 됐다. 이 30명에는 아웅 산 사후 미얀마를 26년이나 통치한 네윈(Ne Win)도 속해 있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아웅 산이 이끄는 미얀마 독립의용군에는 수많은 미얀마 인들이 참가한다. 미얀마 독립의용군은 매우 짧은 기간에 3만 명까지 불어났다. 결국 아웅 산은 일본군과 함께 당시 수도였던 양곤을 함락시킨다. 그 후 4개월 만에 미얀마 독립의용군과 일본군은 영국군, 그리고 군속인 인도군과 기독교로 개종하고 식민정책에 앞장선 꺼인족(까렌족)과 까친족 등을 미얀마로부터 몰아낸다. 영국군은 인도 아쌈지역으로 퇴각하는데 미얀마의 영국군 42,000명 중 불과 12,000명만이 아쌈지역으로 퇴각했다.

일본 미얀마 종속 야욕 드러내

1942년 3월부터 미얀마는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국군을 몰아냈지만 하지만 일본은 전쟁 계속이란 명분하에 미얀마의 즉각적인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에 격렬히 항의한 스즈키 케이지를 본국으로 송환한다. 스즈키 케이지는 30인의 지사를 훈련시킬 때 '독립은 남에게 구걸하거나 거저 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란 이상을 강조했다. 훈련 당시 미얀마 독립을 약속받았던 아웅 산 등 미얀마 독립운동가들은 스즈키 케이지의 송환 이후 독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일본정부와 노선을 달리한다.

이후 일본군은 3년간 미얀마를 통치한다. 일본군은 1942년부터 미얀마를 시작으로 서부아시아 점령을 가속화하기 위해 태국과 미얀마 간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철도 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이 공사에는 동남아 일대에서 포로가 된 약 6만 명의 연합군 포로들이 동원됐으며 미얀마인을 포함해 약 20만 명의 아시아인들이 투입됐다.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며 다급해진 일본군은 난코스의 공사를 강행해 16,000명의 연합군 포로와 10만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놓으며 16개월 만에 철로를 완공시킨다.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한 '죽음의 철도' 건설이었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란 구호 속에 미얀마를 종속시키려하는 일본의 의도를 파악한 아웅 산은 영국과 다시 손을 잡는다.

1945년 3월 27일 미얀마군과 영국군은 일본군을 미얀마에서 몰아낸다. 이 날을 미얀마 국민들은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일본이 1945년 8월 28일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서 미얀마는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미얀마의 독립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영국이 다시 주인행세를 하려했기 때문이다. 아웅 산은 런던으로 건너가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와 담판을 벌인다. 담판 결과 '1947년 1월 27일, 1년 이내에 독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애틀리-아웅 산 협정'을 체결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립의 공식절차를 앞두고 내각 구성에 힘을 기울이던 아웅 산은 완전한 독립을 불과 6개월 앞둔 1947년 7월 19일, 회의 중 암살당한다. 그는 당시 33살의 젊은 나이였다. 미얀마에서는 이날을 '순국의 날'로 기리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일본군을 몰아낸 1945년 3월 27일이 아닌 1948년 1월 4일로 삼고 있다. 이는 이 날이 수십 년 동안 미얀마를 지배해 온 외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 이후에도 미얀마 인들은 일본을 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독립과정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긴 했지만 두 나라가 원수지간이 된 것은 아니었다. 미얀마 인들은 일본을 미얀마 독립의 기초를 세운 나라로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미얀마 인들은 스즈키 케이지에 대해 높게 평가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뒤 양곤 형무소에 수감돼있던 스즈키 케이지가 전범으로 영국 법정에 회부되려 할 때 아웅 산은 "그는 미얀마 독립의 은인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하며 그의 석방을 돕기도 했다. 네윈은 1981년 미얀마 독립의 공헌자로 그에게 미얀마 최고 영예인 아웅 산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불교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 나서

일본군이 미얀마를 점령하고 있던 기간 일본은 미얀마 내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친불교 정책을 펼쳤다. 도쿄에서 열린 '대동아 불교대회(Greater East Asia Buddhist Conference)'에 미얀마 불교도를 초청하는 한편 미얀마와 같은 불교국임을 주지시키기 위해 양곤의 새 파고다를 건립하여 불사리를 봉안하기도 했다.

英·日 틈바구니서 독립 이뤄

아웅 산 '정교분리가 종교 순수 지켜'

초대 수상 우 누, 불교 사회주의 주창

불교 기반한 평화 및 화합 연대 강조

아웅 산은 이에 미얀마 정치와 불교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40년 아웅 산은 불교를 앞세운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아웅 산은 종교가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정교분리가 훼손되면 종교의 순수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1947년 아웅 산의 암살로 30인 지사 중 네윈이 군 최고직에 오른다. 1948년 독립과 동시에 '버마연방공화국'이 출범했는데 우 누(U Nu)가 수상으로 선출됐으며 네윈이 부수상으로 임명됐다.

우 누는 네 윈과 같은 '30인 지사' 일원이 아니지만 독립 후 최초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수상에 선출됐다. 이어 1960년에도 2대 수상으로 취임한다.

우 누를 중심으로 하는 '버마연방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불교사회주의와 불교 국교화였다.

독립 후 미얀마가 불교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 누의 불교관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 누는 독실한 불자였다. 우 누는 모든 사회문제가 불교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그는 영국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생긴 계층, 부족 간 대립과 사회 무질서 현상을 불교가 중심이 돼 바로잡아지길 바랐다. 그는 미얀마 내란을 막기 위해 결혼을 했음에도 청정행을 불전에 맹세했으며 파고다의 보수와 건립 그리고 경전 암송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 누가 불교를 중시한 이유는 해방 이후 미얀마 사회상황과도 맞닿아있었다. 식민지배기간 외국인의 경제적 영향이 강했던 미얀마는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갔는데 그는 사회주의를 불교적 입장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우 누는 불교와 사회주의는 서로 통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자들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우 누는 사회주의도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누는 불교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데 중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 누는 개인의 의지와 자유를 존중하는 불교와 민주주의가 서로 서로 부합한다는 입장을 자주 표명했다.

우 누는 초대 수상으로서 불교철학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접목해 미얀마 연방을 이끌려고 노력했다. 당시 미얀마는 불교를 근간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조화를 이룬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우누의 경제 자문관을 맡은 경제학자 E.F.슈마허(1911~1978)는 1955년 이런 미얀마에서 소득수준은 낮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책을 남긴다. 새로운 경제철학을 제시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작은 것이 아름답다〉였다.

올해 초 필자가 미얀마를 찾았을 때는 '미얀마 독립일' 65주기로 미얀마 정부 기관지인 'The New Light of Myanmar'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4대 과업문구를 게재하고 있었다.

첫째, 모든 국민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언제나 연방에서 함께 산다.

둘째, 모든 국민은 연방이 분열되지 않도록 분열없는 연대의식으로 결속과 자치권을 유지한다.

셋째, 모든 국민은 진실을 가져오는 과업에 참여해 평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넷째, 미얀마 현대화를 완성하고, 민주화된 나라를 확립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봉사를 경주한다. 정의구현 법치사회와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 연방정부가 독립 이후 현재까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이해할 수 있다. 미얀마인들이 꿈꾼 분열없는 연대와 화합의 공동체는 불교를 중심으로 부처님이 제시한 불국토가 아니었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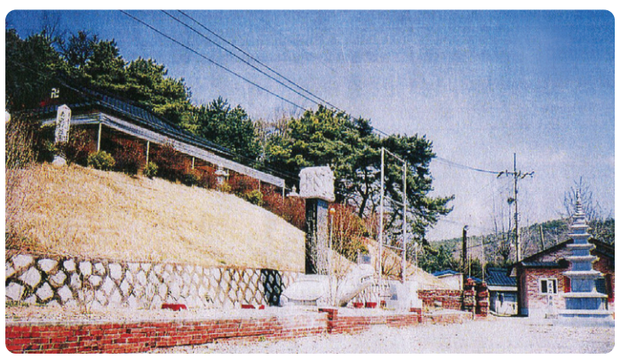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급) 소 식

평화통일사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큰방 (부엌,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1억 5천만원에 양도합니다. 인연을 기다립니다.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 의]
010-9415-5818
스님 직접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선지(禪旨)로 모든 것 말씀… 경·학 강의는 교화 '방편'



方山老의 無影樹 〈24〉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명호근



명호근 (주)해주 사장,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이사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총재
쌍용투자증권 사장, 쌍용양회 사장, 쌍용양회 부회장 역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불교방송 이사 역임,

한암 스님과 3년 편지… 출가 3년 묵언
팔만대장경 요지는 '명심견성'
'선악과'는 분별심… 깨치면 원죄 소멸
"흐르는 물도 아껴써야" 검소한 삶

-회장님은 탄허 큰스님을 어떤 스님으로 보고 싶나요?

저는 탄허 큰스님을 보통의 큰스님, 강백스님으로 부르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선지(禪旨)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가 큰스님의 당체입니다. 그것은 동산 큰스님의 49재 법문에서 큰스님이 하신 법문이 그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그 해인 1965년도 여름에 부산 범어사의 동산 종정 스님이 열반하셨어요. 그 무렵 저는 선지식을 갈구하고 찾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산 스님의 49재 법회에 갔는데, 그때 탄허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탄허 큰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탄허 스님보다 스무 살이나 더 많으신 춘성 큰스님이 50대 초반인 탄허 큰스님에게 절을 하며 법을 청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방의 선지식 및 고승대덕 큰스님 등 당대 대선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종사 열반 자리에 법문을 청하니 탄허 큰스님께서 사양하시면서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큰스님께서 주장자를 세 번 치시더니 "하동산 큰스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또 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은 한마디 이르시오" 하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장자를 한 번 탁 치시고 "금정산이 높으니 범어사가 오래되었구나" 하는 게송을 읊으신 후 법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이때 탄허 큰스님의 새로운 진면목을 더욱 알게 되었고,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경(經)이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고승대덕 큰스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런 법문을 하였다는 것은 선지(禪旨)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큰스님께서 경(經)과 학(學)을 말씀하신 것은 격외(格外)도리를 가지고 법문을 하시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므로 부득이 방편으로 가지각색의 상황에 맞게 불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 차원에서 하신 것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부처님 말씀, 조사님의 어록을 인용하기 위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탄허 큰스님은 입산 직후에 한암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깨달았지 않았는가 합니다.

-탄허 큰스님은 입산 이전에 이미 도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고, 그런 고민 해결 차원에서 상원사로 입산하였지요?

제가 알기로 큰스님은 입산 이전에 유교, 장자, 주역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늘상 격외도리, 문자 밖의 소식을 아시려고 고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대산의 대선지식인 한암 큰스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편지로 3년간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 3년간의 편지 문답에서 벌써 불교와 도에 대한 것을 다 공부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대산 상원사에 입산하시고 나서도 3년을 묵언정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묵언정진은 참선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한암 큰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서 정진을 한 후, 한암대종사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서 볼 때 3년 묵언정진에서 참선공부는 끝냈다고 봐요. 이렇게 출가 전에 문답으로 공부하셨고, 입산 직후에 바로 묵언 참선 정진을 한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 없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큰스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經)을 보시다가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딱 책을 덮으시고 2~3일을 졸고 나서 보시면 그 뜻을 환하게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큰스님은 참선이라 하지 않고, 조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스님은 선지로써 경을 보신 것입니다. 탄허 큰스님을 학승,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큰스님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탄허 스님은 경을 보기 위해 입산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큰스님에 있어서 경은 후학 및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따라서 큰스님이야말로 대선지식이고, 대강백이시고 또한 세간적으로는 경세적인 사상가, 중생의 아픔을 감싸안으셨던 대보살이셨습니다.

-한암 큰스님이 탄허 큰스님에게 화엄경 번역을 부촉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탄허 큰스님은 화엄경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배우는 사집, 사교 등 거의 모든 경전을 다 번역하였습니다. 대선지식이라고 불리웠던 한암 큰스님도 번역은 못하셨어요. 그러나 선지식인 한암 큰스님께서 선지로 탄허 큰스님을 살피시고, 경을 보라고 하셨고 화엄경 번역을 부촉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암 큰스님께서 탄허 큰스님이 아니고서는 난해한 화엄경을 현토 역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후학과 중생들을 위하여 간곡히 부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각기 이 세상에 올 때에 각자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신 한암 큰스님이 탄허 큰스님에게 화엄경 번역을 부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화엄경에 머물지 않고, 사집·사교 등 모든 경전을 다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스님은 입산 이전에 격외도리, 근본도리를 터득하고 거기에 불교의 참선을 통해서 대사(大事)를 마쳤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큰스님의 이력을 미루어 볼 때에 큰스님에게 선, 경, 문자 이런 것을 갖고 고정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만약 탄허 큰스님이 학승이었다면 동산 종정 스님 49재라는 그런 자리에서 법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방망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말입니다.

-탄허 큰스님의 특성, 즉 다른 큰스님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으로는 종지(宗旨)를 강조하였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종지를 강조하신 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큰스님의 논리는 명쾌하였어요. 큰스님이 종지를 강조하였던 것은 경(經)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큰스님은 도, 우주, 근본, 마음 등에 대한 것을 늘상 고민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이나 대중들에게 말씀했어요. 큰스님은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가 본래 우리 마음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도(道), 법신(法身), 불성(佛性)을 증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 생각이 끊어진 것은 곧 분별심이 끊어진 그 자리입니다. 탄허 큰스님께서는 이미 우주가 생기기 전, 부모미생전의 도리를 확연히 깨달으셨기에 법문을 하실 때나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에도 팔만대장경의 경구(經句)를 막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일념(一念)이 생기기 이전, 일념이 끊어진, 일념이 없는, 즉 무명이 생기기 이전의 자리를 법신, 당체, 진심이라고 보셨지요. 즉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 본래 마음자리이기에 분별심이 있을 수 없고, 분별심과 망상이 끊어진 그 자리는 공적영지(空寂靈知)이기에 생사(生死), 이름, 모양, 빛, 색깔 등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팔만대장경의 요지를 일언(一言)으로 요약하면 명심견성(明心見性)이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밝히면 성품자리, 즉 본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다른 큰스님들은 우물쭈물하였지만, 탄허 큰스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스님은 도, 불법을 확연히 아시고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지(宗旨)입니다. 큰스님은 종지를 파악하면 자재기중(自在其中)이라고 하시면서, 종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스님은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의 뿌리까지 고구마의 모든 것이 딸려 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여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신 이후 그 요지를 대중들에게 말하였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49년간 돌아다니시면서 설법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탄허 큰스님이 선지에 의해서 불법, 도를 깨쳤지만 사회에 있는 젊은이나 사람들에게 불법을 심어 주기 위해서, 불법을 통해 도의적 인재양성을 하고,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 제대로 인재가 들어가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정열을 다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불법의 이치를 통달하신 탄허큰스님께 들은 불교 얘기가 궁금하군요.

큰스님은 항상 유불선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먼저 다른 종교 얘기를 예로 든 다음 불교로 마무리하셨지요. 불교에서도 역시 종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불교에서 중요한 도(道), 마음, 본래 자리, 마음의 본체, 분별심, 돈오점수, 견성 등을 자세하게, 그러나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큰스님은 "불법은 마음(心) 법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마음이 미(迷)하면 중생이 되고, 마음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탄허 스님은 '즉심시불(卽心是佛: 내 마음이 곧 부처)'이라고 설명하셨지요. 큰스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원래 부처인데 현실적으로는 따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원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부처님은 신통이 자재하고 중생은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부처도 마음으로 된 것이고, 중생도 마음으로 된 것이니 마음으로 지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깨치면 부처가 되고 미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모두가 마음의 작용이니 그래서 부처가 곧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중생도 수행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때 부처의 성품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명심견성(明心見性)' 즉 마음을 밝혀 성품을 봄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도라는 것은 한 생각,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에서 아는 것이 도요, 분별심이 붙어서 아는 것을 술이라 한다. 도는 본래 마음자리를 말하는데 한 생각 끊어지고 분별심 끊어진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선악도 아니요, 냄새나 빛깔도 없고, 네모지거나 둥글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검거나 흰 것도 아닌 것이 라고 하셨지요. 큰스님께서는 불법을 공부하고 정진하는 데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 째는 염불문이요, 둘째는 경전문이요, 셋째는 참선문이라고 하셨지요. 이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탄허 큰스님은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스님들과 달리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그렇게 하신 경우는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탄허 큰스님에게 들었던 내용 중에서 특기할 것을 소개하여 주세요.

그때에 탄허 큰스님이 방산굴(方山窟)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스님께서 상원사에 계시다가 월정사에 내려오시면 방산굴이 있던 그 자리에 자주 오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면 편안하시고, 오래전에 왔던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방산굴을 재래암이라 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다 화엄론 40권을 보시고는 이통현 장자가 공부하신 곳이 밖에서는 호랑이가 지키고, 하늘에서는 천녀들이 식사를 대접하였다는 내용을 보시고는 '방산굴'로 작명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탄허 큰스님이 저에게 근검절약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흐르는 물도 아껴 써야 한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때에 스님이 번역하는 원고를 보니까 스님은 번역하신 문장을 고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흔히 나오는 파지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경전 번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방산굴로 탄허 스님을 만나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지켜보신 것이 있나요?

한번은 신부가 찾아오니까 탄허 스님이 신부에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아들 예수, 성신 성령이 다른데 왜 삼위일체 즉 하나로 보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깐 신부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스님은 달을 비유로 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달의 본체인 법신(法身)이 있고, 달의 빛인 광명이 있으며,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면 천 개의 달이 되듯이 달이 수천 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만 본체(本體)인 달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은 하나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원죄가 생기고,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선악은 분별심의 대표적인 명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도라는 것은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를 말하고, 그 자리를 깨우치면 원죄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분별심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분별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한 도와 근본 마음자리는 멀다고 했습니다. 즉 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영원히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를 터득하면 원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본자리를 알지 않고는 견성성불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마음, 하늘 천, 가운데 중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서 선악, 옳고 그른 것 등등의 분별심이 끊어져야 그 본체, 본마음을 증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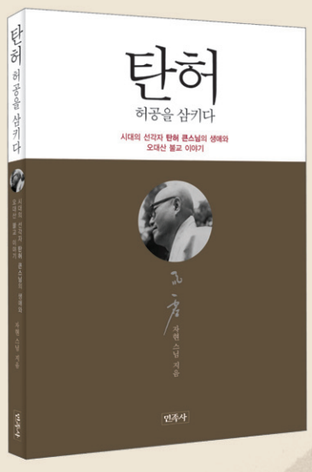
-탄허 스님은 평생을 역경불사라는 대작불사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대원암에 계실 적인데 어떤 사람이 스님에게, "스님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번역, 출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출가해서 도를 공부하는 것에는 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특별한 묘미,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 생활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기지 않는 이름 탄허,
그리고 탄허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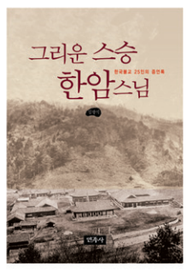
탄허, 허공을 삼키다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자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5월 17일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탄허, 화엄의 길〉 KBS1 TV 방영 예정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암 큰스님

한암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면서 수행에 임했으며, 계율에 철저하고 승가화합과 대중화합에 투철한 올곧은 수행자였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하였으며, 좌탈입망으로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국불교의 자존심이다.
이 책은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일화집이다. 생전에 주석하셨던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수집한 스님의 행적과 자료,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한암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김광식 지음 / 412쪽 / 15,000원 / 양장(신국판)

‘나’도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이야…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5⟩



범어사 주지

나[我]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나 아님[非我]이야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중생을 모두 다 얻을 수 없다.”

위의 말은 《유마경》의 〈입불이법문품〉에서 인용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이무소득고’ 하듯이, 성품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필경 ‘무소득’이다. 그것은 모습이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불조께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살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무 것도 모르고 무명 속에서 허망한 모습을 덮어쓰고 살던 중생들에게, 한 줄기 광명을 비춰서 그로 인해 중생 안에 있는 광명의 불씨가 싹트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부처님은 삼십이 상(相)을 지니셨고 또 분명히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어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런 눈높이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정도의 수단을 베풀어서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 이상의 힘을 가진 사람한테는 32상과 중생제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렇지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최고의 수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영원히 멀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온갖 설법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한 노파심에서 나온 방편이다. 배휴는 그런 교학을 배워서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추었으니, 중생도 모두 갖추어야지 부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생을 제도해서 부처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스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죄다 허망한 것이라고 싹 쓸어서, 그토록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벽스님 말씀이,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고 하셨다.

《금강경》의 유명한 사구게로, 원문은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다. 사실 조사선의 입장에서는 배휴의 계속되는 어리석은 질문을 그냥 싹 밟아 무찔러버려야 하는데, 황벽스님은 자상하게도 경전에 집착하는 배휴를 위하여 금강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일러주고 있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네가 망령되이 지어낸 견해다. 본심을 알지 못한 탓으로, 그 같은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심을 언어문자로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 것을 지적 이해로 파악하려고 애쓰다보니, 관념을 실체로 착각하는 폐단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품을 보면 자연히 모든 까닭을 알게 되어 그저 말없이 계합될 것인데, 알음알이에 집착하는 학인은 스스로 속아서 자꾸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필경 ‘무소득’
있고 없고를 초월해서
불가사의한 일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한 방편

“32상 80종호 갖춰야 중생도
부처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이 허망합니까”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교학에서 ‘無學’은
더이상 수행할 것 없고
선에서는 ‘본래무학’ 있음
자각하면 그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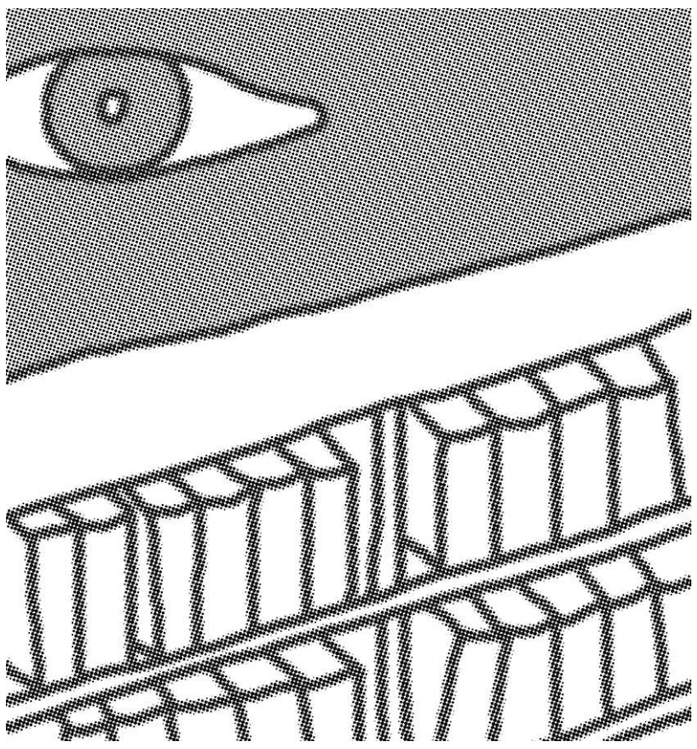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바로 부처라는 장애에 고달리고, 중생이라는 견해를 내는 순간 중생이라는 장애에 고달린다.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내거나,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 등의 견해를 낸다면 모조리 그와 같은 장애를 만들고 만다.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 부처와 멀어진다. 알고 멀어지는 것과 모르고 멀어지는 것은 차이가 크다. 스스로 자각 하고 모든 인연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 장애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 머무르면서 자꾸 허망한 소리 하면 장애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넋나간 짓을 하게 되어있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저런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어쨌든 자기 눈높이만큼 소화할 수밖에 없겠지만,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두루 통할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그것들이 너의 마음을 장애하기 때문에 결국 윤회하게 된다.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입장이 또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전환되기 때문에, 생사가 이어진다. 그것이 윤회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무언가를 집었다 놨다 하는 것과 같아서, 쉴 수가 없는 것이다.

중생이 자꾸 망상을 일으키는 모습은 원숭이가 물건을 집었다 놓았다 하는 것과 같아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러니 고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진정한 배움이란 모름지기 무학(無學)이어야 한다.

교학에서 ‘무학’이란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더 이상 배우거나 수행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선(禪)에서는 뭘 배우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본래 무학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뿐이다.

범부나 성인도 없고 깨끗함이나 더러움도 없으며, 크거나 작음도 없고 번뇌도 번뇌를 없애려는 작위도 없다.

일체 중생의 성품이 이렇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없다 하니까 이 말을 배워가지고, 모든 것을 없앤 뒤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려고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본래 그렇다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투철해야 되는데, 자기의 업을 들여다보면서 “이 업을 녹이고 없애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망상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 자꾸 업을 녹이고 없애려고 별짓 다 하게 된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하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유위법의 수행은 외도로서, 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①



모든 중생은 여래를 그 내부에 잉태하고 있다.

〈여래장경〉

아홉가지 비유

“시(詩)를 배우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다.” 중국의 어느 스님이 남기신 명언이다. 그렇다면, 시란 무엇일까? 비유 아니겠는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에둘러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시이다.

그렇게 본다면, 대승경전에는 수없는 시가 등장한다. 수없는 비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비유를 활용하여 시적으로 말씀한 것은, 좀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일 터이다. 그런 한편으로, 그런 특성은 인도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에서부터 유래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인도사람들은 반드시 실례(喩)를 들어서,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저 산에 불이 났다.” 이런 주장이 진리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 산에 연기가 있잖아”라는 이유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뒤이어서 “연기 있는 곳에는 불이 있다. 마치 아궁이와 같이”라고 말해야 한다. “마치 아궁이와 같이”라는 것이 비유이다.

이러한 특징은, 오늘 읽는 〈여래장경〉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은 겉으로 보면 중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속에는 여래(부처)를 깊숙이 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중생은 여래장(如來藏)의 존재이다. 이러한 선언을 좀더 실감나게 전하기 위하여, 아홉가지 비유를 드는 것이 〈여래장경〉의 흐름이다.

연꽃 위에 앉으신 부처님, 벌들에 둘러싸여 있는 꿀, 껍질로 덮여 있는 곡식, 더러운 곳에 떨어진 금, 가난한 사람의 집 지하에 묻혀있는 보배, 과일의 씨앗, 길가에 버려진 불상, 가난한 여인이 수태한 전륜성왕(轉輪聖王), 거푸집 속의 상(像).

이러한 아홉가지 비유는 모두 그 구조가 동일한다. ‘A 속의 B’라는 형식이다. B가 내부에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A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A에 의해서 은폐된 것이 B이다.

A는 중생, 아니 구체적으로는 중생을 중생이게 만드는 번뇌들이다. 그럼 B는 무엇? 그렇다, 바로 부처이다. 그 부처를 중생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상태의 중생을 ‘여래장’이라 한다.

악인은 없다!

모든 중생은 다 장차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속에 잉태하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입장은 불교의 인간관이고, 불교의 중생관이다. 말하자면, 성선설(性善說)에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다.

물론, 여래장의 인간관은 번뇌 속의 인간이라는 점 역시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여래장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사실은 여래를 잉태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격려한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현실 속에는 흉악하게 사람을 해친 살인범도 없지 않다. 특히 어린 생명을 해친 악인을 보면, 악인은 애당초부터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지옥에나 가라, 고 그 응보(應報)를 주문하고픈 심정도 들 때가 없다.



그림 · 박구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닌가? 그 사람들 어디에 선한 불성(佛性)이 존재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저 밑에서는 그들의 악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래서 사형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죽음과 스스로 마주하게 될 때는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죽을 때만은 한줄기 선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악인도 선인의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 즉 불성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임은 틀림없다. 불교에서는 “악인은 없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다만 그 마음이 번뇌와 업으로 인해서, 속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살활의 체용’ 심도있게 논의

연이어 보낸 초의의 편지는 적막한 추사의 적거지를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어지럽게 떨어진 것처럼 어디든지 환희의 인연이 자자”하게 하였다. 공양이 청정하여 가는 곳마다 자재한 초의의 수행처와 자신의 거처를 “게 굴이나 우렁이 사는 집의 열뇌업”에 비유한 추사의 해학이 돋보인다. 특히 초의는 〈〈진묵대사유적고〉〉의 편찬 과정에서 마지막 퇴고를 추사에게 보내 그의 조언을 구했음이 확인된다. 〈〈완당전집〉〉〈여초의〉 28신과 〈나가묵연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나가묵연첩〉에 6월 12일이라는 간지가 있다.

스님의 편지 세 편이 이어 도착하니 적막했던 이곳에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어지럽게 떨어진 것처럼 어디든지 환희의 인연이 자자합니다. 포갈과 향·등의 공양이 청정하여 가는 곳마다 자재하시니 이러한 경계에서 게 굴이나 우렁이 사는 집의 열뇌업과 견주면 한갓 속된 세상의 한 경계로 삼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진묵대사의 행록은 바로 후세까지 남을 옛사람의 은혜와 향기로운 흔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진묵의 행장이) 향기가 있으니 진실로 이것으로서 진묵대사의 행록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겨자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인다했으니 진묵대사도 기껍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전후기 서문의 글이 너무 좋아서 다시 정정할 것이 없을 듯 하지만 더욱 세세히 살피고 헤아려서 다시 속된 것과 바른 것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선(二禪)의 살활(殺活) 등은 진실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리저리 얽힌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근래 어둠과 막힌 것을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나가묵연첩〉 추사친필본

초의 편지 3편 연이어 받은 기쁨
“하늘에서 꽃비내리듯 환희” 답신

다만 살활의 체용(體用)을 헤아림이 조금 부족합니다. 살활은 모두 용(用)일 뿐입니다. 박아는 오탁(五濁)의 악한 세상에서 쉽지 않은 선근(善根)을 지녔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바르다고 여길만하고, 서도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기질을 갖추었는데도 거듭 정진하여 향상일규를 얻고자 하니 (다른 사람이)당해내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후일을 기약하고 돌아갔습니다. 짧게 이런 사실을 알립니다. 모두 뒤로 남겨두고 이만… 나수. 니원(법구경의 니원품)을 등초해 부치니 또 거두어 주시오. 여기에 큰 책상(案)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는 끝내 보낼 수 없으니 다시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梵械三度 鱗次而至 寂寞之濱 如天花亂墜 在在是喜歡緣藉 悉蒲褐香燈供養清淨 隨順自在 以此蟹宕蝸殼熱惱業較對不止一界以塵凡而已 震師行錄 即不過殘膏剩馥然 寸寸皆香 固不足以此盡震師 須彌納芬子 震師亦當肯受 前後記?甚好 似無更加點定 又當熟看爛商 再請塵正 二禪殺活等文 固當如是說去 何庸千藤百葛 廓掃近日霧窟?障 善哉善哉 但殺活之一體一用 稍欠商量 殺活俱是用耳 朴雅五濁惡世不易有之善根 最其眞實無虛僞者可禎 於書道亦俱慧性重之精進 欲得向上一竅 有不可禁當耳 留後期而歸 暫申如此 都留不宣 那叟 泥洹抄寄亦領收 此有一大案 今回無以卒之奉及 且在緩圖耳)

초의가 〈〈진묵대사유적고〉〉를 편찬한 것은 1847년경이다. 추사가 이 책을 교정한 후, “전후기 서문의 글이 너무 좋아서 다시 정정할 것이 없을 듯”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이 편지는 대략 1846년 6월 12일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추사는 초의와 살활의 체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이는 추사가 “이선(二禪)의 살활(殺活) 등은 진실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초의의 〈〈선문사변만어〉〉저술 과정에서 자신의 선리의 관점을 끊임없이 추사와 탁마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추사에게 차를 만들어 보냈던 인물로, 이들의 소식을 전달했던 박아에 대한 “서도에 지혜를 가진 인물인데도 거듭 정진했다”는 추사의 평가는 박아의 인품과 학문적 취향을 밝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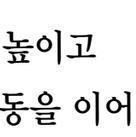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 왕 청 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종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통찰과 나눔’은 하나
〈洞布不二〉
“날마다 선행 합시다”

박영재 (서강대 교수 · (사)선도회 지도법사)

“흔히들 간화선을 어렵다거나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심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 꾸준히 수행하면 그 누구라도 원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입실지도가 제대로 갖춰지면 간화선만큼 빨리, 그리고 간결하게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도 없을 것입니다”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에게 수행과 일은 둘이 아니다. 수행이 곧 일이요 일이 곧 수행이다. 그래서 그는 교수라는 직함 이외에 또다른 직함으로도 유명하다. 바로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이하 선도회) 지도법사다. 1975년 선도회 종달 이희익 노사 문하로 입문 간화선을 시작했고 1987년 종달 노사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1990년 선도회 제 2대 지도법사가 된다. 교수로서도 수행자로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온 박 교수를 7월 23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부모님 은혜 진정으로 갚는 일은?

박 교수는 최근 〈온 몸으로 읽는 지구촌 효 이야기〉를 냈다. 이 책은 시대와 종교와 국가를 초월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과 동·서양의 진솔한 ‘효’ 이야기들을 골라 엮은 책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보다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서산대사와 진묵대사 서포 김만중을 비롯해 중국의 목주 선사와 일휴 선사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탈무드〉에 담긴 효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40년 가까이 수행자와 물리학도로 살아온 그가 왜 ‘효’를 주제로 책을 낸 것일까? 박 교수는 효도와 치열한 수행은 곧 연결돼 있다고 전한다.

“효란 백행의 근원이죠. 요즘 세상에 불효자들의 안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효와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또 저의 스승이신 종달 이희익 노사께서 월간 〈법시〉에 〈부모은중경〉을 5개월에 걸쳐 연재를 하신 일이 있어요.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번 책 말미에도 노사님의 옛 연재물을 재편집해 함께 실었습니다.”

박 교수의 효는 온몸으로 실천한다는 뜻이며 부모님의 은혜를 아무리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새기며 읽어도 이에 대한 보답은 끝이 없죠. 온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목욕을 시켜 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 교수는 이런 중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이 있다고 강조한다. “수행자라면 믿음이 없는 부모님께 믿음을 심어드리고 부도덕한 부모님께 바르게 사시도록 일깨워 드리며 어리석은 부모님께 지혜로운 삶을 사시도록 일깨워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갚는 길이죠. 사실 전두환 前 대통령도 자식들이 조금만 지혜롭다면 그래서 부모의 부도덕함을 일깨워 줄수만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마보이에서 간화선 수행자로

천주교 집안의 2대 독자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박 교수는 수행 입문 전까지의 자신을 마마보이라고 지칭한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고 평소 관심분야였던 물리학도의 길을 가게 된다. 대학입학 후 캠퍼스의 낭만을 기대했지만 월마다 시험을 치는 서강대의 학업풍토는 예민하고 내성적인었던 박 교수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고 불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방황하던 중 그는 대학 2학년 방학 때 법정스님의 〈숫타니파타〉를 읽고 큰 감명을 받게 된다. 이후 ‘현암사’에서 나온 불교개론 시리즈들을 섭렵하면서 남은 방학을 보내게 되는데 특히 〈잡아함경〉에 담겨 있는 구절은 박 교수의 삶을 바꿔 놓게 된다.

‘독화살을 맞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해야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독화살을 뽑고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왜 나를 쏘았는가 하고 고민하다 보면 독은 온몸에 퍼져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독을 먼저 치료하고 튼튼한 몸이 되었다면 얼마든지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을 탓하기보다 제 자신이 시급히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은 저한테 절절이 와닿았어요. 이렇게 2학기가 시작되면서 서강대 불교학생회 모임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선배 한 분이 선도회를 소개해 주었죠.”

박 교수는 당시 선도회 지도법사였던 종달 이희익 노사를 만나게 된다. 종달 노사는 일본대 철학과를 수료하고 일본 임제종 남선사파 화산 노사 문하로 출가했으며 일본 동경 도림사 주지, 해인대학(현 경남대) 교수, 동국대 강사, 월간 〈법시〉 편집인을 지냈다.

박 교수는 참선수행을 시작하면서 성격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고등학교 시절에 여학생이 옆에 앉으면 얼굴이 빨개져 어쩔줄 모를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선수행을 1년 하고 나니 똥배짱(?)이 생겼죠. 시험치기 전에 아침을 먹지 못할 정

가톨릭 집안서 2대 독자로 자라
대학시절 종달 노사 문하로 입문
간화선으로 삶 전환점 맞아

1987년 선도회 2대 지도법사 인가
인가 받았어도 성찰 계속해야
전국 지부 18곳 …수행 · 법사 배출

도로 예민했었는데 수행 후 이런 초조함과 예민함이 사라졌죠. 당당한 대장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즈음 절친했던 친구 아버지의 돌연사 소식을 접하면서 생사문제가 몸서리 칠정도로 그를 흔들었다. 이 의문을 해결하고자 그는 수행에 매진했다. 그렇게 그는 철저한 수행자로 거듭났고 수행과 학문이 둘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1987년 종달 노사로부터 인가를 받게 된다.

“당시 저는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에 소재한 이론물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떠나기 직전인 1987년 8월말경 노사께서 설정해 놓으신 모든 간화선 수행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드리러 노사를 찾아갔더니 무문관료필(無門關了畢)이 담긴 인가장을 써주셨어요.”

이후 1988년 귀국해 강원대를 거쳐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이후 1990년 종달노사가 입적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박 교수는 선도회 2대 지도법사가 되면서 목동모임을 이끌게 되었고 1994년에는 서강대 신촌 제 1모임 법사도 맡게 된다. 이렇게 그는 가톨릭 예수회가 설립한 서강대에서 기도실의 온돌방을 빌려 참선 모임을 가지며 참선을 알려나가기 시작한다.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수행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혼자서도 철저히 선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제자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만약 수행에는 힘쓰지 않고 누구



통보불이(洞布 不二)의 삶을 주창하고 있는 선도회는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0년 정성노인의집 방문 위문품 전달식.



박영재(朴英才) 교수는 … 1955년 경주에서 태어났으며, 거사호(居士號)는 법경(法境)이고 헌호(軒號)는 무난헌(無難軒). 서강대에서 입자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 물리학과 교수와 미국 뉴욕 주립대(스토니 부룩)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로 있다. 1975년 종달 이희익 노사 문하로 입문해 선수행을 시작했으며, 1990년 노사 입적 후 그 뒤를 이어 사단법인 선도성찰나눔실천회 제2대 지도법사로 일반인들을 위한 선모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의 인가를 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수행력은 어느 사이엔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철저한 수행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박 교수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재가자들은 통찰체험을 해볼 것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전문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 통찰과 나눔이 둘이 아닌 '통보불이'(洞布不二)의 삶이 실현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서명원 신부와의 만남

박 교수는 학교내에서 교양강좌 '참선'과 자연과학부 전공 '자연과 인간' 등의 강의를 개설해 참선을 보급하고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도 하다.

"수업은 학생들에게 아주 반응이 좋아요. 수업 5분전에 강의실에 들어오면 수식관을 시켜요. 일단은 집중력이 좋아지죠. 수식관 요령과 성찰에 대한 목록도 시험문제로 제출하는데 이렇게 한 학기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 시작과 마지막에 인생지도를 그려보게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난후 학생들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에요. 나눔에 대한 개념 자아성찰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죠."

또한 박 교수의 제자인 천달 법사 서명원 신부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의대를 나온 서 신부는 1979년 예수회에 입회하면서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톨릭을 전파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성철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를 공부하게 되었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만큼 한국불교에 능통한 인물이다. 서명원 신부는 95년 박 교수가 이끄는 서강대 기도실 온돌방 선도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참선수행을 하게 된다. 이후 그는 박 교수로부터 '천달(天達)'이라는 법호를 받았고 2007년부터는 학생들과 재가자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간화선을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선도회의 신사홍서원

날마다 한가지 집착을 버리오리다/ 날마다 한 구절 법문을 익히오리다/ 날마다 한 차례 화두를 살피오리다/날마다 한가지 선행을 행하오리다

이렇게 박 교수가 이끄는 선도회는 현재 전국에 18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2009년 사단법인으로 인정받는 등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박영재 교수는 일과 수행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신사홍선원을 제창했다.

수행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20~40분 정도 수행을 하고 일터에서는 하루일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좌선 수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항상 화두를 살피고 한구절의 법문을 익히며 선행을 통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통보불이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홍서원은 생활인들이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보살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일상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2011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해 통찰체험하며 죽는날까지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참선수행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려온 박영재 교수는 100년 후를 내다보고 법사를 키워나가고 있다. "선도회는 법사 양성 수련단체라고 과언이 아니죠. 삶 속에서 꾸준히 수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법사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회의 기초를 다지고 동서양에 참선을 알려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캐나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성직자의 길을 걸어온 천달 서명원 신부는 2006년 박영재 교수에게 법사직을 수여받고 국내외에 참선을 알려오고 있다.



박영재 교수는 대학시절 종달 이희익 노사 문하로 입문해 선수행을 계속해 왔다. 대학원시절 박영재 교수(오른쪽)와 종달 노사(중간)

전법일기

폭로, 화합 깨뜨리는 어리석음

아무도 궁금해않는 이야기

며칠 전,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전파됐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어설프게 쓰인 이야기는 향신료같이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로 가득했다. 중심을 잃고 내달리는 기관차처럼 한쪽방향으로 쏠린 방송으로 인해 상황을 잘 모르는 시청자들은 놀란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양심고백을 하겠다는 스님이 서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양심고백을 하는 모습이 마치 국민을 기만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던 위정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했다.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수행자들의 일탈행위는 우리들의 영혼마저 메마르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되었다.

한때 종단의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남부럽지 않은 존경과 공양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한편으론 이런 사람이 종단의 지도자였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을 어른으로 모셨던 우리에게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 양심을 가장한 거짓된 말로 대중을 선동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는 수행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다. 사회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한다한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물론 조직의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은 법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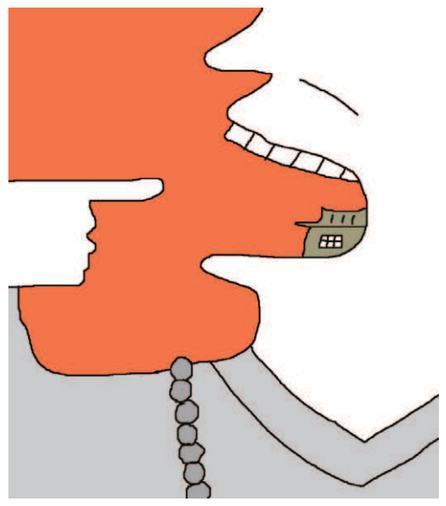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장받아야 한다. 이를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그러나 수행공동체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성립될 수 없다. 왜냐면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계율이 있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금계를 범한 사람은 율장에 의거해서 판단하면 되고, 현행종법에 따라서 규정하면 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대중의 힘으로 자정해 온 것이 수행공동체의 특징이다.

언론에 비친 수행자의 양심고백은 일반사회의 양심고백과 너무도 다르다. 과연 수행자에게 양심과 비양심의 양극단이 허락되는 것일까. 욕망의 양심고백을 하는 수행자는 스스로 수행자라는 것을 망각했거나 이미 수행자의 지위를 스스로 저버렸다. 사회법에 고소고발하거나 언론방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언제나 가련하다.

걱정이다. 오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종단에서 양심을 가장한 욕망의 폭로가 빈번하게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포교현장은 깊은 시름에 젖어들 것이 뻔하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신도들 볼 면목이 없다. 늘 신도들과 함께 하는 소임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요즘 스님들은 왜들 그러신데요'라고 묻는 이에게 헛웃음만 보내게 되는 게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한 폭로는 승단을 분열시키고, 종단을 나락으로 빠뜨린다. 더 나아가 한국불교의 미래마저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내부고발인양 자행하는 폭로는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破和合僧) 어리석은 짓이다. 아니 어쩌면 승단을 깨뜨리는 일보다 더 큰 죄와 빚은 신심으로 믿고 따르며 공양하는 단월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다.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인내의 긴 한숨 얻은 수입의 일부를 정성스레 공양하는 마음, 굽은 허리로 주름진 손을 모으고 삼보전에 하염없이 절을 올리는 노보살의 그 믿음을 어찌 등질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출가자의 길을 걷는 이라면, 처음 발심해 출가했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전도의 길을 나섰던 붓다처럼. 당신 아픔보다는 아파하는 중생으로 더 아파하던 붓다의 자비심.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포 불국사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태국 방콕 교외 지역에 생긴 불교전용마트. 카트에 불상, 승복, 서적 등 불교용품을 담아 쇼핑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이다.

카트끌며 향·승복 구매… 품목만 100만 가지

태국, 7천여평 대형 불교마트 스님들에 인기

주황색 가사를 똑같이 맞춰 입은 스님들이 저마다 카트를 밀고 쇼핑하는 모습. 상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태국 방콕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 돼 버렸다.

태국어로 승려용품이란 뜻인 '항상카판(Hang Sangkapan)'은 태국에 있는 불교용품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창고형 상점이다. 양초, 불상, 제단, CD, 서적 등 스님들을 위한 온갖 물품이 진열돼 있으며 판매하는 품목만 해도 100만 가지 이상이나 된다. 합성섬유로 만든 3만원 가량의 승복부터 수십만원 하는 고급 승복까지 종류도 여러 가지. 때문에 매장에 들르면 한 시간 쇼핑은 기본이다.

손자의 사미계 의식에 필요한 용품을 사러 나온 할머니부터 승려, 재가자까지 고객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토요일마다 이곳을 방문한다는 프라 솜왕 군콕크루에드는 "진짜 마트에서 쇼핑하는 기분"이라며 "양초, 향, 승복 등 불교용품을 이처럼 편리하고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도 못했다"며 반색했다.

항 상카판을 처음 연 사콜 상말리는 몇 해 전 스님들을 위해 단체 용품을 구입하려다 여러 군데를 헤맨 경험을 떠올려 '스님전용마트'를 열게 됐다. 한 번에 다양한 품목의 대량 구매가 가능한 마트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주차 공간은 물론 에어컨까지 고객 서비스에 주력한 것도 이전 불교용품상점과 차별화된 점이다. 운영방식도 마트와 똑 닮았다. 회원카드를 도입해 5% 할인은 물론, 전화로 주문 받은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기도 한다. 매번 매장 방문이 어려운 지방 손님들을 위한 배려다.

스님 전용마트가 생길 수 있었던 건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6천5백만 인구 가운데 불자가 6천1백만 명이나 되는 태국은 현재 승려만 해도 30만 명이다. 게다가 남성들은 일생에 한 번은 절에 들어가 2~3주 동안 승려 생활을 해야 한다. 꾸준한 수요와 고객층이 보장된 안정적 시장이다 보니 색다른 시도가 통했던 것. 또한 지난해 카시콘은행 산하 카시콘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불교용품 시장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6백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불교용품 시장이 경기를 잘 타지 않는 분야라는 점을 떠올리면 7천여평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불교학, 현대사회와 접목할 수 있어야"

불교학 최대 지원, 홍콩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
불교학 관련 교수 · 연구자 190만 달러 지원

서양 불교학계 발전에 재정적 산파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 곳을 꼽자면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하흥의가족기금何鴻毅家族基金, 이하 재단)'이 단연 으뜸이다. 일명 '호의 아버지(Mr. Ho's father)'로 불리는 이 지원 재단은 2005년 로버트 H. N. Ho에 의해 설립되어 불교학 연구 분야와 중국예술 및 문화 분야 지원에 힘쓰고 있다.

〈뉴욕타임즈〉 지는 7월 27일 "지원 재단은 하버드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코톨드(Courtauld) 미술연구소(런던 소재) 등에서 운영하는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미국 교육학회 운영위원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측에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학 관련 교수와 연구자 지원 기금 190만달러를 전달했다"도 전제하고, 재단 이사장 로버트 Y.C. Ho와의 인터뷰를 게재해 주목된다.

〈뉴욕타임즈〉 지는 로버트 Y.C. Ho의 말을 인용, "불교학을 현대사회와 접목하는 데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게 지원 재단의 궁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Y.C. Ho는 지원 재단을 설립한 로버트 H. N. Ho의 장남이다. 다음은 인터뷰를 번역한 내용이다.

◇ 불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로버트 Y.C. Ho: 할머니 클라라(Clara) 여사는 1935년 홍콩에서 '퉁린 콕 위엔(Tung Lin Kok Yuen) 사원'을 세운 뒤 홍콩과 캐나다 두 곳에 각각 불교자선단체를 설립하셨을 정도로, 불교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부친 로버트 H. N. Ho가 2005년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불교학 분야와 중국예술 및 문화 분야의 지원에 주목했던 것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부친은 특히 중국예술 및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중국예술과 문화의 고전성, 전통성에 깊이 몰입했고, 그것에 현대성을 불어넣는 연구와 작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불교학은 현재보다는 과거와 더욱 밀접해 있는 듯합니다. 그런 불교를 오늘의 시점으로 연구하고 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로버트 Y.C. Ho: 불교학은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기록된 옛 문헌 자료를 연구하는 탓에 '고리타분하다'는 인상을 떨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는 옛 문헌 자료를 읽고 토론한다는 게 과연 현대 사회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소장학자들은 불교를 새로운 분야와 접목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와 정치, 불교와 환경, 분쟁 해결, 불교와 심리학 등입니다. 로버트 H. N. Ho Family Foundation의 지원은 후자, 즉 '동시대와 접목된 불교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원 재단은 해당 분야 연구 풍토가 비옥해지고, 그 성과물이 동시대인의 삶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재단의 지원이 동양과 비교해 서양의 대학과 연구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 로버트 Y.C. Ho: 지원 재단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연구 평가 외에도 그 연구가 동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하는 '현대성'도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형' 연구소가 대부분인데, 이 점이 지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다른 경우입니다. 태국과 스리랑카 등지에는 소위 '불교대학'이라는 연구소들이 있지만 대부분 중세 인도 사원에서 전래된 연구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콩에서는 불교예술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대학에 '불교학 연구센터(Buddhist Studies Center)'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의 설립자인 로버트 H. N. Ho.(좌)와 그의 아들인 로버트 Y.C. Ho(우).

◇ 홍콩의 불교예술과 문화 분야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로버트 Y.C. Ho: 홍콩 지방정부는 '중앙(중국)과 지방(홍콩)을 회통하는 예술 · 문화의 허브'로서 홍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원 재단은 '회통의 키(key)가 불교'라는 데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는 로버트 H. N. Ho Family Foundation이 '전통의 불교 영역을 확대하고, 여기에 불교의 대중화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분야나 예술 · 문화 분야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요가' 넘어 불법 알린다

美 콜로라도 포크벨리에 피어난 법향


미국 콜로라도에서 불교공동체를 운영하는 폴라 발렌티 재가법사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경제도시로 주목받는 콜로라도 그렌우드 스프링스(Glenwood Springs)에서 법향이 피어나고 있다.

〈포스트 인디펜던트〉 지는 7월 27일 "자유주의 불교(liberal Buddhism) 성향의 '소로승가(Thoreau sangha)'나 유니테리언(Unitarian) 성향의 불교공동체 등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불교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3년 전 이곳으로 이주한 재가법사 폴라 발렌티(Paula Valenti)가 전통의 불교를 소개하며, 지역 주민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렌우드 스프링스에서 불교는 명상, 침술, 요가 등 다양한 방법에서 하나의 단편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발렌티는 "그 보다는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불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포교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발렌티는 포크 벨리를 중심으로 그렌우드 스프링스와 카반데일(Carbondale) 두 곳에서 불교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렌우드 스프링스에는 매주 2차례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있고, 카반데일에서는 매주 수요일 고원에서 야외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그렌우드 스프링스의 벨투스 공원(Veltus Park)에서 불교축제를 개최, 지역 주민의 이목을 잡기도 했다.

또한 "불성은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삶 고유의 개념"이라고 강조한 폴라 발렌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인 그렌우드 스프링스 불교공동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상, "세우지마" VS "세우게 해달라"

네팔 스님들 사원건축 반대에 시위나서

네팔에서 스님들이 도로 점거 시위에 나섰다. 현지시간으로 7월 29일 사원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며 승려들과 지지자 100여 명이 카트만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네팔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은 "네팔은 부처가 태어난 곳이다. 불상 세우는 걸 허하라"고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네팔 정부 당국은 히말라야 남쪽 수르켓(Surkhet) 지역에 5미터 크기의 불상과 사원에 대한 건축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지역은 고고학자들이 10년 전 불상과 비문을 발굴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부처가 태어난 룸비니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네팔 불교 연합 부회장인 뿌푸 켐베 세르파는 "정부가 사원 건축 불허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더 큰 규모의 시위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전개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날 시위로 카트만두 시내 교통 운행이 두 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다.

배현진 기자


네팔 스님과 불자 100여 명이 카트만두 시내에서 사원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정부에 항의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제2기 지도사 과정 모집 (1급, 2급)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인성,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2급 : 10~11월 60시간 ▶1급 : 11~12월 60시간
워크숍, 교재, DVD, 교육 참관, 자격증 수여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

현대불교신문과 불서총판운주사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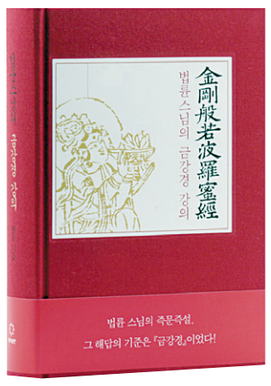
여름에 읽고 싶은

불서도서 BEST

인터넷 불교서점 붓 다 북
www.buddhabook.co.kr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 및
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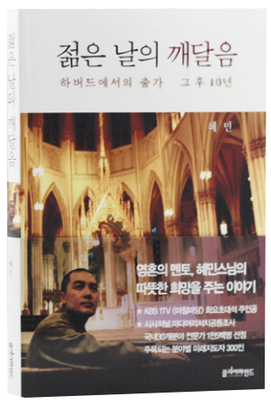
공감과 깨달음의 화법, 금강경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그 해답의 기준은 '금강경' 이었다!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즉문즉설 강연과 〈기도〉〈깨달음〉〈스님의 주례사〉 등으로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의 경전강의 시리즈 새 책이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전을 법륜스님 특유의 명쾌한 화법으로 알기 쉽게 풀이했다.
이 책은 법륜스님이 금강경에 대해 여러 차례 법문한 것을 모으고 다듬어 새롭게 엮은 것이다. 깊은 고뇌의 대중들과 나눈 문답, 스님이 수행생활을 하며 겪었던 일화 등 지금 내 삶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를 통해 지금 살아 숨 쉬는 경전이 되게 한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새롭게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륜스님 지음 | 139×194mm 양장 | 551쪽 | 값 27,000원 정토출판사

젊은날의 깨달음

(하버드에서의출가그후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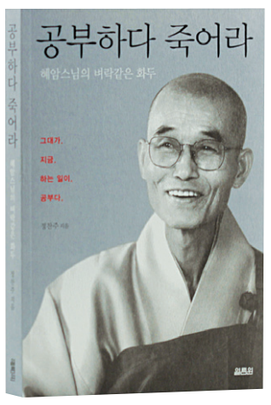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 교수인 혜민스님의
출가 10년을 담은 책. 미국 최초 한국인
스님교수가 묻다. "하버드 나오면 뭐가 좋은데?"

이 책에는 스님이 어려운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 북경에서 살 때 자전거를 도둑맞고 쓴 이야기, 실연당한 도반을 위로하기 위해 쓴 에세이, 뉴욕 은사 스님 절에서의 이야기 등 승려가 된 후 겪게 된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들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스님은 일류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학력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것보다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따뜻한 에세이집이다.

혜민스님 지음 | A5변형 | 254쪽 | 값 13,000원 클리어마인드

공부하다 죽어라



무슨 일이든 죽을 각오로 임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공부다.

혜암스님이 정진했던 가야산,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영축산 등을 가서 스님의 삶을 거울삼아 저자의 인생을 반조해보는 틀로 써내려간 산문을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늘 '공부하다 죽어라' 라고 법문하기로 유명했던 혜암스님의 말씀을 화두로 삼아 무아를 체험하는 수행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이 나를 알고 인생을 아는 데 지름길이라고 했던 스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다.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에 목숨 바치듯 정성을 다하는 것이 참 공부라고 가르쳤던 혜암스님의 참뜻을 알고 온몸을 바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삶의 행복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정찬주 지음 | A5 | 255쪽 | 값 13,500원 열림원

벽 암 록 (완역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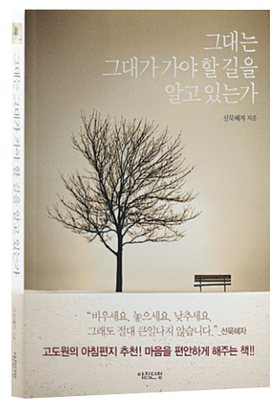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공안집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벽암록' 은 가장 뛰어난 공안에 대한 책이자, 심오한 선(禪)의 정수가 담겨 있다.
기존의《벽암록》번역은 대부분 수시(垂示) · 본칙(本則) 정도만 번역했다. 석지현 역주《벽암록》은 그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은 완역본(完譯本)이다. 벽암록 완역(完譯)은 국내 최초이다. 이 책은 번역 기간만 10년, 출판 기간 3년 걸린 책이다. 이 책은 원문에 토(吐)를 달고 번역과 해설을 붙였다. 그리고 평창과 착어까지 모두 번역했고 해설까지 달았다. 이본(異本)을 대조하여 원문에 대한 교감(校勘)을 했으며《벽암록 속어(俗語) 낱말 사전》을 첨부하여 독해에 절대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쉬운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이 '속어 낱말사전' 을 참고해가며 혼자 읽을 만하다.

원오극근 지음 석지현 역주 해설 | A5신양장 |
각권 500쪽 내외 | 값 145,000원(세트) 민족사 펴냄

그대는 그대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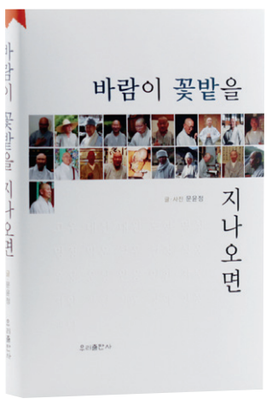


비우세요, 놓으세요, 낮추세요.
그래도 절대 큰일나지 않습니다.
선묵혜자 스님이 지친 영혼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

이 책은 가야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선묵혜자 스님의 따뜻한 인생 잠언집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는 습관 때문이라는 혜안이 담겨 있다. 비우고, 놓고, 낮추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강렬한 깨달음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잔잔한 감동을 남겨준다.

선묵혜자 스님 지음 | A5 | 247쪽 | 값 14,000원 아침단청

바람이 꽃밭을 지나오면



문윤정이 찾은 산사의 스님,
지족을 가르쳐 준 선지식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지표가 되고 지남이 되는 선지식 스물한 분을 모신 책이다. 출가자로서 치열하게 수행에 수행을 더하신 분들이라 스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가뭄 속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다. 생이 긴 여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선지식들의 셈범은 달랐다. 빠름이 아닌 느림을, 풍족이 아닌 지족을 가르쳐 주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다.

"산사로 가는 길은 즐겁다.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마음마저 둥글어지는 느낌이다"

문윤정 지음 | A5 양장 | 293쪽 | 값 13,000원 우리출판사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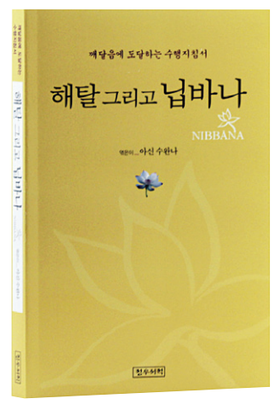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불조정맥 제 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놓았다. 특히 부처님 당시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불법의 열반상을 정리한 책이다. 인도편 성현님들의 열반이 너무 뛰어나 현대인들에게는 실화가 아닌 신화나 전설, 신비로만 비춰질 우려가 있어 가장 가까운 시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져 생생한 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열반상부터 싣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의 역순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 저 | A5 | 446쪽 | 값 15,000원 바로보인출판사

해탈 그리고 닙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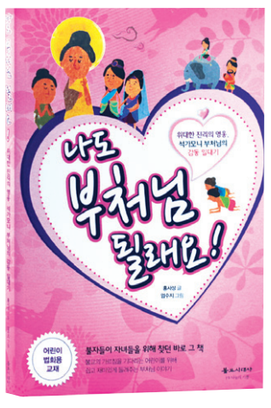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

무엇보다도 이 책의 특징은 읽기와 이해하기가 편리하며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 휴대하기도 좋다. 많은 경전을 염송해야만 수행을 잘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편안한 가운데 책을 읽고 제시하는 수행의 단계대로 스승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면 된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 보지도 않고 말하는 외도의 사설에 불과하다. 중간 중간에 '착하고 건전하게' 라는 꾸살람에 스님께서 터득한 진리를 격언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마음의 평정을 얻어 고요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구,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값 8,000원 정우서적

나도 부처님 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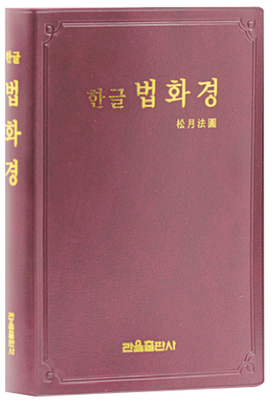


위대한 진리의 영웅,
석가모니 부처님의 감동 일대기
불자들이 자녀들을 위해 찾던 바로 그 책

이 책은 올바른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일생을 쉽고 재미있게 엮었다. 한 단원씩 52주 동안 꾸준히 공부하면 금방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느끼게 될 것이다. 첫째 달은 전생과 탄생, 둘째 달은 어린시절, 셋째 달은 출가, 넷째 달은 고행, 다섯째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는 사람들마다 근기에 맞는 설법으로 전도 및 교화하시는 내용들로 12달 52주 동안 한 단원씩 공부하도록 배우도록 꾸몄다.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를 ...
불교 공부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해야만 이루어진다.

홍사성 지음 | A5 신국판 | 160쪽 | 값 10,000원 불교시대사

한글 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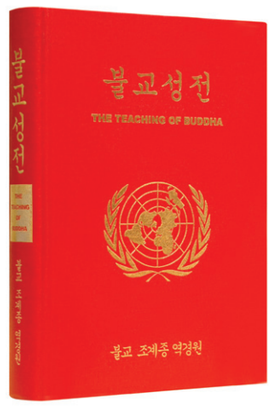
一大事 因然

법화경은 불성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 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송월스님 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값 20,000원 관음출판사

불교성전



부처님 말씀의 정수를 뽑아 엮은 책 !!!

부처님, 가르침, 계행, 도반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내용이 충실하고 문장도 쉽고 평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책 앞쪽은 한글로 기록하고 책 뒤쪽은 영문으로 실어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부록에는 불교통사, 생활 색인, 용어 해설, 증지부 등이 수록돼 있다. 제1편 부처님편에서는 1장 역사 속의 부처님, 제2장 영원의 부처님, 제3장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덕 으로 구성 되어 있어 쉽게 부처님의 생애를 접할 수 있고 제2편 가르침편에서는 인연, 사람의 마음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깨달음의 본질, 번뇌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 후 마지막 부처님의 구원에서는 부처님의 서원 및 정토로 이어지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조명하였다. 제3편 계행은 깨달음의 길과 실천의 길로 계를 각 경전을 바탕으로 고증하여 계율의 중요성을 설하였다. 제4편 도반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 와 생활 지침을 경전에 의거해 설명해 놓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면 삶이 풍요해 짐을 밝혀 놓았다. 마지막 제5편 불국토에서는 부처님의 나라와 부처님 나라를 지키는 자 를 통해 불국토를 말하였다.

혜인 스님 편저 | A6변형 양장 | 658쪽 | 값 15,000원 불교조계종
문의 02)511-2026

나의 선지식 엄마의 사계절



정념선원 도정 원장이 쓴 우리 시대의 '부모은중경'

'우리 시대의 효경이자 부모은중경' 으로 권해드리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된 가족의 의미를 되살려 효도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 정병국 국회의원

도정님이 쌓아온 수행의 길 25년, 아흔의 엄마를 향한 효 실천 수행의 3년은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참 수행의길, 생활 속의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이다. – 민병두 국회의원

"투병 중에도 염불 독경하던 아흔의 엄마는 나의 선지식이자 관세음보살님이었다"

도정지음 | 신국판 | 152쪽 | 값 10,000원 비움과소통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금하광덕 스님의 구도 문답집
초심 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의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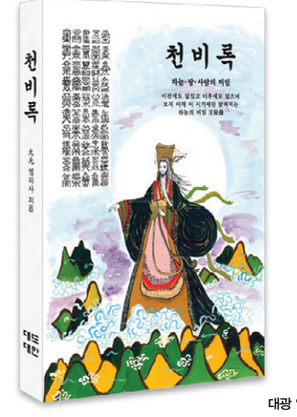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 부처님, 보살, 교리, 수행, 보시 · 전법, 생활, 기도, 참선,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20여 종의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혜, 용기를 불어넣어 삶의 등불이 되는 〈불교 입문의 결정판!〉

금하광덕 지음 | A5 | 352쪽 | 값 12,000원 불광출판사

천 비 록

(하늘 땅 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땅 사람의 비밀 천비록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혀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도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대광 엘리사 지음 | 신국판 | 226쪽 | 값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옛절터 유물서 안양의 역사를 읽다

안양사지 출토 유물 150여 점 공개…8월 26일까지



'천년고찰의 고즈넉함을 거닐다 – 안양사지 출토 瓦 특별기획전' 이 8월 26일까지 안양역사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연화문수막새(사진 왼쪽)과 보상화문수막새.

고려시대 명문기와의 美 한눈에
백자연봉편 등 상징 유물도 눈길

안양문화예술재단은 8월 26일까지 안양역사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천년고찰의 고즈넉함을 거닐다 - 안양사지 출토 瓦 특별기획전' 을 개최한다.

이는 안양사지 개관 예정인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계획에 앞서 발굴조사 된 안양사지 출토 유물을 공개하는 최초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통일신라후기에서 조선시대까지 150여점의 출토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안양의 지명유래로 전해지는 안양사(安養寺) 명문기와를 중심으로 고려기와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제나발편, 백자연봉편 등 사지를 상징하는 유물과 각종 도자기편 등 시기별 유물들도 함께 전시된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사가 존속했던 시기를 직접 확인하는 등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안양사지 출토 기와들의 시기별 특징과 발굴과정을 소개 안양의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전시의 내용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관련 영상강의와 안내자의 상세한 설명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매주 토요일에는 '교과서속 문화재 이야기-기와' 라는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유료교육도 진행된다.

안양문화재단은 "그동안 한정적으로만 알았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안양사지 출토 유물을 사전 공개해 안양사 부지에 건립예정인 공립박물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031)687-0546 **정혜숙 기자**

클래식으로 전하는 '동체대비 사상'

해설이 있는 JK챔버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8월 11일 예술의 전당서



JK챔버오케스트라의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가 8월 11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이 공연기획사 아카사엔터테인먼트를 창립 총괄감독을 맡은 첫 공연이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 오늘이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런데 모든 것이 막연하기만 했던 어린시절은 타임머신을 타고 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꿈꾸지 않았는가? 새벽을 맞기 위해서는 어둠을 견뎌야 하고 봄을 맞기 위해서는 겨울을 견뎌야 하듯이 인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삶의 거름이 되는 것이다.

JK챔버오케스트라의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는 청소년을 위한 스토리텔링 음악회다. 연주와 해설이 함께하는 이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지혜를 선사하며 클래식의 감동을 전해주고자 기획됐다. 8월 11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릴 이 공연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힐링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다.

불교계가 이 음악회를 더 주목하는 이유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이 아카사엔터테인먼트를 창립 총괄감독을 맡고 JK챔버오케스트라의 이름으로 일반 대중을 위해 여는 첫 공연이라는 점이다.

강 단장은 "음악계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김의명 선생님이 이끄는 JK챔버오케스트라와 손잡고 시작하는 첫 공연이에요. JK챔버오케스트라는 청소년 공연으로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거는 기대가 커요. 요즘 청소년들은 왕따 학교폭력 자살 유혹 등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아카사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첫공연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진정한 힐링이 되었음 합니다."

연주자들의 인생고백 무대 등
스토리텔링으로 관중과 교감
지휘 김의명 등 감동의 무대 선사

공연의 해설은 단순한 음악적 해설을 넘어 '공감과 감동' 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유지연 씨의 해설은 색다른 무대를 마련할 것이다. 강 단장은 "음악인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해요. 유지연 씨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듯이 전해준다면 또다른 공감을 불러 일으킬 거에요."

또 가야금을 연주하는 시각장애인 김태욱(초등 6) 군의 사연도 무대에서 펼쳐진다.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본인도 장애를 가졌지만 가야금 연주자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에게 전해준다.

강 단장은 이들의 삶이 곧 수행이고 법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과정을 보려하지 않고 화려한 결과만 보잖아요. 그 힘든 과정 속에 정말 진실이 담겨 있는데 말이죠.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인내와 인고의 과정을 거쳐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곧 동체대비의 사상이죠."

이밖에도 영화 앙상블 상영, 연주곡과 관련된 유럽의 장면들이 영상으로 오버랩되는 등 공연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켜 줄것이다.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클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음악감독과 지휘는 세계적인 음악가 김의명(한양대 음대 명예교수) 씨가 맡았고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솔로연주를 한다. 리코더는 국내외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권민석이 참여한다. 여기에 KBS콩쿨 통영 국제 음악제 연주상을 받은 부윤정과, 차이코프스키 국제음악 콩쿨 2위에 빛나는 이상은(첼로)의 첼로 듀엣 협연은 음악회의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할 것이다.

앞으로 JK챔버오케스트라는 2014년 금호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는 청소년음악회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으며 통영국제음악제(2014년) 공연도 참가할 계획이다. 또한 〈숫타니파타〉에 곡을 붙인 연가곡으로 독일 베를린 연주를 해보는 것도 장기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157-077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낙산사와 현대작가와의 만남

'관동팔경Ⅱ-양양 낙산사'



참여작가 박동국의 '수2'

낙산사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낙산사 빈일루에서 열린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지난 5월 박물관서 개최된 '관동팔경Ⅱ-양양 낙산사' 전시 가운데 현대 작가들의 작품만을 모아 8월 18일까지 순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원 예술가들과 강원서학회 회원들이 낙산사를 탐승하고 완성한 결과물을 만날 수 있다. 시와 그림, 사진으로 형상화된 관음의 성지 낙산사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시는 김광희 외 24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최선주 관장은 "낙산사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감상하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은 철학적 미학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출과 월출의 명소로서 낙산사를 새롭게 느끼고 작가들의 섬세한 서정성과 내면세계까지도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33) 260-1521

정혜숙 기자

문화재 관람하며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국립경주박물관 1박 2일 무료 프로그램



백률사 금동약사불, 고선사터 3층석탑, 성덕대왕신종 등 학생들이 우리 문화재를 관람하며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의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박 2일' 이 8월 11일 열린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에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문화재 보존수복실, 학예연구실 등 박물관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학예연구사 이지원 씨는 "박물관의 보물창고인 수장고를 견학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박물관장을 비롯한 학예연구사와 대화도 나누고, 전시실에서 문화재와 함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 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여학생 25명, 남학생 25명)까지 접수받는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연꽃에서 태어난 스승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초잉 돌마의 '마음의 평화 2집' 발매



아니초잉 돌마의 '마음의 평화 2집' 이 한국에서 발매됐다. 전세계에서 100만장 이상의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1집에 이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이 앨범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전해줄 것이다.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네팔의 국민가수로 지칭되는 비구니 스님 아니 초잉 돌마의 음악은 기도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스님의 챈팅은 우리를 평온과 치유로 인도하며, 마음의 평화와 무한한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연꽃에서 태어나신 스승님께 드리는 기도' '구루 린포체께 드리는 7행 기도' 등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특히 '연꽃에서 태어나신 스승님께 드리는 기도' 는 〈티베트 사자의 서〉 저자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에게 바치는 기도문이다. 파드마삼바바는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와 지혜의 완벽함을 상징하며, 구루 린포체(Guru Rinpoche: 존귀하신 스승이라는 뜻)로도 불린다. 1661-3164

정혜숙 기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절 258㎜×265㎜

200부 이상 @ 1,000원
2천부 이상 @ 900원
3천부 이상 @ 800원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호수	품 명	규격/정가	임시할인가
1호	기운생동 달마도	6절 (6종) 1,900원	1,3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500원 ※ 2000부 주문시 1,200원 ※ 3000부 주문시 1,100원	20호	동승일기	미니 (6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 2000부 주문시 400원
2호	붓다의 메아리			21호	마음이 머무는 곳		
3호	산사로 가는길			22호	연꽃향기		
4호	연향이 머무는 곳			23호	천진불		
5호	차 한잔과 휴식			24호	향기로운 꽃		
6호	천진미소			25호	들에도 꽃이 피네		
7호	가람의 향기	12절 (13종) 1,600원	1,00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1,200원 ※ 2000부 주문시 900원 ※ 3000부 주문시 800원	26호	나를 다스리는 말	수첩 (5종) 800원	6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800원 ※ 2000부 주문시 600원
8호	관음도			27호	아름다운 꽃		
9호	기달마도			28호	천진동자		
10호	동자승의 하루			29호	청정		
11호	물소리 바람소리			30호	그리운 산하		
12호	반야동자			31호	마음에 핀 연꽃[비닐]	차걸이 (4종) 800원	450원 (200부 이상) ※ 100부 주문시 600원
13호	반야심경			32호	마음에 핀 연꽃[홀더]		
14호	부모은중경			33호	신비의 달마도[비닐]		
15호	부처님 마음			34호	신비의 달마도[홀더]		
16호	세계의 명찰			35호	우리도 연꽃같이	2,400원	1,500원(200부 이상)
17호	연꽃이 있는 풍경			36호	행복한 하루	2,400원	1,500원 (200부 이상)
18호	자비의 향기			37호	행복으로 가는 길	3,000원	2,400원(100부 이상)
19호	차 한잔의 여유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사유상의 '미륵' '반가' 호칭 부적절한 단어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미륵보살사유반가상(彌勒菩薩思惟半跏像) → 사유상(思惟像)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포즈

인간이면 누구나 사유한다. 사유해야 인간의 존재이유를 추구할 수 있다. 사유야말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이며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해야 한다. 사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요,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사유한다'는 것은 '철학한다'는 의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른 시기에 사유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불상조각이나 불상회화가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현상이다.

싯다르타 태자는 인간의 삶 속에서 충격을 받을 때 마다 사유의 자세를 취한다. 밭을 갈 때 쟁기에 튕겨나오는 애벌레를 작은 새가 채가고 그 작은 새를 다시 독수리가 채가서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광경을 보고 깊은 사유에 빠진다. 또 왕궁을 떠나 찬타카와 칸타카를 되돌려 보내고 나서 출가할 때에도 깊은 사유에 든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는 사유의 자세를 취한다. 싯다르타 태자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러하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 위에 두고 그 구부린 무릎위에 팔꿈치를 대고 그 손으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는 얼굴의 턱을 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경배의 대상인 절대자의 모습은 아니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모습의 불상에는 태자상(太子像)이나 사유상(思惟像)이란 명문(銘文)이 있을 뿐, 굳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기지 않았다.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태자상이라는 명문이 있어서 싯다르타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모든 상이 그렇지 않아 단정 짓기도 어렵다. 중국의 불상에는 대체로 명문이 많은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사유상 명문에서는, 태자사유상(太子思惟像, 太和 16년銘 등), 사유상(思惟像, 正光5년銘 등), 사유불(思惟佛, 北魏 삼존불石像), 사유일구(思惟一軀, 興和 2년銘), 백옥상(白玉像, 白玉龍樹思惟像(武定5년), 태자상(太子像, 天保4년銘) 심유불(心惟佛, 大通 元年, 西魏 碑像) 등으로만 명시하여 있다. 그 가운데 태자상과 사유상이 가장 많다. 광배의 상주(像主, 邑子)들 가운데 미륵불주(彌勒佛主)와 사유불주(思惟佛主)를 별도로 병기된 것으로 보아 사유상을 미륵불로 단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상조각 가운데 국보 78호인 금동사유상과 국보 83호인 역시 금동사유상 등 인간이 만든 위대한 작품들이어서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 걸작품들이 거의 원상 그대로 지금까지 전하여 왔다는 것은 하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만큼 기적적인 일이다. 그 밖에 돌로 만든 사유상이 있고 바위에 새긴 마애불(磨崖佛)이 있고 동으로 만들어 도금한 금동사유상 등 사유상은 특히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매우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그 특이한 자세인 불상을 누구라고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다. 구태여 말한다면 싯다르타 태자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든 국보 두 작품을 모두 '미륵보살사유반가상(彌勒菩薩思惟半跏像)'으로 명명하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왜 미륵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또 '반가(半跏)'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모두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학자의 오류 그대로 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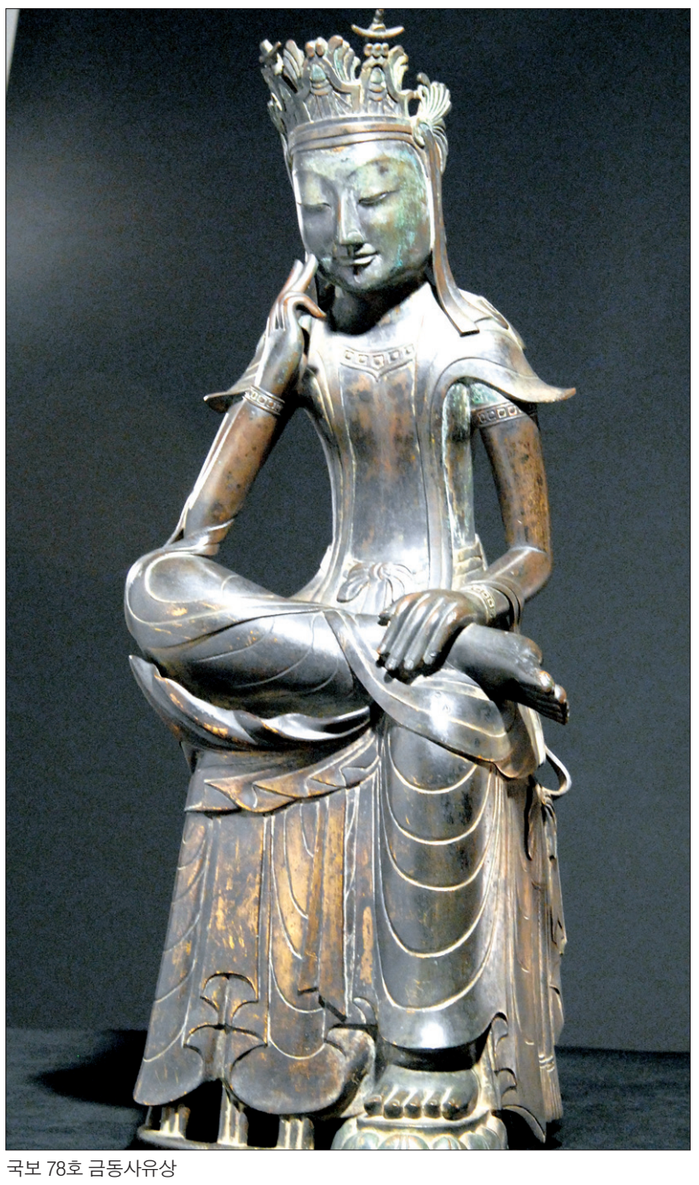
동양 삼국 가운데 이러한 자세의 금동불상에 미륵보살이라고 새겨놓은 예는 오직 하나뿐이다. 나는 그 작품을 오사카 근처의 야쭈지(野中寺)에서 조사한 바 있는데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으며 위작인지 의심이 갔었다. 그런데 어느 일본학자가 명문을 검토한 결과 명문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위작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위작(僞作)인 야추지 사유상이나 일본의 문헌 등을 미루어 우리의 사유상을 미륵보살이라 부르게 된 경향이 생겼는데, 이제부터는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서 미륵이라 입증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석가보살과 미륵보살은 모두가 보리수 밑에서 사유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6억7000만 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이라 하는데, 왜 하필이면 56억년 후일까? 그렇다면 미륵불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석가모니불이 영원한 부처님인데 구태여 미륵불이 다시 올 리 없다. 그리고 설혹 미륵보살이 존재하더라도 성불하리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뒤 도솔천에 올라가 현재 천인(天人)들을 위해 설법하고 있다고 하므로 현재의 보살이다.

미륵보살이란 석가보살의 다른 이름이어서 사유상이란 이처럼 이중(二重)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태여 말하자면 석가보살과 미륵보살이라는 두 성격의 보살상이 사유상에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 〈사유상〉이라 불러야 하며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단정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반가'라는 말을 검토해보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결가부좌(結跏趺坐)란 자세를 취할 수 없다. 결가부좌란 무엇인가. 의자 위가 아니라 아래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여 앉는다는 말로 두 발바닥이 모두 위를 향하도록 앉는 수행자의 자세이다. 모든 여래와 보살이 취하는 자세이다. 참선할 할 때에는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나 신체적으로 반듯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결가부좌를 틀어야 한다. 그런데 사유하는 상은 의자에 앉아서 취하는 자연스런 자세여서 결가부좌를 틀 수 없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반가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어찌 한 다리를 다른 다리의 무릎에 놓는데 반가란 말인가! 한 다리라는 말은 있어도 반쪽짜리 다리는 장애자의 다리일 수는 있다. 일본학자가 만든 반가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미륵이라는 특정한 존명도 피해야 한다. 무릇 모든 인간이 취하는 영원한 보편적인 자세로 사유하는 거룩한 모습일 뿐이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국보 78호 금동사유상

藥이 되는 사찰음식

눈과 입으로 즐기는 한 입 음식 김밥 · 초밥

우엉 당귀 · 두부 김밥

△재료(4인 기준)

우엉당귀김밥

밥 4공기, 김 4장, 우엉 100g, 당근 30g, 청량고추 2개, 깻잎 12장, 당귀 50g

조림장 - 간장 1큰술, 청장 1큰술, 맛국물 1/4컵, 조청 2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두부김밥

밥 4공기, 우엉장아찌 4줄, 당근 4줄, 단무지 4줄, 오이 4줄, 두부 1/2모

△만드는 법

① 우엉당귀김밥의 소 재료는 가늘게 채 썬다.

냄비에 맛국물과 간장, 청장, 조청을 넣어 살짝 졸인 후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조림간장을 만든다.

프라이팬에 약간의 식용유를 둘러 우엉, 당근, 청량고추를 넣어 볶다가 조림간장을 넣어 수분이 없도록 볶아 식힌다.

② 밥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후 김에 얇게 펴고 깻잎에 졸인 야채를 넣고 당귀와 함께 돌돌말아 어슷하게 썬다.

③ 두부김밥의 소는 사방 1cm 정도의 굵기로 썬다. 두부는 소금으로 밑간을 한 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고 우엉은 초절임 장아찌를 사용하거나 맛국물에 부드럽게 졸여낸다.

④ 김에 밥과 5가지의 소를 넣고 돌돌 말아 썬다.

모둠 초밥

△재료(4인 기준)

○ 밥 4공기, 배합초 3큰술, 배합초(식초 2큰술, 매실액 2큰술, 소금 1작은술)

○ 각색 파프리카, 단호박, 버섯, 오이, 다시마, 케일, 양배추, 호박잎, 배추속대 등

○ 약고추장, 견과류 쌈장 약간

△만드는 법

① 밥을 지을 쌀은 빡빡 문질러 충분히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황귀 우린 물에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은 후 밥이 뜨거울 때 배합초를 넣어 골고루 섞어 식힌다.

② 버섯, 파프리카, 단호박은 얇게 저며 썰어 구운 후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한다.

쌈 재료는 찜솥에 쪄서 준비한다.

③ 밥을 초밥 형태로 쥐어 재료를 얹고 김으로 띠를 두른다. 쌈밥에는 약고추장이나 견과류 쌈장을 넣어 한 입 크기로 싼다.

김밥의 핵심은 '밥'

요즘처럼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는 먹는 것 마저 힘들질 때, 한 입에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보기에도 좋은 김밥이나 초밥으로 입맛을 살려보자. 김밥의 핵심은 밥이다. 때문에 쌀은 많이 문질러 씻어 지어야 입안에 넣었을 때 고슬고슬하니 사르르 퍼지는 느낌을 즐길 수 있으며 땀을 많이 흘려 기력이 딸리는 여름철엔 황기 우린 물로 밥을 짓게 되면 담백하면서도 기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하게 되면 고소한 맛이 좋고, 새콤 달콤 배합초로 간을 하게 되면 입맛을 돋궈주고 쉽게 상하지 않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당귀는 하늘이 내려준 신약이라 불릴 만큼 여성에게 좋은 식품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다. 당귀잎은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여름철 기가 허해질 때 달콤 짭쪼롬 매콤하게 졸인 우엉과 함께 김밥을 싸서 먹게 되면 그 맛에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다. 쌈밥은 배합초 간을 하여 담백하게 먹어도 좋으나 약고추장이나 쌈장을 넣어 먹는 것도 깔끔한 맛이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1평 미니법당
(대웅전과 지장전)

부처님께서 감응하시어 장엄불사 했습니다.
모든 불자님께 알려서 친견 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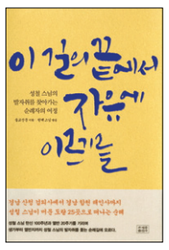
- 나무석가모니불 -



卍 대한불교 조계종 새로운 하얀마음선원(백심사)

전화 031)707-010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

또 다시 들려오는 '산은 산, 물은 물'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불교신문 기획
원택 스님 엮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6천원



성철 스님〈사진〉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순례기다. 생가부터 시작하여 열반지까지 스님의 주석처 25곳을 돌아봤다. 불교신문에 '성철 스님의 자취를 찾아서', '성철 스님과 나의 법연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기획기사를 수정하여 다시 엮은 것이다. 두 기획기사는 2012년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6년간 출가 수행자 신분으로 성철 스님을 모신 바 있는 이진두 논설위원이 집필을 맡았다.

"젊었을 때 사상적으로 이리저리 헤매다 불경을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참선하려고 대원사를 찾아갔지. 그때 대원사 탑전이 참 좋았어. 그래 거기 들어가 좀 있었지. 그런데 주지가 그걸 보고 펄쩍 뛰어. 본시 탑전이란 데가 스님들만 있는 곳이지 속인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한판 했지. 너거들은 절에서 처자식 거느리고 살림 다 살고 떡 장사도 하지 않느냐. 그러고도 중이냐. 내가 참선공부 한다는데 웬 말이 많노. 절이 불교공부 하는 곳이지 살림 사는 곳이가. 그런데 얼

성철 스님의 주석처 25곳 순례
스님의 유훈과 사상 조화롭게 담아

마 안 가 주지가 바뀌었지. 젊은 중이 주지대리인가 뭐를 맡았는데 그 사람하고는 그래도 말이 통했거든. 그래서 그 탑전에서 겨울을 보냈지" 성철 스님은 그해 겨울 대원사 탑전에서 용맹정진 했다. 선지식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 체득한 참선수행이었다.

책은 스님의 출생과 출가과정에서부터 스님의 흔적을 좇기 시작한다. 스님이 머물렀던 도량에서 전하는 기록들이어서 기록은 '기록' 을 넘어 살아 있는 행장(行狀)으로 다가온다. 책은 독자들에게 자신 또한 한 명의 순례자가 되어 반세기 전 성철 스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엮은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행장은 그 자체가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을 여읜 자리' 를 안내해 주는 '길'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안내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성철 스님이었습니다. 이는 부처님을 대신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부처님이라는 요지의 성철 스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놓은 길' 위에서 저는 '사람의 길' 과 '깨달음의 길' 의 차이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머무시던 곳은 한결같이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만에 첩첩산중에도 신작로가 놓여서 그 어디든 반나절이면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철 스님이 걸어가신 반세기의 깨달음의 길' 과 '차를 타고 스쳐가는 반나절의 길' 의 명백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며 스님은 걸어온 길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 라는 원력 아래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 근대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 속을 지나온 '외길' 이었다고 말했다. 순례지마다 스님의 기록들이 욕심만큼 남아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성철 스님은 해인사 도량에서 법의 깃발을 온 누리에 드리우고 평생토록 이룬 모든 것을 남김없이 대중에게 회향하고 가셨다. 그러니 조금도 섭섭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스님을 보낸 것도 아니요,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스님의 육신은 가고 없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마른 땅에 새싹이 돋게 하는 한줄기 비가 되어서 감로법문을 펼치고, 또 때로는 지상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덮어 주는 함박눈이 되어서 자비법문을 펼치고 있다."

책은 성철 스님이 경북 영천 팔공산 은해사 운부암에서 평생의 도반 향곡 스님을 만난 이야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복천암에서 지원하여 공양주를 하신 이야기,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대학생들과 소중한 법연을 이어 가신 이야기 등 다양한 일화가 실려 있다.

"원각(圓覺)이 보조(補照)하니 / 적과 멸이 둘이 아니라 /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 보고 듣는 이 밖에서 진리가 따로 없으니 / 시회대중은 알겠는가?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스님의 흔적을 좇아 걷고 나면 이미 들었어도 또 다시 들려오는 스님의 종소리 같고, 풍경 소리 같은 법문과도 함께 했음을 깨닫게 된다.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이던 2012년부터 성철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돌아보는 순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 대중들은 여전히 성철 스님의 뜻을 기리려는 열기로 가득하다. 이 책 또한 성철 스님의 탄신지로부터 열반지까지 수행도량 25곳을 돌며 스님의 발자취를 좇는 순례길 이야기다. 책은 독자들에게 성철 스님 순례길 25곳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길에서 성철 스님이 남긴 유훈과 사상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아이와 '아이' 였던 어른이 읽어야 할 불교동화

우리집 강아지 세리

이명경 지음 | 김애린 그림 | 아이들판 | 9천5백원



이야기는 초등학교 5학년 가섭의 시점의 동화다. 가섭의 부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갖기를 원했다. 딸을 먼저 낳은 뒤 아들을 낳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아들을 먼저 낳았다. 그 아들이 성가섭이다. 딸을 먼저 낳고 싶었던 가섭의 부모는 많이 서운해 한다. 결국 가섭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이야기 속 가섭의 설정은 그 아쉬움의 유발자인 것이다. 가섭의 엄마는 자나 깨나 예쁜 딸을 하나 갖는 게 소원이다. 가섭이 여덟 살이 될 때까지 동생이 생기지 않자 엄마는 세리라는 이름의 암캉아지를 애지중지 기르며 딸 없는 허전함을 달랜다. 가섭 또한 세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한 엄마는 드디어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 뱃속의 아이가 반드시 딸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엄마는 아난이라고 이름까지 벌써 지어놓고 출산을 기다린다. 엄마는 점점 배가 불러오자 몸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세리까지 구박하기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갑자기 달라진 엄마의 태도에 강아지 세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든다. 가섭은 그런 엄마에게 불만을 갖게 되고 엄마와 심하게 다투지만 엄마를 이길 수 없다. 병든 세리는 결국 죽고 만다. 가섭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리가 묻힌 동네 언덕배기에 들러 세



리를 부르며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딸 아난이 태어난다. 그날부터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아난에게만 쏠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섭은 세리 생각이 간절하다. 세리가 보고 싶어 밤마다 세리의 사진을 안고 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꿈에 세리가 나타난다. 세리는 별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가섭이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한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인연 속에서 돌고 돌아. 서로 다 얽혀 있어. 인연 따라 끝없이 돌고 도는 거야. 수십 억 년 전부터 쭉 그랬어."

세리와의 대화를 통해 가섭은 '마음의 눈' 이 열리게 되고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착한 심성의 가섭은 어린 나이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느낄 줄 알게 된다. 그런데 무럭무럭 잘 자라던 아난이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된다. 상심한 엄마는 아난의 죽음이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깊이 참회하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엄마에게는 하늘로부터 축복이 내린다. 곧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죽은 아난을 꼭 빼닮은 예쁜 딸을 얻게 된다. 가섭은 알게 된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다던 세리의 말뜻을. 그것은 곧 다시 태어난 여동생이 세리의 환생이라는 사실이다.

책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인연'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희의 저자는 〈어린왕자〉를 늘 품고 살았다. 〈어린왕자〉의 이야기는 '관계' 에서 시작된다. 장미꽃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별을 떠나온 어린왕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관계' 는 다름 아닌 인연인 것이고 〈우리집 강아지 세리〉는 어린왕자를 품고 살아온 저자의 상상력에 부처님의 인연법을 더한 동화다. 또한 그 인연법의 전개에서 '마음공부' 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러준다.

책은 생각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 어린왕자' 의 마음을 닮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책은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이 먼저 보아야 할 동화다. 동심의 시절을 분명히 지나왔음에도 그 시절을 까맣게 잊고 아이들을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아이' 였던 어른들이 '아이' 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읽어야 할 동화다. **박재완 기자**

일상의 사소한 것에 삶의 힌트가…

삶의 힌트

이츠키 히로유키 지음 | 채숙향 옮김 | 지식여행 펴냄
1만4천9백원



책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일본 문학계의 거장 이츠키 히로유키가 인생의 통찰과 혜안을 이야기하는 〈타력〉과 〈대하의 한 방울〉을 잇는 에세이다.

인생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꼭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뿐이다. 겉으로는 밝고 풍요롭고 쾌적한 시대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눈뜨고 보기 힘든 일들이 끝이 없다. 점점 잔혹해지는 집단 따돌림. 너무도 쉽게 일어나는 자살. 무너져버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밝은 것, 희망에 가득 찬 것, 기쁨에 가득 찬 것, 그런 다양한 것을 추구합니다. 때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 있다는 사실, 그 '살아 있다' 는 것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 즉 인간의 가치에 대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인생을 충실히 보내고, 세상과 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빛나는 별처럼 살아야 한다."

책은 숨 막히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인생의 '힌트'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의 대수롭지 않은 일, 기뻐하고 슬퍼하고 떠들고 망설이고 선택하고 그리워하고 꿈꾸고 잠드는 일, 그런 사소한 것에서 인생의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뻐하는' 것 못지않게 '슬퍼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고, 슬플 때는 제대로 슬플 수 있어야함을 일깨운다. 어두운 기분이 들었을 때는 그냥 넘기지 말고, 어두운 기분의 근원을 직시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며, 나의 인생을 사랑하기 위한 장, 지금의 나를 믿기 위한 장,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장,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장,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한 장으로 나누어 살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4 ~ 7/31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궁리
4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7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8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쌤앤파커스
9	슬프고 웃긴 사진관	아잔 브람	김영사
10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정맥선원 여름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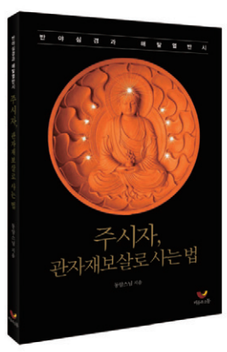
불조정맥 제77조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 주재하시는 정법도량, 성불사 국제정맥선원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명안종사이신 대원 선사님의 저서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의 한국편 법문과 참선수행이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어 깨달아 생사해탈할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 모든 종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시 : 8월 15일(목) 오전 10시 ~ 8월 18일 (일) 오후 2시
장 소 :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번지)
회 비 : 1인 10만원 / 가족할인 1인당 8만원, 어린이 5만원
준 비 물 : 세면도구, 간편복장 (발우 대여), 기타 준비물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전 화 : 031)534-3373 / 010-6431-8805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 여름수련회로 인해 8월 전국법회는 쉽니다.

"모든 현상에 동일시 되거나 속지 말고 오직 '보는 자' 로 남아서 지켜보라"



반야심경과 해탈열반시(解脫涅槃時)
주시자, 관자재보살로 사는 법
동암스님 지음
신국판 | 2도칼라 | 216쪽 | 12,000원

'자아'의 두꺼운 껍질 뚫고 관찰자 · 순수의식 발견하는 길

• 궁극적인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달'이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ego)'의 두꺼운 껍질을 넘어 관찰자, 순수의식으로 말해지는 우주와 인간의 바탕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오온(五蘊)이라는, 자아를 이루는 것들의 두꺼운 껍질을 뚫어 보고, 그 바탕에 있는 관찰자의 상태를 우리 속에서 확인하는 수행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신과 전문의 김자성 박사(동해 동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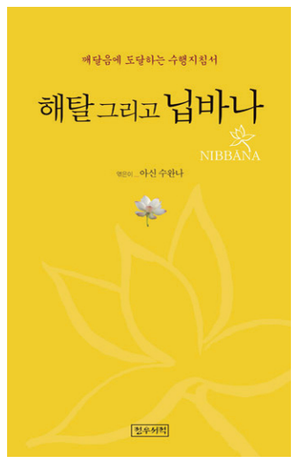
• 동암 스님은 당신의 수행과 관찰을 통해 진실에 근접한 리얼리티를 풀어놓았다. 그는 열정적인 탐구, 섬세한 관찰, 릴렉스한 사색 그 자체이다. 겉에 있으면 그 열정적인 에너지 장에 빠져들어 누구나 어느새 관찰자가 되고 사색가가 되고 명상가가 된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긴장하지 않은(relaxed) 주시(注視)와 관찰만이 성불을 위한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삼척문화방송 김상호 아나운서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붓다, 스님, 절 속에 내포된 불교정신 설명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스님, 한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절, 몸과 마음을 내려 놓다

각권 박이오 지음 | 운주사 펴냄 | 9천원~1만원

이 시리즈는 불교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그 항해 중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기획됐다.

먼저, 불교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주제를 뽑아 이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을 지양했다.

아울러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고 전달하는 식의 건조함을 배제하고, 주제 속에 내포된 불교정신과 역사성, 의미 등을 드러내 독자들이 온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입문, 교양서의 성격을 띠지만, 그런 류의 책들이 보통 취하는 형식과 글쓰기에서 확연히 벗어나 있다. 틀에 짜인 구성과 서술이 아니라, 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주제들이 나타나고 설명되며, 글쓰기 또한 무미건조한 서술에서 벗어나 문학적이면서도 절제미가 어우러진 독특함을 맛볼 수 있다.

첫 번째 책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는 석가모니의 생애에 대한 책이다. 그중에서도 출가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물론 경전을 비롯해 석가모니 생애를 다룬 책들은 꽤나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그의 유소년기 생활과 성장기의 수련 및 학습 등에 대한 복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명되어야 하는 이유는, 싯다르타의 출가가 이미 운명지어졌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 실존인물로서의 싯다르타, 한 인간으로서의 싯다르타가 출가해 대성인, 붓다가 되기까지에는 그에 맞는 인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화려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싯다르타가 문전걸식하는 구차한(?) 사문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과 배경은 어떤 형태로든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현존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자는, 당대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유추해 석가족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가 출가하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을지에 대한 퍼즐을 맞춘다.

그래서 독자들은 다소 미흡할지라도 싯다르타의 유년, 소년, 청년기, 즉 출가 이전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그가 출가 사문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인과관계 또한 공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책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는 출가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이후,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대중들에 의해 승가가 처음으로 형성됐다. 그로부터 2,600여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비구·비구니, 스님 중 승려 등으로 불리우는 출가자들이다.

〈청년 붓다, …〉, 부처님의 생애 서술
〈스님, …〉, 수행자들 삶 소개
〈절, …〉, 사찰이 지닌 의미와 역사 조명

분소의(기워 입은 옷)와 발우 하나로 상징되는 무소유의 수행자, 걸망 하나 메고 구름처럼 유행하는 자유인, 이들에 의해 붓다의 가르침이 2,600여년 동안 면면히 이어올 수 있었다.

이들이 붓다의 길을 따르려는 점에서는 한결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나 지역, 종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승가의 태동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출가자들의 치열한 수행의 모습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모습, 화합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습 등을 상세하게 전해준다. 이를 통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출가자(스님)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세 번째 책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는 절집 이야기다. 하지만 본래 출가자들이 머물며 생활하고 수행하는 곳인 절은 승가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또는 민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절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많다. 그리고 그 이름마다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흔히 쓰고 접하는 이름인 사찰, 사원, 정사, 도량, 가람 등에서부터 난야, 정주, 법동사, 출세간사, 청정무극원, 원리악처, 적멸도량, 친근처, 금강찰, 선타, 향찰, 운당, 보우, 금지, 감원, 산사 등 조금은 낯선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왓, 짜웅, 곰빠, 아바사, 아라마, 비하라, 바히 등으로 부른다.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개개 사찰에 대한 기록이나 감상이 중심인 반면, 이 책은 '절'이라는 공간이 갖는 역사적·일반적·추상적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즉 수행공간으로서의 절, 생활공간으로서 정사의 탄생부터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 절 모습과 그들이 갖는 의미를 새기는 데 방점이 있다. 그렇다고 역사성을 지닌 절이나 현실속의 절에 대한 설명에도 군색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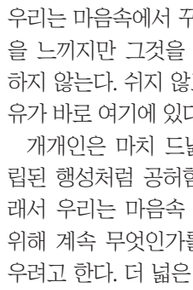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오랜 세월 '절'이 품어온 가치나 의미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불안과 충동서 벗어나려면… '조화로움' 유지해야

조화로움

저자 스티브 테일러 지음 | 윤서인 옮김
불광 펴냄 | 1만4천원



이 책은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충동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또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끔 잠깐씩 경험하는 조화로운 마음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결코 모자람 없는 유명 팝 스타나 최상층 부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약중독으로 죽는 일이 종종 있다. 비어 있는 스케줄과 오랜 대기시간이 혼자 있는 그들을 스스로 우울과 권태에 빠뜨리는 것이 주 원인이다. 우리 사정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저자는 인간이 마냥 쉴 수 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종의 정신 장애라고 말한다. 휴머니아는 이처럼 인간이 앓고 있는 장애를 말한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꾸물거리는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개인은 마치 드넓은 우주에 고립된 행성처럼 공허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채우려고 한다. 더 넓은 집을, 더 큰 차를, 더 많은 월급을 원한다. 그러나 목표를 이뤄도 만족은 잠시뿐, 다시 불안해져 더 많이 성취하려는 욕망이 피어난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아 증상이다. 이의 또 다른 증상은 끊임없는 생각의 흐름이다. 이들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 이곳 저곳을 휘젓고 다닌다.

잠을 청할 때 몇 시간 째 뒤척이며 낮에 있었던 일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 심지어 길에서 얼핏 들은 노래까지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어제 실수한 일을 후회하거나 주말에 있을 여행을 생각하며 공상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현재에 살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이 휴머니아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움직이고 생각에 휩쓸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한다. 이따금 텔레비전만 서너 시간 보았을 뿐인데 진이 다 빠져버릴 만큼 휴머니아는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소모한다. 하지만 전통 생활 방식을 따르는 원주민이나 순수한 어린아이는 휴머니아 증상이 없는 것 같다. 황금에 눈이 멀어 자연을 파괴하는 원주민이나 당장 내일 있을 발표회 때문에 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아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한 인류학자는 아마존 지역에 사는 파다한 인디언들과 생활한 뒤 "그들은 우울증이나 만성피로, 극단적 불안 등 현대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 질환의 증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나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있으면서도 불만이나 욕구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원주민들이 휴머니아를 겪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불안에 쫓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구, 자연, 동식물, 타인과 '나'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으므로 당연히 소유나 재산에 대한 개념도 없다. 세상과 떨어진 '나'가 아니기 때문에

휴머니아, 인간이 앓고있는 장애
명상은 휴머니아 탈출의 비상구

고립과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그들에게서 휴머니아를 찾아보기란 힘들다.

꼭 원주민이 아니어도 휴머니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하는 일이없다고 지루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는다. 텔레비전 시청보다는 독서를 선호하고 정원 가꾸기나 산책, 요리와 같이 차분한 활동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에너지를 소비할 일이 없다. 하지만 휴머니아 상태에서 벗어나 비교적 느린 삶을 사는 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던 나무가 어느 날 불현듯 더욱 생생한 녹색 잎으로 빛나는 때가 있다. 달리기를 할 때 오직 달리는 동작만 남고 모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그다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분 좋은 날이 있다. 이런 경험은 아주 드물지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잠양 켄체가 전하는 '사법인'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종사르 잠양켄체 지음 | 이기화 옮김
팡세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사법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불교 입문서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불교인은 사법인을 인생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불교의 형식적인 측면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절에 다니지 않아도 사법인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려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불교인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불교 의식에 적극적이라 해도 생각과 행동이 사법인에 어긋난다면 불교인이라 할 수 없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가피하다면 굳이 불교인임을 내세울 필요도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단지 사법인을 진리로 삼아 실천하기만 하면 불교인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부처님의 네 가지 진리, 즉 사법인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죽비소리이다. 이 책의 저자 종사르 잠양 켄체는 티베트 불교의 영적 스승이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난 그는 일곱 살 때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잠양 켄체 왕포(1820~1892)의 세 번째 환생자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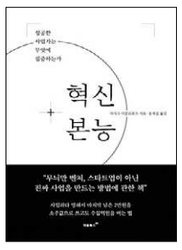
불교 수행과 함께 영화 공부를 하던 중에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를 만나 그의 영화 〈리틀 부다〉에서 고문을 맡으면서 영화에 입문했다. 또한 그는 티베트와 인도에 있는 종사르 사원 네 곳에서 2,000여명의 스님들을 돌보고 있고, 세계 곳곳에 수행 센터 '싯다르타의 의도'를 만들어서 서양과 동양의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인생 성공은 마음혁신 할때 가능"

혁신본능

마이크 미칼로위츠 지음 · 송재섭 옮김
처음북스 펴냄 | 1만5천원



모든 사업가들이 미디어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미디어의 사랑을 받는 사업가들은 우리에게 구글, 유투브, 페이스북 등의 기업을 안겨다 준 10억분의 1의 기적의 사업가들이다. 우리 대부분은 혁신적 창업가가 될 운명이다. 세 마디의 두루마리 휴지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키는 단호한 혁신가들말이다. 마이크 미칼로위츠는 당신이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건 세 마디 두루마리 휴지라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혁신적 창업가는 미디어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많지 않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에 집중한다. 화장실에 큰일 보러가서 몇 마디 남지 않은 휴지를 보고 어떻게 뒷일을 처리할 지 고민하듯 이 말이다. 사업을 위한 자원이 많을수록 사업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적은 자원은 사업가의 혁신 본능을 자극하는 열쇠이다.

이 책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울 것이다.

"왜 사업 계획은 완전한 시간 낭비인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세 마디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한가" "미루기 위한 변명을 그만 두고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는 법" 등등이다. 당신의 성공은 모두가 따르는 유일한 접근방식을 과감하게 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당신이 마음과 주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어떻게 불가능을 단호하게 현실화하는지도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포기한 채 여분의 자원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때에야 당신의 성공이 보장된다.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사업에서 활용하기로 결정 한 이들은 소수 정예의 자랑스러운 혁신적 창업가들이다.

김주일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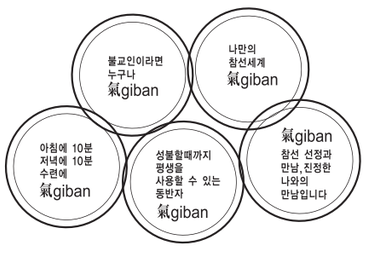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⑮ 선학원 법인 인가와 수좌대회

선불교 중흥 의지 다지며 수좌들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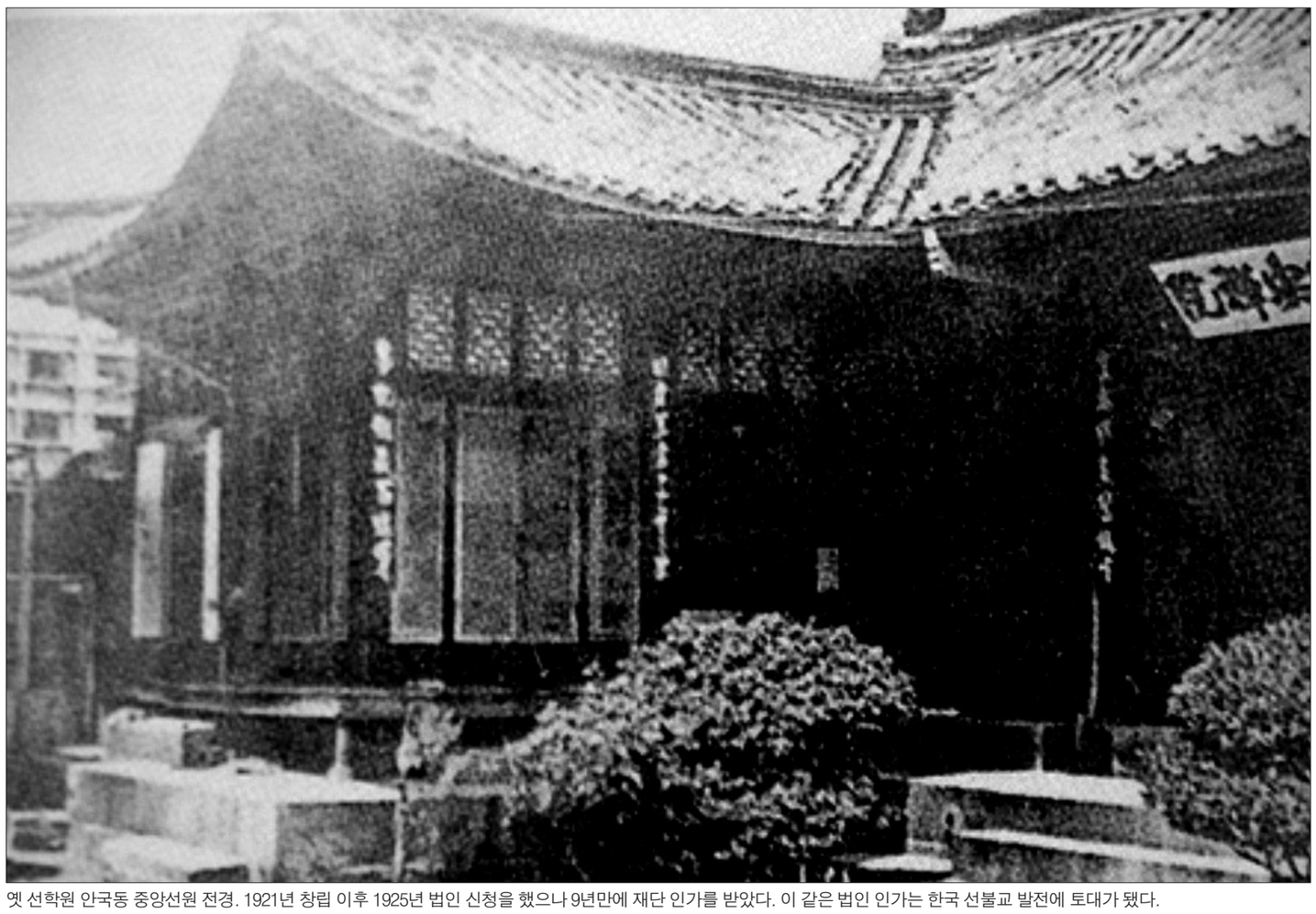
1934년 12월 5일 선학원은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1925년 9월 6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사단법인 선우공제회' 설립허가원을 제출한지 9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教中央禪理參究院)'이었다. 선학원의 설립조사들은 1921년 창설에 이어 1922년 3월 선우공제회를 조직하였다. 민족불교를 표방하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한 설립목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수좌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공부해서 도를 깨치고 정각(正覺)을 이루어 위로는 시방(十方) 여러 부처님과 조사(祖師)의 혜명(慧命)을 잇고 아래로는 악착같은 이 고해(苦海)에 헤매는 중생을 제도할 인격과 덕을 갖추신 삼계 대도사(三界大導師)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좌들이 먹고 입고 앉아 정진할 보호기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급선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선사찰(全鮮寺刹)에 남아있는 재산의 대부분도 처음은 수좌 학인 신도들 공부하라고 나라와 민간에서 정재를 연출한 것이었지만, 조선불교가 퇴패함에 따라 그 재산의 대부분이 다른 곳에 많이 소비되어버리고 참으로 참선하는 사람은 도외시하고 돌보지 않은 경향이 농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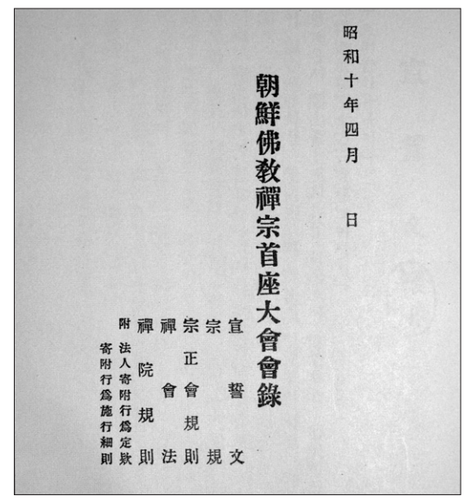
1935년 〈선원(禪苑)〉지에 실린 내용이다. 재단법인 설립의 배경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불교와 사찰령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당시 불교계와는 전연 다른 행보였다. 비록 대세를 거슬렀지만, 위법망구(爲法亡軀)의 정신이 혹독한 시절을 견디고 결실을 본 것이다. 한 갓 몇몇 스님들의 사욕(私慾)에서 시작된 일이었다면 시간의 변덕을 견딜 수 있었을까. 1924년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1931년 중흥의 전기를 마련했고 수좌대회를 통해 내부의 결집을 도모했으며, 꾸준히 본분사를 기초로 외연을 확대한 결과였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어느 목적에 토지와 돈을 쓰라고 기부하는 것을 받아 모아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법률상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조선불교선리참구원을 두고 말하면 전일 선우공제회 및 기타 승려와 신도들이 토지와 돈과 수좌들이 먹고 입고 공부하는 참선방을 만드는 목적 하에 토지와 현금을 기부한 것을 모은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 조선불교선리참구원이라는 법률상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로는 기부 받은 토지는 그 법률상 완전한 권리를 가진 법인이 정관에 의하여 행동을 하게 됨으로 다른 사람은 도무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 기관의 일보는 이사만이 재단법인 자체의 법률인 정관의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로 법인을 운전하는 바 그것 역시도 적은 일까지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되었으므로 가장 기부된 토지가 완전하고 영원히 수좌보호에 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선학원이 지닌 정체성과 그 기능이나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장황하지만 그 시절의 목소리를 담았다. 재단법인 신청 당시 9만원 정도였던 재산이 이듬해인 1935년에는 다시 14만원으로 확충된 것을 보면 재단법인은 계속 발전했고, 전국의 수좌만도 368명이나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옛 선학원 안국동 중앙선원 전경. 1921년 창립 이후 1925년 법인 신청을 했으나 9년만에 재단 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법인 인가는 한국 선불교 발전에 토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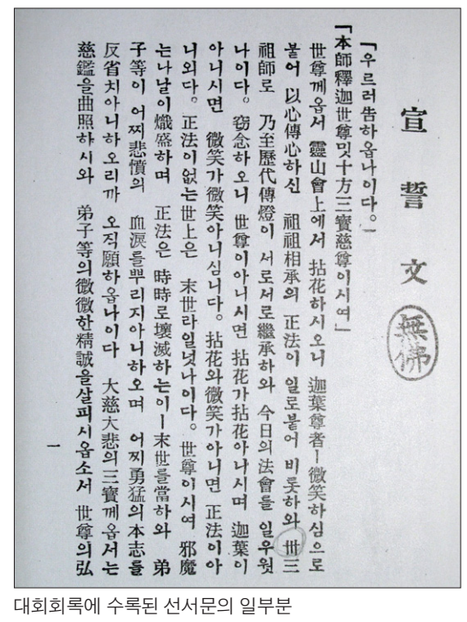


昭和十年四月 日

朝鮮佛教禪宗首座大會會錄

宣誓文
宗規
宗正會規則
禪院規則
附法人寄附行爲定款
寄附行爲施行細則

1935년 3월 7~8일 선학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개최한 조선불교선종수좌대회회록.



宣誓文

「우르러告하옵나이다。」

「本師釋迦世尊및十方三寶慈尊이시여」

世尊께옵서 靈山會上에서 拈花하시오니 迦葉尊者ㅣ微笑하심으로 불어 以心傳心하신 祖祖相承의 正法이 일로불어 비롯하와 世三祖師로 乃至歷代傳燈이 서로서로繼承하와 今日의法會를 일우웟나이다。窃念하오니 世尊이아니시면 拈花가拈花아니시며 迦葉이아니시면 微笑가微笑아니심니다。拈花와微笑가아니면 正法이아니외다。正法이없는世上은 末世라일넛나이다。世尊이시여 邪魔는나날이熾盛하며 正法은 時時로壞滅하는이ㅣ末世를當하와 弟子等이 어찌悲憤의 血淚를뿌리지아니하오며 어찌勇猛의本志를 反省치아니하오리까 大慈大悲의三寶께옵서는 慈鑑을曲照하시와 弟子等의微微한精誠을살피시옵소서 世尊의弘

대회회록에 수록된 선서문의 일부분

1934년 12월 드디어 법인 인가
9년 간 인고 거쳐 결실 맺어
초대 이사장 만공 스님 선임
예산 · 인원 확대… 꾸준한 발전

1935년 조선불교수좌대회 개최
전국 37개 사찰 수좌 76명 참석
'조선불교선종' 창종 선언 천명
민족불교 정립 · 선풍 진작 기틀

31본산의 주지조차도 몇 천 원씩이라도 찬조할 의향을 보였으며, 입적 후에는 제위답(祭位畓)으로 해달라고 찬조하는 스님들도 있었다.

선학원은 재단법인 인가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만공(滿空)스님이 초대 이사장, 한암(漢巖)스님이 부이사장 소임을 맡았고, 성월(惺月) · 남전(南泉) · 적음(寂音)스님이 상무이사 소임을 맡았다. 이후 선학원은 재산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 해 예산 역시 증가하였다. 1934년 1,427원이었던 예산이 1935년에는 기부 토지 소작료와 도조 매각대금 중에서 들어 온 일부분, 그리고 희사금 수입금액까지 해서 6,200원이나 되었다.

이 재단법인 인가는 선학원이 '조선불교선종(朝鮮佛教禪宗)' 창종을 선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1934년 12월 23일부터 준비하여 1935년 3월 7~8일 이틀 간 중앙선원법당에서 개최한 제3차 조선불교수좌대회(朝鮮佛教首座大會)는 창종(創宗)을 위한 선학원의 결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전국 37개의 사찰에서 비구승 69명, 비구니 6명, 총 75명이 참석했으며, 그 밖의 많은 사부대중이 운집하였다고 한다. 수좌들은 명실공이 조선불교선종(禪宗)의 종단을 표방하고, 종정을 추대하였으며, 전국 선원의 중앙기관인 조선불교선종종무원(朝鮮佛教禪宗宗務院)이 성립되면서 간부진도 선출됐다. 당시 종정에는 혜월(慧月) · 만공(滿空) · 한암(漢巖)스님이 대중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종무원의 원장은 성월(惺月), 부원장은 석우(石友)스님이 임명되었다. 그밖에 서무 · 재무 · 교화이사 등이 선임되었다.

아울러 이날 수좌대회에서는 선종종규(禪宗宗規) · 종무원 원칙 · 선회법칙(禪會法則)과 선원규칙(禪院規則) 등 크고 작은 6종의 규약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특히 종지(宗旨)인 불조정전(佛祖正傳)의 심법(心法)을 깨닫기 위해서 선의원회(禪議員會)를 구성하여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각 선원에서 안거(安居)중인 수좌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을 선회원(禪會員)으로 선출하여 중요 의안을 심사하였다. 선원규칙 역시 종규(宗規)에 의거하여 제정하였는데, 선원의 주요소임과 그 직무를 소개했고, 안거기간이나 징계 등을 명시하였다.

세존(世尊)이시여. 사마(邪魔)는 나날이 치성하며 정법은 시시(時時)로 괴멸(壞滅)하는 이 말세를 당하여 제자등이 어찌 비분(悲憤)의 피눈물을 뿌리지 아니하오며 어찌 용맹의 본지(本志)를 반성치 아니하오리까. 오직 원하옵나이다. 대자대비한 삼보(三寶)께옵서는 자감(慈鑑)을 곡조(曲照)하시와 제자 등의 미미한 정성을 살피시옵소서. 세존의 넓고 자비로운 원(願)을 본받아 머리 숙여 발원하오니 성력(聖力)의 가피를 내리시어 염화와 미소(拈花微笑)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천하 총림(叢林)에 다시 떨치게 하시오며, 여래의 지혜로운 빛이 사해선천(四海禪天)에 거듭 빛나게 하시옵소서.

인용문은 수좌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련한 선서문의 일부분이다. 1921년 선학원의 창설배경부터 1935년 선종 창종을 표방하여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의 시련과 우여곡절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삿된 마구니는 나날이 치성해져 말세의 제자들이 슬픔과 분노에 복받친 피눈물을 뿌리고 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우리 불교계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직지인심(直指人心) ·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미묘한 이치인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천하총림에 다시 떨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발원하고 있다. 요컨대 수좌들은 조선불교 선종의 창종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선풍의 진작을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재천명하고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다가오는
칠석과 백중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양초 2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는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념 양초 무료 보시 행사에 이은 두번째 행사입니다. 보시 예정인 초는 흰색 육각초로써 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에 상당하는 고급 양초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사오며, 받으실
1.사찰명 2.사찰주소 3.사찰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후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는 받으시는 사찰에서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팩스 031)766-0233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속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편안하게 하거나 이롭게 하지는 못한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겠는가.
보살(구도자)은 그렇지 않아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남만을 사랑한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모든 고민은 네이버에서
"샤먼노트"를 검색해 보세요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창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팔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불사용 禪書畵

달마도, 목단꽃, 연꽃,
잉어, 말, 소나무 등
어떤 규격 어떤종류의
그림이라도 원하시는
작품을 직접 그려드립니다
010-8718-6262
국전,대한민국미술대전수상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실전위주 교육(재가불자가능)
불공의식,천도재,49재,점안식
천수바라,나비무
010-9263-8057
부산 은진사. 인호, 수법 합장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 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4793-9777
051)721-6444

악성피부질환 해결

전통의약 자연치유비법으로 악성
무좀, 악성종기, 악성골수염, 악성
피부염,재발하는 축농증,
아주심한 아토피염, 버거씨병,
기타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게 해당됩니다.
아픈스님께는 무료 보시합니다.
010-3028-6579

최 면

개인지도
직접상담
• 전생체험, 빙의, 퇴마, 우울증, 불안, 각종, 심리치료, 속성완성
• 광고는 작지만 수업을 알참.
• 저렴한 수강료로 최면의 대중화
• 사주(명리학) 강의 및 상담
부산 010-9342-9794

천수천안 동아리 모집

천수대비주 108독 반.
강남,송파,강동,성남
불자님 환영합니다.
자연건강명상기공치유법
전수합니다. 시대불교
송파귀보광사
02)449-5315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향 기 도 의 비 법

•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신심있는 사무장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경기지역
010-8954-8033

도심속의 청정기도도량에서 불심과 신심이 돈독한 55~65세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월 2박3일 휴가, 행사시 수고비 드림, 급여 상담후 결정)
부산 051)633-8445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무료공개강좌 (영가찾는법 강좌)

생년월일시로 간단하게 찾는 법과 사주로 쉽게 찾는 법 등과 운에서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왕초보라도 가능함.
※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찾아 기도를 해주어야 모든 일이 풀린다.
무료공개강좌 –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 명리기초 및 영가특강반 :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통신강의 ☞ 지방거주나 시간이 없는 분 – 통신강의는 DVD 보내드림
백암역리원 ☎ 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신심있는 법당보살, 공양주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자성주(자성사리) 수익사업

친환경 납골문화의 21C 선두기업
고인의 유골을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
대도시 및 종교시설. 문중사당. 가정에서 모심
전국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 보은의 사랑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신심있으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아늑한 조계종 사찰)
02)877-7514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 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738-8680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효과적으로 잘 지내는 방법
즐겁게 가족이 잘 지내는 방법
제사를 잘 모셔야 행복함
우울증, 알콜중독, 비만 악몽 가위눌림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치매, 암 중풍 예방 기도
조상영가 태아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대회
조상님 산소 잡초 잡목제거
여름방학 수련회 (3박 4일) 상담환영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소원양초 주문환영)
천부경 수맥탐지특강
풍수지리 정 태 철
010-2797-1633
부산 – 제주, 부산 – 일본오사카
수륙천도재 하실 분 상담환영
대불정능엄신주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 점심식사 자원봉사자 모집
가족이 함께 후원하실 분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빙의(신병) 퇴마

9월 수강생 모집
퇴마 및 최면요법 과정 (전생과 미래를 본다)
1. 개강 : 2013. 9. 7 (토요일) 오전 11시 개강
2013. 9. 2 (월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200만원 (8회, 과정별 교재제공)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퇴마특별과정 : 배웠으나 퇴마 못하는 분
1. 개강 : 2013. 9. 1 (일요일) 오후 2시 개강
2. 참가비 : 100만원 (4회, 문답식 교육, 문제해결)
3. 선착순 5명 그룹지도 (상담 후 수강결정)
개 인 지 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 퇴마와 최면요법
2. 시간, 장소 (서울과 의정부) 상담 후 결정
3. 지방출장 지도 2명이상
상담 : 예약상담
* 사주상담 * 심리상담, 우울증, 공포증 * 빙의퇴마
* 무 속 인 : 말문이 안터지는 분, 허주, 법당정리
* 빙의 (신병) : 출장상담 및 출장 퇴마
• 신간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 주문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 비룡정사
• 저자 : 제행 스님 직접상담 및 지도
• 전화 : 011-772-4606. 02)588-4606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
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무슨 일이든지 앞과 뒤의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가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리는 노력은 사실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다름없다.

– 본생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및 토 굴 안 내

경주 토굴 안내

- 총부지 : 730평
- 법당 요사채 60평
- 야생화가 어울러진 아름다운 토굴
- 마을 앞 넓은 호수, 텃밭 100평
- 양도가 : 3억 2천만원

아 름 다 운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칠보 삼존불 봉안)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50년 역사와 정원수 다량
- 나비형 큰 호수
- 양도가 : 1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사찰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입니다
먼저 부처님 도량을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내를 거절합니다
현재 신도가 많으며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하지 않으면 안됨
부산,울산,양산지역에 한하여
사찰 몇 군데만 안내하고자 합니다

동호스님 010-9798-1091

토굴(급)안내

-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한옥
- 토지임야포함 7,000㎡
- 한옥건물 약 80㎡, 황토차방 등
- 청정계곡접합, 경관수려함
- 가액: 3억 8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010-4904-3988(건 물주)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 4층건물중 3층
-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시설비없음)

010-7459-297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시내 중심가
- 상가 3층, 38평
- 삼존불, 집기시설 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 7년째 운영중

010-2020-189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별도
- 국유지 : 사용료 내고 있습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3111-9056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밀양 IC 바로 앞
- 현 약초 재배로 암자시설 적임지
- 2천6백평
- 가액 : 평당 6만원

011-9323-86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 4층 건물에 4층 45평
- 시설완비. 주차장
- 석가모니 삼존불(백옥)
- 보증금 1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1-592-9599

암 자 안 내

- 경남 거제시~도심속에 산사를 풍기는 도량
- 암자 앞에는 대금산하에서 사시사철 내려오는 맑은 계곡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 한 곳으로 모이는 도량
- 거가대교 부산~거제 톨게이트
- 내리면 10분거리, 마당까지 주차진입
- 부처님과 탱화,집기류는 모두 가져갑니다
- 일반전원주택 123평,가액3억2천만원
- 현시세 땅값만 평당 200만원 함

010-8538-4458

포 교 원 안 내

- 경남 진주시 유곡동 78-47번지 주택 4층
- 절에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조계종스님께서 계셨습니다
- 건평 100평정도 시설비는 없습니다 전세 1억이고 달세는 없습니다

010-9892-3435
055)748-6345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방문은 오후1시 이후로 오시면 가능합니다.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온양 온천) 점양동 호수가
- 대지 70평, 건평 약 45평
- 2층 법당, 1층 요사(시설완비)
- 주차장 100평 완비
- 보증금 1500만원, 월50만원 조절가 (대지 213평, 양도 2억 7천만원)

010-7764-2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 총 1150평, 산신각 6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0평 가건물 17평
- 계곡 인접, 경관 수려
- 가액 : 5억원

011-425-69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 대지 80평, 2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앞텃밭
- 평수 : 32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723-664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진천 근교. 서울 1시간 (진천IC 5분 ~ 7분)
- 부지 : 등기상 총 540평 중 종교부지 300평 (별도공용부지 400평)
- 법당 : 무. 요사채 : 40평(임법당)
- 특징 : 전면은 강, 3면은 산, 금계포란형 사찰, 노후쉼터, 별장 적합
- 양도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723-3638

사찰(공용)안내

- 평수 : 약 4000평 정도
- 대웅전, 약사전, 포교회관
- 넓은 주차장, 텃밭, 요사채
- 무상무념으로 여생 함께 승,속 무관함(육천만원)
- 충남, 천안 공주 근교 있음

010-3630-32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평산동
- 건평 1층 150평, 주차장 大
- 전세 : 3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 비품대 7000만원
- 법당및 요사채 각종 시설일체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5667-5453

신축 사찰 안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3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4층건물 중 2층 45평
- 방3, 베란다에 주방
- 에어컨 2대, 원목탁자 닷집
- 주변에 가락시장 로데오거리
- 보증금 2천만원 월 145만원
- 시설비 없음
- 지하철 문정역에서 3분거리

02)4430-108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면적 : 120평
- 법당 : 50
- 요사 : 60평
- 가액 : 18억5천

- 위치 : 서울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지리산 청학동 사찰 양도

- 위치 : 청암면 묵계리(계곡접)
- 면적: 1815평,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난방,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수도(자가 및 마을공동겸용)
- 양도가: 13억원, 최상의 명당터 동향임
- 부지조성완료

010-3403-3355

선 ~ 정 토 터 안 내

-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과수원)임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구포란형(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포장(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2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266평(평당 6만원)(금/토/일 중 방문예약)

016 - 573 - 203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동부리
- 5층건물중 3층(48평)
- 석가모니불,각단 탱화 • 시설일체양도
- 상가주변 포교용이
- 보증금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2천5백만원

010-2304-7648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북영천IC 3분거리
- 부지 : 1,740㎡(527평)
- 법당 : 109㎡(33평) 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 132㎡(40평) 방3, 거실1, 다용도실2, 치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 2억 6천만원(답사 후 조절가능)

010-2544-484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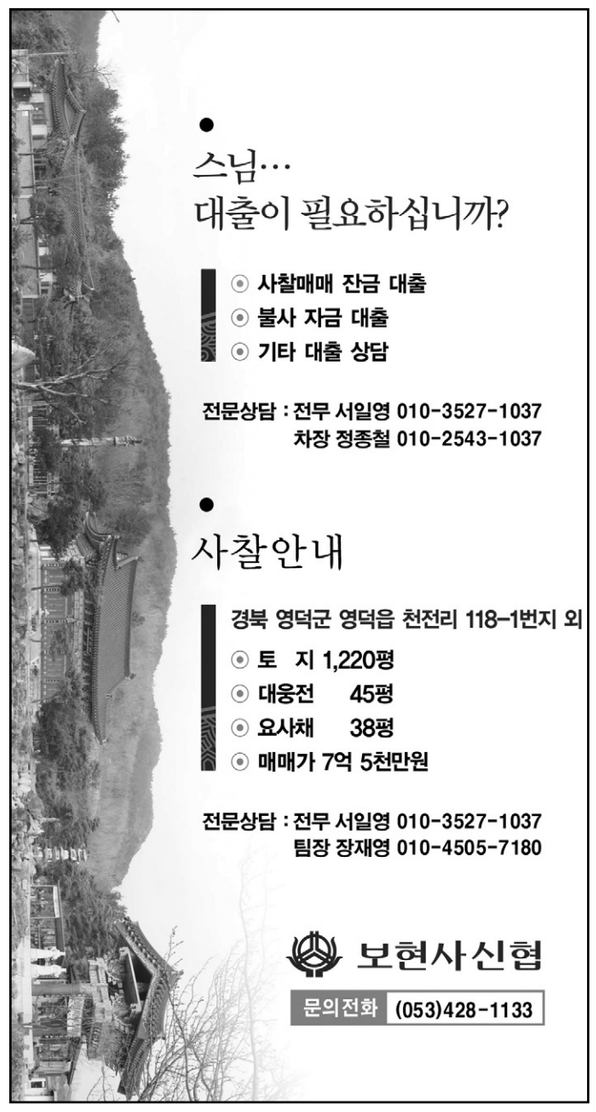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평등·자유·개방 '공감명상' 지혜 배운다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4〉 보리명상회


보리명상회는 자유와 평등 개방을 바탕으로 명상을 공부하는 모임이다. 사진은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심리극장 청자다방 수업 장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 직면하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공감명상이다. 나아가 이 명상은 서서히 마음을 열게 해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을 돕고자하는 강한 동기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욘게이밍규르 린포체의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의 한 구절이다. 이 책을 읽으며 명상을 진행하는 모임이 보리명상회다. 7월 장맛비가 퍼붓던 목요일 저녁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심리극장 청자다방은 보리명상회의 명상공부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모임에 참여한 인원은 10여명. 종진 스님(보현사 부주지)이 이끄는 소규모의 명상모임이지만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진 스님은 "보리명상회는 개방과 평등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모임이다.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 모여 명상에 대한 토론과 실습을 하는 모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월수강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참여할 때마다 5천원의 회비 정도만 내면 되고 공간은 형편 따라 공간을 빌려 쓰고 있다. 지금 이곳은 세 번째 교실"이라고 설명한다.

보리명상회는 2011년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 개최한 MBSR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불교NGO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멤버들이 구성됐지만 차츰 명상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하면서 종교 직업 나이를 초월한 모임이 되었다. 보리명상회 프로그램의 특징은 명상 서적을 교재로 삼아 이를 회원들이 정독하고 명상체험을 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창 선운사, 동해 삼화사, 영동 반야사, 봉화 청량사 등 4개월에 한번 전국 사찰을 돌며 1박 2일간의 명상수련회를 열어 자연과 더불어 깊이 있는 명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보리명상회가 현재 1년째 공부하고 있는 교제는 욘게이밍규르 린포체의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다. 수업이 시작되자 회원들은 한구절 한 구절 돌아가며 책을 읽어 내려간다. '어릴 적에 경험한 불안은 나를 외롭고 나약하게 하며 어리석은 존재로 느끼게 했다. 그러나 자비명상을 시작하면서 고립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 자신이 매우 쓸모 있는 존재라고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루 10여페이지 분량을 회원들끼리 나눠 읽고 토론을 한다. 서로 어떤 구절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공감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종진 스님의 지도하에 명상을 체험해보고 서로의 느낌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종진 스님은 "누가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공부한다는 개념이 더 크다. 명상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강조한다.

명상서적 교재로 정독 · 수행체험
전국사찰 순례, 자연 속 명상도
종진 스님 지도…토론 등 도반 개념

창단 멤버이기도 한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53)은 종진 스님과 함께 이 모임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명상을 실제로 체험해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전한다.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명상을 통해 얻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화나고 괴롭고 슬프고 이렇게 좋고 나쁨을 분별하며 살잖아요. 명상은 이런 제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알아차림의 힘을 길러 주는 것이 명상이죠. 제 스스로 굳건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명상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영 씨(29) 씨는 친구 따라 이 모임 참여해 7개월 정도 명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상담을 공부하다가 명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실제로 명상을 배우면서 평소 몰랐던 제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을 얻었죠. 그래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상에서 배운 노하우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고 나쁜 감정도 의미가 있다는 지혜도 얻게 됐죠. 명상은 제 자신을 좀더 객관적으로 만들었죠."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꾸준히 명상을 이끌어 나갈 보리명상회는 다음 교제로 〈아티샤의 명상요결〉을 준비하고 있다.(02)732-1367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교 초월 내면성찰 초점"

보리명상회 지도법사 종진 스님



"명상은 내면의 깊은 통찰을 통해 마음의 구체성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죠. 또한 일어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지켜보면서 마음의 다양성을 이해해 나갈 수 있어요. 이런 힘이 생기면 심리적 신체적 두려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종진 스님〈사진〉은 서울불교대학대학원 심리상담학과에서 자아초월상담학을 전공하고 명상과 수행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스님은 이 과정 동안 수행은 평등해야 하며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행단체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다보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회원들이 리더인 스승을 통해 결집되다 보니 그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행모임은 도반의 개념을 가지고 조직의 평등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은 보리명상회를 찾는 회원들에게 특별히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가톨릭 등 이웃종교인들도 마음 편하게 찾는 곳이 보리명상회다. 스님은 오히려 그들이 명상을 통해 신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명상은 포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적 성찰이 초점이죠. 그래서 명상은 삶 전체와 연결돼 있습니다. 내면의 근원을 만나는 것이 곧 명상이죠. 명상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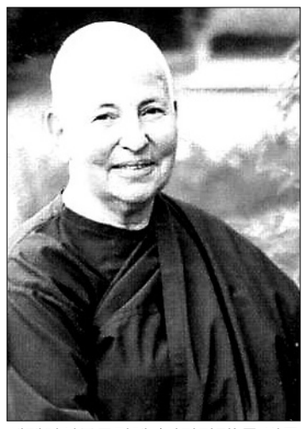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독일의 상좌부 수행처…재가 명상 20여 가지 실시

〈12〉 독일 붓다 하우스(Das Buddha Haus)

독일에 있는 붓다 하우스(Das Buddha Haus)는 독일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명상수행을 하는 곳으로, 독일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독일인으로서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아 비구니가 된 아야 케마(Ayya Khema, 1923~1999) 스님이 세운 사원으로 남방의 전통적인 승가를 따르고 있다.

아야 케마 스님은 세계 최초로 비구니 스님을 단결시켰고 수많은 차세대 비구니 스님을 키워 불교 페미니즘의 초석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세계여성불교단체 '샤카디타'를 발족한 아야 케마 스님.


1989년 설립된 붓다하우스에서는 상좌부 불교 경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출판사를 설립했으며, 환자 · 노숙자에게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수용소서 죽음에 대한 공포 극복
유태인 출신 비구니 아야 케마 설립
스리랑카 · 태국의 다양한 수행법 지도
독일 최초 산림승원 메타 비하라 세워

아야 케마 스님은 1923년 나치가 득세를 하던 시절 유태인의 딸로 태어나 불안한 어린시절을 보내다 1938년 15세 때 200명의 어린이 피난단에 섞여 영국으로 떠나게 된다.

2년 후 상하이로 피난한 부모와 합류했지만 2차 대전 발발로 가족들은 다시 일본인 포로수용소에 갇히고, 아야 케마는 이곳에서 아버지와 사별을 한다. 이 시기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은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본인의 폭격으로 함께 옆에 있던 아는 사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미군이 진주해 포로들이 해방되자 4년 후 케마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결혼을 한 아야 케마는 1남 1녀를 두게 됐고, 1960년대에 남편과 함께 히말라야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며 명상을 경험했다.

호주 브리즈번 근처의 농장을 구입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한 아야 케마는 1973년 태국에서 비구가 된 영국 출신 칸티팔로(Khantipalo)를 만나 본격적으로 불교교리와 수행을 배웠다.

1975년 아야 케마는 스리랑카에서 니안포니카의 제자가 돼, 1978년 시드니 근처에서 칸티팔로 스님의 요청으로 '왓 붓다 담마(Wat-Buddha-Dhamma)'를 설립하고 칸티팔로가 주지로, 아야 케마는 운영을 맡아 함께 수행을 지도하는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태국 숲속 사원에서 3개월을 보내며 출가를 결심한 아야 케마는 1979년 호주로 돌아와 55세의 나이에 출가의 뜻을 밝혔다. 태국보다는 스리랑카에서 출가를 하고 싶어한 아야 케마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나라다 스님을 법사로 수백 명의 스리랑카 신도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10계를 받고 서양 여성으로는 최초로 출가 여성이 됐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야 케마는 비구니가 된 것은 아니었다. 비구니 승단의 전통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남방에서 출가하는 여인들은 비구니가 아니라 10계를 지키는 출가자가 되는 것이었다. 상좌불교의 전통을 익힌 아야 케마는 상좌불교에서의 여성들의 위치나 수행자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비구니 제자를 키웠고 여성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여성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에 1987년 세계 최초 비구니 국제대회를 주관했다. 이 일을 계기로 세계여성불교단체인 '샤카디타(Sakyadhita; 붓다의 딸들)'가 탄생했다.

붓다하우스 설립, 독일어로 비구계 집전

아야 케마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선불교 등 다양한 수행전통을 익히고 가르쳤다.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입출식념), 생각 알아차리기, 걷기 수행, 감정을 정화하기 위한 느낌의 감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자애관, 내면의 실재에 이르는 관찰법 등을 지도했고, 선정수행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198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시라이(Hsi Lai) 사(寺)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케마는 1989년 독일에 붓다하우스를 설립해 원장이 됐다. 1997년에는 독일 최초의 산림승원인 '메타 비하라'를 설립해 독일어로 비구계를 집전한 최초의 스님을 배출했다.

붓다하우스에서는 재가자들을 위해 2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위빠사나 집중명상 △자비명상 △아야 케마 비디오 명상수련회 △초보자를 위한 명상 코스 △부모와 자녀를 위한 명상 등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붓다하우스에서는 1990년 상좌부 불교의 경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출판사를 설립해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환자 · 노숙자 등을 위한 쉼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 히말라야 라다크의 마하 보디 국제 명상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똥과 오줌에서 일어나는 음욕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2)

애욕을 끊고 출가한 선택 거사

부처님이 설법하셨다.

"사람에게는 일곱 개의 장(臟)이 있다. 첫째는 풍장(風臟)이고, 둘째는 생장(生臟)이며, 셋째는 숙장(熟臟)이고 넷째는 냉장(冷臟)이며, 다섯째는 열장(熱臟)이고 여섯째는 견장(見臟)이며, 일곱째는 욕장(欲臟)이다. 이 여러 장 가운데에서 욕장이 가장 견고하니, 눈물과 침, 가래와 고름과 피, 힘줄과 뼈, 가죽과 살, 그리고 폐와 간 등의 오장 및 장과 위에 있는 똥과 오줌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다."

그때 회상 안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이름이 묘색인 아내가 있었으니, 얼굴 생김새가 단정하고 예쁘며 자태가 꼿꼿하여 눈에 확 띄었다. 선택은 아내에 대한 사랑에 집착하여 항상 번뇌가 들끓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음욕의 마음이 똥과 오줌에서 일어난단 말씀입니까? 제 아내는 단정하고 정숙하여 더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묘색으로 변하여 대중 안으로 들어왔다. 부인을 본 선택이 물었다.

"당신이 무슨 일로 여기에 왔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선택은 곧장 아내를 끌어당겨 자기 무릎 위에 앉혔다. 부처님께서는 신통의 힘으로 부인으로 하여금 똥을 싸서 그의 옷을 더럽히게 했다. 선택은 구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코를 막고 좌우를 돌아보았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요?"

뒤에 앉아 있던 발난타가 견디다 못해 선택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코를 막고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오?"

"구린내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력을 써서 발난타와 여러 대중이 묘색이 선택의 옷을 더럽히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러자 발난타가 선택에게 말했다.

"잘 살펴보시오. 당신의 아내가 구린내를 피우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워낙 깨끗한 사람이라 몸에 더러운 것이라곤 없습니다."

그리고는 발난타에게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당신한테 이 구린내가 나는 것 같소."

발난타는 크게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을 이제 똥 거사라고 불러야겠소. 당신은 그렇게 똥칠을 하고서도 남을 비방하려는 것이오?"

발난타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똥거사를 여기서 내보냅시다."

그리고는 선택의 손을 끌어 대중 밖으로 나가게 하자, 선택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여 내 무릎 위에 앉게 했는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소?"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똥주머니를 가까이 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선택은 옷에 묻은 똥을 털어 버리려다가 오히려 몸까지 더러워지자 발난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발난타가 말했다.

"이 똥은 당신 몸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쳤소. 이것은 당신 몫이니, 만약 벗어나고 싶다면 곧 그것을 멀리 해야 하오. 곧 당신의 아내를 멀리해야 하고."

선택은 아내를 돌려보낸 뒤 말했다.

"나는 이제 허물 많고 오물로 가득한 아내의 몸을 확실하게 보았기에, 여인의 몸에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부처님 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고 싶습니다."



삽화 · 강병호

발난타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몸에 구린내가 그렇게 나니, 향을 바른다 해도 한 해는 지나야 되겠소. 그런 뒤에라야 혹시 출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선택이 대답했다.

"제가 만약 향을 바르고 한 해를 보낸다면, 혹이 몸이 죽게 되거나 혹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출가하여 도를 구할 인연이 무너집니다. 지금 만약 허락하시어 출가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는 승방의 정사에 머물지 않고 아란야(阿蘭若)에서 걸식하고 누더기를 입고 고요한 곳에 혼자 있을 것이니, 구린내를 풍기지 않을 것이오."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잘 왔다. 너는 사문이 되어 범행을 닦도록 해라."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괴로움(苦), 쌓임(習), 사라짐(盡), 도(道)를 설법하시자, 깨끗한 법눈을 얻고 수다원이 되었다. 또 거듭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자 아라한을 얻었다. 다음날, 선택은 왕사성으로 나아가 걸식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본가에 닿았다. 이때 아내 묘색이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은 남편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저를 버리고 꼭 사문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선택이 말했다.

"그럼 당신은 그때 그렇게 나의 옷 위에다 똥을 싸서 내 몸을 버렸어야 했소?"

묘색이 대답했다.

"당신은 비구가 되고서도 그렇게 사람을 헐뜯어야 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집으로 시집 와서 아직 바깥문도 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부처님 회상에 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때 악마가 선택에게 말했다.

"그대가 그때 본 묘색은 애초부터 묘색이 아니었소, 그것은 변신한 가짜 묘색이었소. 그러니 이제는 돌아와 5욕을 마음대로 즐겨도 될 것이오. 사문 구담이 당신을 속였을 뿐이므로 당신의 지금 이 상황은 거짓이요. 당신은 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담 사문은 언제나 신통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출가하도록 해왔습니다. 당신도 속은 겁니다."

선택은 참된 법을 증득했기에 이내 이것은 악마임을 깨닫고 말했다.

"악마야, 너도 가짜 악마일 것이요, 이 묘색 부인도 가짜이니 모두가 다 가짜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병든 눈에 비치는 허깨비와 같다."

그때 묘색은 이 법을 듣고 바로 깨끗한 법눈을 얻었다. 부처님법 안에서 두려움 없는 법을 얻고는 선택에게 말했다.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범행을 닦으시다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저 역시 그 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겠습니다." (〈화수경〉 제8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㉜



모든 것이 법문

모래의 무정법문

외손녀, 규연이가 큰이모를 따라 부산에 왔다.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규연이는 오래 전부터 외할머니네 와보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연휴를 이용해 오게 됐다. 나도 그랬지만 어렸을 적에는 친척 집에 놀러가는 것이 설레고 재미나는 일이다. 커서는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겠지만 어릴 적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처음 오는 길이고 나는 규연이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기차에서 내린 규연이가 달려와 와락 안겼다. 기차 타고 왔다고 자랑부터 했다.

첫 날은 송정 바다와 해운대 바다를 구경시키고 점심도 바닷가에서 하기로 했다. 주말이이서 해운대 가는 길이 유난히도 막혔다. 평소 30분이면 도착 할 수 있는 거리인데 한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도착 했다.

마침 해운대에서는 세계모래 조각전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모래로 만든 갖가지 조각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해변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부산에 살면서도 처음 보게 됐는데, 모래로 만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교한 조각들이

하나의 존재가 전체의 시작
세상만물 모두 존재 이유 있어

전시되고 있었다. 영화 서편재의 한 장면,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렉, 가수 싸이의 모습까지 해운대 해변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규연이는 신기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 나는 규현이와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너무나 신기했다. 그 작은 모래알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 가지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모래 한 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많은 모래알이 뭉치면 그때부턴 한 알의 모래알이 아닌 것이다. '한 알'은 할 수 없는 일을 '한 알'들이 뭉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래사장의 모래 조각을 보며 '가족'을 떠올렸다. 또 한 나라의 '국민'도 떠올랐다. 가족이 모여 한 나라를 만들고 나라와 나라가 모여 지구촌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혼자와 가족은 각기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의미와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모래알이 하나의 모래알이 아닌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처음으로 부산 나들이를 한 손주 덕분에 무정법문을 들었다. 그러니 어린 손주도 가족의 시작이고, 더 큰 의미를 부르는 존재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다.

자연의 소중함

요즘 TV 의 '천기누설'이란 프로가 있다. 그날 이야기는 약이 되는 풀과 나무 등 식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니 세상에 약이 아닌 풀이 없고 약이 아닌 나무가 없었다. 자연은 너무도 고마운 존재였다. 어떤 나무는 잎이며 뿌리가 무서운 암을 고치기도 했다. 심지어는 병원의 처방으로도 불가능 하다는 병을 고치기까지 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약초들이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었다. 그중에는 우리가 평소 쉽게 볼 수 있는 풀과 나무도 있었다.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발아래 밟히는 풀이라고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존재들로부터의 도움이 있기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없이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자연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 우리의 자연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너', '나'가 없이 '경', '중'이 따로 없이 고민하고 챙길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을 우리 몸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우리 인간들의 무지한 행동들로 인해 숲이 사라지고 강물이 더러워지는 일은 없어야겠다. 꽃과 풀을 키우는 벌레들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물고기를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일인 것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어찌 사람만이 정일까?

그날은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날이었다. 10여 년 동안 우리가족의 발이 되어준 차를 새 차로 바꾸게 되었다. 그 차가 가장 많이 다닌 곳은 다름 아닌 절이었고, 우리 가족 외에도 많은 도반들이 함께 타고 다녔다. 그날 마지막으로 통도사를 다녀왔다. 그 동안 한 번도 사진에 담아보지 않았던 차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차안을 치우면서 마음 한편 미안하고 참 고마웠다고 쓰다듬기도 했다.

그리고 새 차가 도착했고, 10년 넘게 함께 했던 차와는 이별을 했다. 멀어지는 옛 차를 바라보며 가족들이 모두 손을 흔들었다. 대상이 무엇이건 이별은 슬픈 것이었다. 모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잘 해주어야 할 일이다. 모든 것이 가까이 있으면 정이 들기 때문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나눔투어모집]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공식과 함께하는 나눔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후원참여]

[벽돌 한장] 10,000원
[책상 · 의자] 50,000원
[땅 한평] 100,000원
[식수대] 300,000원
[컴퓨터] 1,000,000원
[교실 한동] 10,000,000원
[법당(10명)] 50,000,000원

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학교건립 불사

극심한 가뭄과 기아, 질병
그리고 부족한 배움의 기회로 인해
아프리카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12-9859-5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후원문의] www.thenanum.org T. 02-737-9595 F. 02-737-9195
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대행 스님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야 조상님들의 문도 열립니다

우리가 칠석(七夕)하고 백종(百種)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칠석을 지내셨는지 궁금하군요. 칠석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또 백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칠석이다 하면 칠(七)은 우리 몸 자체와 마음 자체를 말하고, 석(夕)은 그 마음이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이라고 해도 되고, 아침 저녁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켤 때나 끌 때나, 이런 것이 바로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듯이, 즉 말하자면 아침에 불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을 끄는 마음이나 같이 엮어서 마음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아침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저녁도 현재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없는 마음, 그 마음에서 발견해서 밝히면 칠석(七夕)이 칠성(七星)이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견우와 직녀도 그렇게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쓴다고요. 일 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 년이지만 그 별성에서 생각할 때는 일 초, 하루를 뜻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 수명이 일 년이면 거기서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한다면. 아무튼 여기서 지어놓은 것입니다. 지어놔도 해당이 되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이다, 방편이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년, 하루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룻동안, 24시간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동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사생(四生)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모든 만물만생이 다 견우 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듯이 모두가 이렇게 인연이 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안 가십니까? 이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도 될 수가 없고요.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명을 생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석(七夕)날은 칠성(七星)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백종에 건질 수가 없어요. 왜 목련존자를 비유해놨을까? 목련존자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도 열반의 구경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지옥문을 열지를 못해서 어머니를 건지지 못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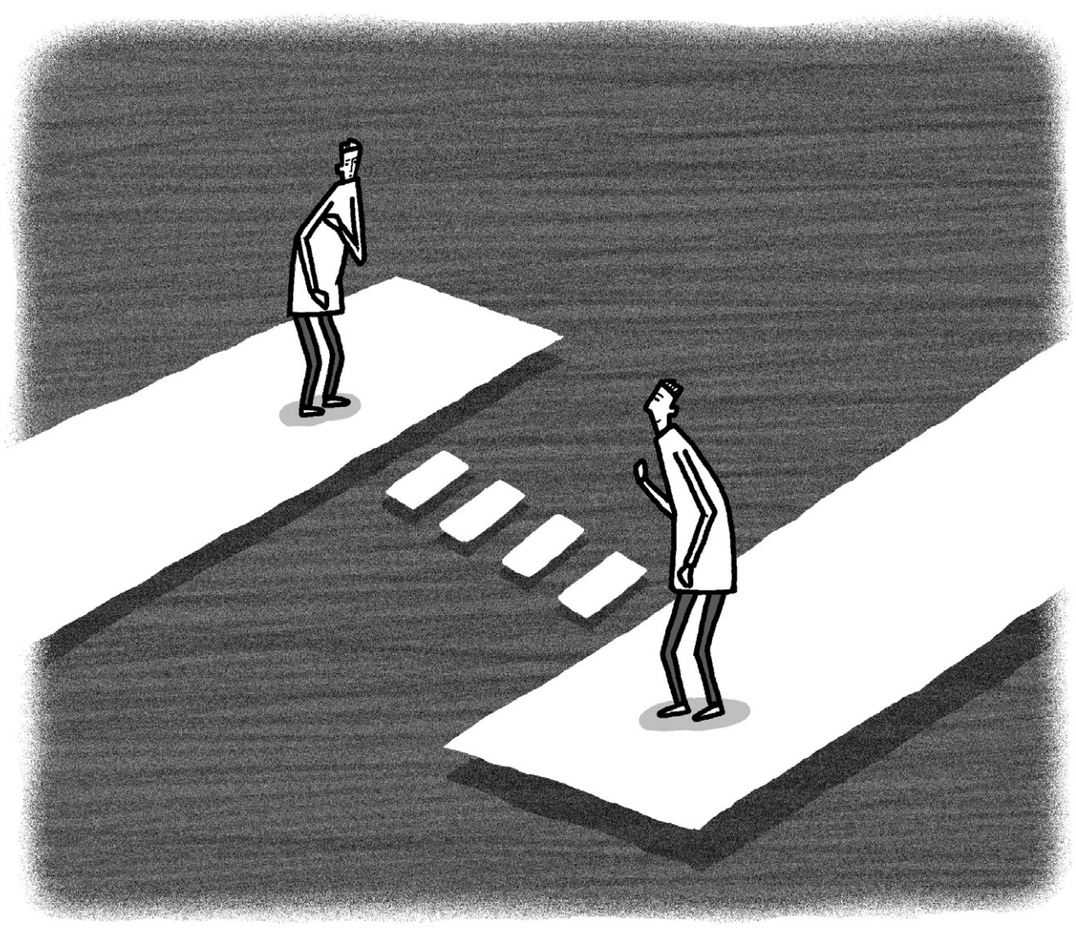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다시 가서 부처님한테 구해서 다시 정진하라고 그래서 다시 정진해서 지옥문이 스스로 열렸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칠석이다 하는 날은 항상 나한테 숨어있는 그 마음,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라,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깨달아야만, 칠석에 깨달아서 칠성이 돼서 그 마음의 불을 밝힌다는 뜻이죠.

백종은 아침과 저녁 이것이 한데 모아진 한 마음입니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일체 만물만생의 모든 영령들을 건질 수가 있는 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도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려야 건질 수가 있지,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못하면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북하면 백종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백종을 그냥 돈이나 갖다놓고 영령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스님네들의 힘을 빌려서 한다 하면은 스님네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상대방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건져지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둘로 보고 그렇게 보니까 이 봉투에다 돈이나 넣어서 이름이나 써서 갖다 놓으면 영가가 천도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마시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육의 조상들과 둘이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내 부모들의 조상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거를 맡겨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상들의 마음도 내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게 탄생이 되든지, 승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만 된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흩어지지 말고 항상 부모와 일체 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한마음 속에서만이 빚어진다.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전체 한마음에서 들이고 내진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도 그 마음을 내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넣는다면 둘로 봐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부모들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의 자기 마음을 훤히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도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툭 터져서, 삽시간에 물리가 터져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칠석이 그런 마음의 도리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아예 불도 밝게 일어날 수가 없거니와 조상들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데도 아까 견우와 직녀 얘기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됐습니까? 하하하. 여러분이 다 견우와 직녀라고요. 딴 데,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견우와 직녀고,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연이 많다지만 그 만남도 즐겁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즐겁지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허허허. 그건 그렇게 해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우와 직녀 속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 속에서도 벗어나게.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그냥 훌렁 벗어나게끔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도 아침 저녁이 한데 모아져서 공해버렸다. 공했으면 그 공한 도리를 알 때는 그냥 무(無)다. 무조차도 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도리를 알았을 때는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 한마음에 맡겨놓고 마음내는 것이 불을 켜는 것이다

☞ 29면에서 계속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나가는 데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산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저절로 나옵니다. 스스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고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우리가 지은 거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이 팥이 될 수가 없고 팥이 콩이 될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흑인이 흑인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가는데, 까만 초코렛을 입에 물려가지고 가는 데 너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흑인은 백인을 낳을 수가 없어.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일상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 하나하나 자기가 살아나가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냥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면 좀 감춰서라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건 감추고 자시고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 법계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곧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인데 한마디 더 하자면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오죠. 지옥이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의 생각과, 말이나 소나 됐을 때에, 속으로는 사람으로 살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죽으로는 말의 모습을 가졌을 때, 소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개구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독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벌레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 답답함이란 어떻겠습니까? 달리 지옥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영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탄생을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령들의 의식은 첫째, 살아서 의식을 가졌을 때에 '나'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도 항상 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데는 자기 몸속의 의식들이 전부, 이 수십억 마리가 그냥 깔려있으니 한 발자국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거야.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강을 사이에 놓고 건너가지 못해, 빠져죽을까봐. 그러니까 물가를 뺑뺑 돌면서 오백 년을 돌아도 배가 오질 않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바퀴를 넘어서야 될 텐데 뜨거워서 타죽을까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또한 '나'라는 걸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만 알면 나라는 게 공해버려서 무조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걸 팽개치게 될 텐데, 그거를 놓지 못해서 항상 그 업식에 밟혀서 못 나오고, 자기 의식대로 물에 빠져죽을까봐 못 나오고, 불에 타죽을까봐 못 가고 이래서 자기의 갈 길을, 궤도를 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넘기보다는 살아서 깨달아야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 깨달음이 열반이지 죽어서 혼백이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열반이란 말도 할 것도 없죠. 살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으면 살았을 때 그 업식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우리가 발자취를 걸머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 놓고 하나 떼어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떼어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일체 만법이 다 우리가 걸음 걷듯이 그렇게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항상 얘기해드리죠, 그렇게 놓고 간다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형님 노릇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니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공한 도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 땐 실감이 안 납니다. 자기가 진짜로 지옥고에 들어서봐야 정말이지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 아들을 두었는데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얼마나 청개구리짓을 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나 죽으면 산에다 묻어다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물가로 갈 줄 알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니까 아이, 살아생전에 영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어서나 말을 듣겠다고 아, 산으로 올라가지 뭡니까? 그런데 막내 아들한테는 "나를 죽으면 물에다 넣어다오. 관을 물에다 넣어다오." 그랬죠. 그러다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깐 막내 아들이 밤중에 몰래 지게를 대어놓고는 관을 져다가 강물에 갖다 넣는데 그냥 쩍 벌어지면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나서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모조리 죽고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저승 천자가 되시고요, 아들들은 죽어서 소가 됐어요. 소가 되어서 전부 외양간에 매여 있는데 막내 아들이 꿈을 꾸니까 환경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꿈을 꾸니깐 "음매"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러니깐 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저거는 너의 큰형이다. 저거는 너의 작은형이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남을 해꼬지를 하고 그랬으니, 소가 돼서 남의 일을 봐줘야 되고 언짢은 일 한 거를 다 저걸로 갚아야 하느니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소 무명을 쓰고 나왔으니 자기는 "음매, 음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죠.

실지로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 철 날 동안에 열심히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치 말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은, 남의 원망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그게 바로 내 마음 발견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그 한 구멍에, 두 구멍도 아닙니다. 구멍 없는 구멍에다가 모든 거를 놓으면은 거기서 일체 만법이 나고 일체 만법을 거기다 놓고…. 이런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상 생활 속에서 전체 살아나가는 게 여러분이 살지 딴 사람이 살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다니면서 모든 걸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길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일도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 보태주거나 뺏어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齋) 지내는 도리 이것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저 최씨라는 분이 천도를 시킨다고 절마다 다 다니면서 해도 천도가 안되더랍니다. 안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서는 보따리를 들고 저길 나가다가 도로 들어오고 도로 들어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내게 온 겁니다, 이제. 그래 지내고 싶으면 거기 깔고 앉았던 방석 있죠, 거기다가 놓고 절하고 가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 그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냥 차려놓고 지내도 안되는데 아니, 방석에 그냥 놓고 저 방석에 하고 가라고 이러니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거기다 놓고 갔습니다, 절을 하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오더니만 "아이고, 천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고마운 사례로 얼마를 갖다가 거기 방석에 또 놓더군요.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아니,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모시고선 그냥 구름을 타고 다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럭하고 난 뒤에 그 집이 최씨네 가문이 일어난 겁니다. 가발 공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주 그게 그냥 담뿍 그때 일어나서 큰 부자가 됐죠.

그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님네들이 절에서 보통 이렇게 차려놓으면 스님네들이 어느 만큼 차려놨다는 걸 영령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령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스님네들 마음부터 보거든, 마음부터 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상 차려놓은 거하고, 돈 얼마 가져온 거하고, 돈 얼마 놓은 거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알지 뭐, 영명(靈明)하죠.

그러나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탁 소리는 우주 법계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탁 열렸으니깐 상을 안 차려놨어도 그렇고 차려놨어도 그렇죠. 모든 게 내 거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아니, 그 영령들이 그 스님네들의 마음에 탁 가서 하나가 됐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한데 합쳐져도 두드러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풀려서 제도가 돼도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재사 지낼 때, 여기서 천도재를 지낼 때 물건을 많이 사다가 상에 온통 쌓아 놓고 지내야만 잘 지내주는 걸로 아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사면, '아이, 물건도 안 사는데 뭐 돈 이것만 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습을, 아까 얘기했듯이 일차적으로 그렇게 독사의 무명을 타고났거나 또는 어떠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극매고 있는 그런 지옥고를 범했을 때, 이 공부하면서 그것을 면해주기를 바라고 모든 거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콩 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 지옥고입니다. 오간지옥고니 하는 그 오간지옥이란 것은 땅속에서 파먹고 땅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그러니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그 마음 즉, 영령을 탁 건져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놓는다면은 금세 제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형제의 그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가 하면,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건지려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령들의 의식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스물도 되고 이럽니다. 돌아가셔서 천도재를 했으면은 아이, 제사(祭祀)도 안 지내야지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된 도리죠. 잘됐든 못됐든 자식이 된 도리예요. 묵은 빚 갚아야죠,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못 갚으면 자기 대에서 또 자기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 허명무실하게 떠넘기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 상을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있게 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떡 한 그릇이 되남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물과 초, 향 그거면 족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들어간들 빗방울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이라고 하지. 수만 개의 영령들을 한마음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럭하면 더 집안이 깨끗하고 더 청정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물질을 갖다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넉넉지 못하고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아예 불도 밝게 일어날 수도 없거니와
조상들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위 법문은 92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8월 24일, 8월 31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8월 28일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 김해공향 타이항공 – 베트남 항공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실속 팩 상품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4인이상 출발가능)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7일 요금문의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19만원
• 대만	5일	11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불자 세상보기

성형 권하는 사회…진짜 미인은?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방학과 휴가의 기간을 성형의 계절이라 부른다. 한국은 이제 '성형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을 받으려는 관광상품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나는 성형을 비난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외모지상주의니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느니 하는 '도덕군자'인 척하는 규범적 비난에 선뜻 동참하기는 망설여진다. 다만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딱한 사연에 가슴이 저릴 뿐이다. 그 딱한 사연은 왜 그리 많은지.

성형은 인간 문명의 전개과정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몸의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여왔다. 이제는 얼굴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아니, 인간의 얼굴에 대한 관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헤아리기도 어려운 먼 옛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얼굴에 부착되는 각종 장신구, 다양한 화장품과 화장술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었다. 그런데 얼굴을 장식하고 화장하는 것을 넘어 지금은 얼굴을 뜯어 고치는 기술까지 개발한 시대로 온 것이다. 그러니 어찌 성형을 폄하하고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문명의 수레바퀴에 성형의 자국은 너무나 뚜렷하다.

아름다움은 인간 뇌를 편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그러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리라. 그런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심리학계의 실험에 따르면 추한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하는데 아름다운 대상을 선택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강남의 지하철역이나 지하도에서 성형외과 병원의 선전을 많이 보게 된다. 한결같이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이는 영화에서 보듯 쫓기는 범죄자가 가면으로 얼굴을 개조한 듯 완전히 딴판이다. 그리고 고쳐진 얼굴은 엇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다양함 속에 있는데 성형수술에 그 못된 전체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 성형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형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언뜻 붓다의 '

아름다움은 다양성에 있어
붓다의 '중도의 지혜'가 해법
'화무십일홍' … 마음 가꿔야

중도의 지혜'가 떠오른다. 가야금의 줄은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늘어지면 소리가 죽는다. 어떻게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를 낼 것인가? 몇 가지 성형의 중도 길을 찾아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형의 동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경쟁만능사회에서의 생존수단에서부터 과시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에는 자기 삶의 방향과 가치관 정립에 대한 깊은 고뇌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아름다운 얼굴보다는 추함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아름다워지려는 열망으로 얼굴 성형을 했는데 오히려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와 정체성을 지우는 성형수술은 받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과거의 낡은 앨범 속에서 삶의 아련함을 느끼고 삶의 지혜를 배운다. 낡은 앨범 속의 사진을 타자로 느끼고, 수치로 느낀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아무래도 명심할 것은 성형수술의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리라. 우리의 몸도 얼굴도 늙어 가면서 성형된 모습 또한 늙어 갈 것이다. 어쩌랴. 그 늙은 모습이 참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니. 그러니 믿을 만한 것은 마음뿐 아닌가. 마음 성형은 오래 가고 이 몸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마음 성형의 명의는 어디에 있는가?

발언대

한겨레 신문 달라이 라마 폄훼 논란

정문태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달라이 라마를 비판하는 칼럼을 다시 개제했다. 글의 논지는 달라이 라마가 미국과 서구 열강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데 있다. 하지만 주한 티베트 단체와 불자들은 댓글과 SNS를 통해 정 기자의 칼럼을 비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티베트의 투쟁을 진정 존경한 것인가

'반미'라는 명분이 당신의 시야를 흐려 놓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미국을 증오하는 당신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냉철한 눈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D:ssakssuk〉

한국이 일제에서 독립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필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티베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존경해 왔다"는 필자의 글이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티베트인들의 현실을 한겨레 신문에서 더 많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티베트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것으로 줄입니다.

〈ID:Tenzing Lama〉

티베트와 CIA이야기는 1959년 이후 신문 기사에서 양념으로 잘 써먹은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미에 '달라이 라마와 망명 정부'를 비판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한 까닭이라고 하셨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려면 제대로 된 팩트를 갖고 해야 합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며 한 민족의 지도자를 싸구려 같은 존재로 만들면서 하는 비판은 필자나 독자들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ID:tibetmirror〉

한겨레신문, 정문태 기자님의 글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잘 알면 모르겠지만 왜곡된 기사를 개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글이 보도됨이 창피합니다. 〈ID:tara0108〉

사실이 아닌 순전히 자신이 가공한 얘기를 사실인양 "종교지도자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기업광고에 얼굴을 내민 사건이었다"라고 쓴 정문태 기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이제부터 영원히 접습니다. 더불어 한겨레 창간 당시 약소하나마 참여했던 저로서는 늘 이런 식으로 갈등만을 조장하는 한겨레에 이제는 기대를 접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요즘입니다. 〈ID:이앤드류〉

지극히도 서양의 관점에서 가증스러운 합리주의를 앞세워 기고를 하셨네요. 당신같은 사람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동양의 심오한 철학에 대해서 이해나 할수 있을런지. 그런 사람이 티벳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는건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을 감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괜한 펜으로 한 나라의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 하지 않길 바랍니다.

〈ID:김용중〉

"시민의 눈으로 티베트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글이 됐습니다. 이유는 설명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관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반미의 눈으로 티베트를 보니 시민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감추고 목적에 맞추려니 공감도 얻기 어렵고 오류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ID:kisoods〉

살다보면 때론 실수도 하고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도 저지르게 된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한겨레신문은 일개 기자에게 모든 문제를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정식으로 사과해라. 별볼일 없는 한량이지만 한겨레 신문 불매 운동 벌일 생각도 하고 있다.

〈ID:신창우〉

말미에 던져버리듯 올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인정한 오류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있는 사과부터 확실히 한 후에 인류와 세계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조용하게만 있다면 당신들이 비판하는 쪽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ID:Boram Park〉

社說

문광부 학술도서 선정 문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 전공자가 전무한 심사위원 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불교계 출판사 모임인 불교출판문화협회는 7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불출협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종교 분야에 총 8종이 선정됐으나 불교 관련 도서는 한 종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정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술도서 출판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출협은 도서 선정 단체인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에 △불교 전공자가 전무한 심사위원 △불교학 분야 심사위원 명단과 전공 분야 공개 △일련에 과정 등을 8월 5일까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실 우수학술도서에 1, 2권이 더 선정된다고 해서 불교계 출판사의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없다. 다만 좋은 책을 발간했다는 출판사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다. 불출협이 협회 차원에서 반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 전문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불교 서적을 심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불교계 출판 관계자들은 "불교계 전문가가 입회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이뤄졌다면 우리도 이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을 반성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자기 편의대로 진행한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실제 일본계 불교 종단인 한국창가학회(SGI)의 학술서가 버젓이 우수학술도서에 올라오는 등 이번 선정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출판계에 파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이다.

이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선정 단체는 선정 배경과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 불교 출판계 역시 자체 모니터링과 불교 출판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영문표기 혼란 종식 환영

통일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재 영문 표기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영문 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규칙을 제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어권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영문 표기 기본원칙은 △국문 고유의 문화재명칭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 등 4가지다.

특히 불교문화재와 관련해선 부처님과 보살의 영문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불교 관련 전적은 흔히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경우 영문제목을 사용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계 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 그간 문화재 영문 표기는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라 통일성이 부족하고 범용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영문 표기 기준 마련으로 학술적·관광적·국제적으로 통일성을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영문 표기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나한(羅漢)님의 기도가피 속에 모든일 성취합시다



봉황산 백운사에서는 석조(石造) 십육나한님의 성상(聖像)과 **천년불변(千年不變)의 석채(石彩)를 사용하여 국내 최초 오백나한님의 성상(聖像)을 탱화로 조성**봉안하였습니다. 나한님 도량에서 기도참배하실 불자님들께서는 전화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나한기도도량 백운사 주지 합장

카페안내 : 인터넷 DAUM 봉황산 백운사 를 클릭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440-1
문의전화 (054)534-5892, 531-9022 011-468-9022